

2018

정책연구 2018-04

국가 관광정책과 전라북도 토탈관광 연계 활성화 방안

연구진 김형오 · 장재협 · 김수지

Jeonbuk Institute

정책연구 2018-04

국가 관광정책과 전라북도 토탈관광 연계 활성화 방안



연구진

연구책임	김형오 •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	장재협 • 전북연구원 전문연구원 김수지 • 전북연구원 전문연구원
자문위원	장병권 • 호원대학교 교수 최영기 • 전주대학교 교수 홍성덕 • 전주대학교 교수 박경열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김희옥 • 전라북도 관광총괄과 토탈관광팀장 민동규 • 전라북도 관광총괄과 전문위원

연구관리 코드 : 17JU36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목 차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6
제2장 관광여건변화 및 국가 관광정책분석	11
제1절 대·내외 관광여건변화	11
제2절 국가 관광정책분석	25
제3장 전라북도 토탈관광 실태 진단	43
제1절 전라북도 토탈관광 현황분석	43
제2절 전라북도 토탈관광 실태분석	50
제4장 전라북도 토탈관광 향후 방향	63
제1절 국가 관광정책과 전라북도 토탈관광 연계 방향	63
제2절 국가 관광정책과 전라북도 토탈관광 연계 추진과제	65
제5장 전라북도 토탈관광 추진과제	71
제1절 전라북도 토탈관광 추진과제 발굴	71
제2절 전라북도 토탈관광 추진과제 핵심요약	120

표 목 차

[표 2-1] STEEP(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 미래 환경변화의 거시적 트렌드	12
[표 2-2] STEEP(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 관광환경 변화요인	13
[표 2-3] 교토의정서와 新기후체제의 특징 비교	22
[표 2-4] 방한시장 전략적 다변화를 위한 시장별 마케팅 전략	36
[표 3-1] (추진전략 1) 통합형 연계관광구축	45
[표 3-2] (추진전략 2) 융복합형 관광자원 개발	45
[표 3-3] (추진전략 3) 창조형 관광산업 육성	46
[표 3-4] (추진전략 4) 맞춤형 토탈관광서비스 제공	46
[표 3-5] 전라북도 관광객 현황	51
[표 3-6] 전라북도 외래관광객 현황	52
[표 3-7] 전라북도 국내관광객 현황	53
[표 3-8] 전라북도 관광객 실태조사 개요	55
[표 3-9] 전라북도 관광객 실태조사 : 세부항목별 관광만족도	56
[표 3-10] 전라북도 관광객 실태조사 : 재방문의향 및 타인 추천의향	57
[표 3-11] 전라북도 관광객 실태조사 : 단일목적지 및 복합목적지 관광객	57
[표 3-12] 전라북도 관광객 실태조사 : 전라북도 관광에 대한 개선사항	58
[표 5-1] 열린관광지 선정 현황	74
[표 5-2] 지역관광 단위별 중간지원조직의 기능과 특징 및 역할	81
[표 5-3] 전라북도 국제행사 유치 검토대상	93
[표 5-4] 전국 컨벤션뷰로 운영 현황	107
[표 5-5] 국내 서비스산업 고용 및 부가가치 비중	114
[표 5-6] 2016년 기준 지역별 관광사업체 및 종사원 수 추이	116
[표 5-7] 관광사업체 1개소당 평균 종사원 수	117
[표 5-8] 전라북도 토탈관광 향후 추진과제 핵심요약	120

[표 5-9] 전라북도 토탈관광 향후 추진과제 핵심요약 (표 계속)	121
[표 5-10] 전라북도 토탈관광 향후 추진과제 핵심요약 (표 계속)	122
[표 5-11] 전라북도 토탈관광 향후 추진과제 핵심요약 (표 계속)	123
[표 5-12] 전라북도 토탈관광 향후 추진과제 핵심요약 (표 계속)	124

그 립 목 차

[그림 1-1] 관광진흥기본계획 정책추진 방향	4
[그림 1-2] 연구 과정	8
[그림 2-1] 문재인정부 국가 관광정책 방향	26
[그림 2-2] 관광진흥기본계획 전략 및 핵심과제	29
[그림 2-3] 관광법제 개편방향(안)	30
[그림 3-1] 토탈관광 체계도	43
[그림 3-2] 토탈관광 비전 및 목표	44
[그림 3-3] 전북투어패스	47
[그림 3-4] 전라북도 관광객 현황	50
[그림 3-5] 전라북도 관광객 만족도	54
[그림 3-6] 전라북도 관광객 부문별 만족도	54
[그림 3-7] 전라북도 추천키워드 및 관광만족도	59
[그림 3-8] 전라북도 자원풍족도 및 환경쾌적도	60
[그림 4-1] 국가 관광정책과 전라북도 토탈관광 연계 방향	64
[그림 4-2] 국가 관광정책과 전라북도 토탈관광 연계 추진과제 도출과정	65
[그림 4-3] 국가 관광정책과 전라북도 토탈관광 연계 추진과제 발굴	68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¹⁾

- 현대사회는 국민이 문화·예술 및 관광활동의 생산자이자 동시에 소비자이며 과거 일·조직 중심의 사회에서 개인의 휴식과 여가가 있는 삶이 중요한 삶의 가치로 변화함에도 한국은 대외적으로 정립된 경제적 지위 대비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 정부는 관광 및 관광진흥을 국정 운영의 중요 전략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자유·창의를 위한 문화예술, 국민의 휴식 및 삶의 질 제고를 바탕으로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스포츠 활동 및 관광복지의 여건 조성'을 통해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을 모색함
 - 특히, 정부는 관광분야의 재정기반 확충, 매개인력 등 일자리 창출과 확대를 통해 관광산업 생태계의 공정성 강화를 추진하여 국민의 창의 수준을 제고하고 문화의 부가가치 극대화, 관광의 공익적 가치 실현토록 함
- 정부는 국내 관광환경의 여건과 발전 방향성 및 사회적 인식·가치관 변화를 토대로 국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여가 정책의 일환으로 장기적인 문화비전의 틀 안에서 '사람이 있는 관광정책'을 수립하고자 함
 - 과거 국가의 산업과 경제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성과 중심의 도구적 수단으로 인식되던 관광에 대하여 국민과 지역주민, 관광객 등 사람 중심의 관광정책으로 전환하여 '쉽고 편안한 삶, 사람이 있는 관광'을 추구함
 - 따라서 국가 관광진흥의 정책방향을 첫째, 국민들이 한 달에 한 번은 여행을 떠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둘째, 관광객들이 다시 방문하고 싶도록 매력적 콘텐츠와 편의 제공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함
- 이를 위해 국민과 지역 중심의 관광정책을 수립하고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 관광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고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한 혁신형 관광산업을 육성하고자 소통과 협업을 중시하는 정책추진의 기반을 마련함
 - 국민의 일과 삶의 균형(Work & Life balance),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여행의 일상화를 추진

1)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참고하여 재구성함.

하고 지역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수도권과 제주도 등 소수 지역에 한정된 국내·외 관광객의 지방 분산화를 통해 관광의 지역경제 환원 효과를 극대화하고 함



자료 : 국가관광전략회의(2017), 「쉼표가 있는 삶, 사람이 있는 관광」, 관계부처합동, 2017.12.18.

[그림 1-1] 관광진흥기본계획 정책추진 방향

- 한편, 「전라북도 토탈관광」은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단일관광목적지화’를 목표로 지역이 보유한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관광자원의 연계·융복합을 통해 지역관광 경쟁력 제고 및 전북관광 활성화 증진을 위한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전라북도 토탈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천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의 방향성 모색이 요구되며, 국가 관광정책이 경제성장 및 산업발전을 위한 도구적 수단으로 인식되던 과거와 달리 ‘사람’ 및 ‘복지’ 등 국민 중심의 정책으로 변화함에 따라 토탈관광 정책의 방향성은 상위계획과의 궤를 같이함으로써 실현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관광정책을 검토하여 전라북도가 대응 가능한 과제를 발굴하고 전라북도 토탈관광의 정책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북관광 활성화 및 지역관광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정부 관광정책 방향에 따라 전라북도 토탈관광의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전북관광의 외연 확대를 위해 전략적 방안 모색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과 의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정책 전략과 전라북도의 관광분야에 부합한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제5차 관광진흥기본계획」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전라북도와 연계 가능한 세부 추진과제를 검토하여 제시하고자 함
 - ❖ 첫째, 국가정책 핵심과제 「생애주기별·계층별 관광자원」을 검토함으로써 ‘생애주기별 관광자원체계 구축’과 ‘취약계층 관광자원’을 전라북도의 대응과제로 선별하고 이와 관련된 과제를 발굴·제시
 - ❖ 둘째, 국가정책 핵심과제 「지역관광 역량 및 기반강화」를 검토함으로써 ‘지역주도형 관광산업 생태계’ 및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전라북도의 대응과제로 선별하고 이와 관련된 과제를 발굴·제시
 - ❖ 셋째, 국가정책 핵심과제 「지역특화 콘텐츠 발굴」을 검토함으로써 ‘새로운 지역관광자원 발굴·육성’을 전라북도의 대응과제로 선별하고 이와 관련된 과제를 발굴·제시
 - ❖ 넷째, 국가정책 핵심과제 「방한시장 고부가화·고품격화」를 검토함으로써 ‘고부가 관광산업의 지속 육성’ 및 ‘방한시장 고품격화’를 전라북도의 대응과제로 선별하고 이와 관련된 과제를 발굴·제시
 - ❖ 다섯째, 국가정책 핵심과제 「관광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검토함으로써 ‘혁신적 관광기업 발굴 및 지원’, ‘일자리·기업자원의 허브조성’을 전라북도의 대응과제로 선별하고 이와 관련된 과제를 발굴·제시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 미래의 관광트렌드 및 관광환경 변화·전망

- 전라북도 토탈관광의 방향 설정을 위해 미래의 관광트렌드 전망 및 관광환경 변화와 전망을 검토하기 위해 STEEP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 등 5개 분야의 환경 변화에 따른 관광환경 변화요인을 살펴보고자 관련 선행연구 자료 및 대내·외 관련기관의 자료를 고찰함

■ 국가정책 및 관광정책 검토

- 상위계획인 국가 관광정책과 궤를 같이하고자 국가비전, 국정목표, 국정전략 및 관광정책의 핵심기조와 추진방향, 추진전략 등 국가정책 기조 및 관광정책을 검토함
- 이를 위해 문재인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보고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업무추진 계획, 제5차 관광진흥기본계획 및 국책연구기관의 관련 연구를 검토함

■ 전라북도 토탈관광 실태진단

- 향후 전라북도 토탈관광이 추진해야 할 신규과제 발굴 및 기존과제의 개선사항 등을 검토하고자 기 추진된 전라북도 토탈관광 핵심사업을 살펴보고 국가승인통계 자료인 문화체육관광부의「국민여행실태조사」등 관련 자료를 통해 전라북도 관광실태를 진단함

■ 전라북도 토탈관광 향후방향

- 정부 관광정책 중 전라북도가 대응해야 할 과제를 선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라북도 토탈관광 정책이 추진할 수 있는 신규과제 및 기존과제의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결과적으로 토탈관광의 목표인 '한 곳 더, 하루 더, 한 번 더'전라북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 대응과제를 발굴·제시함

■ 본 연구의 한계

- 본 연구는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현(現) 국가 관광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전라북도의 토탈관광 정책의 선별하여 제시하는데 그 목적과 의의가 있어 기 추진된 전라북도 토탈관광(총 123개)의 세부사업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는데 그 한계가 있음
- 특히, 토탈관광 성과에 대해 정성적·정량적으로 모든 부문을 검토하지 못함으로써 연구의 한계성을 지님

2.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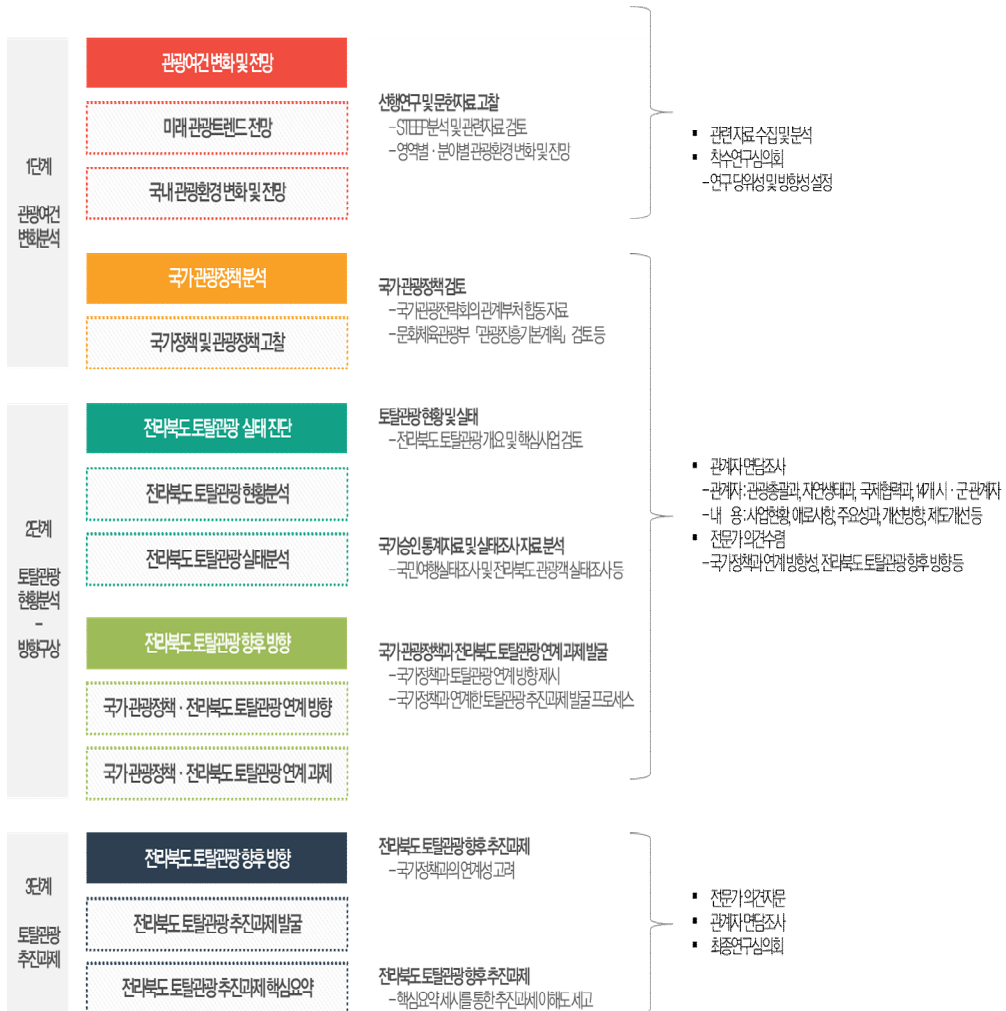
■ 문헌조사

- 관련 문헌, 보고서 등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을 통해 각 영역별로 대내·외 일반적 환경 분석 및 미래 관광환경을 전망함
- 관련 상위계획 검토를 통해 전라북도 토탈관광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제시함
 - 상위계획 검토를 위해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문화체육관광부 「제5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 수립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지역 관광자원 개발방향 연구 II」, 「제6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 및 전라북도 내부자료와 도내 14개 시·군의 관광계획 등을 검토함

■ 관계자 인터뷰 및 전문가 자문

- 토탈관광 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해 추진현황, 실태 및 개선사항에 대해 검토함
 - ❖ 토탈관광 관련 기관 : 전라북도 관광총괄과, 자연생태과, 국제협력과 및 도내 14개 시·군 관계자 등
 - ❖ 주요 조사·검토내용 : 추진 사업현황, 추진 상 애로사항, 주요 추진성과, 개선방안 및 제도 개선 방안 등
- 국가 관광정책과 연계한 전라북도 토탈관광 향후 추진과제 발굴·제시를 위해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전라북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국가 정책을 검토하고 방향을 설정·제시함

3. 연구 과정



[그림 1-2] 연구 과정

2

장

관광여건변화 및 국가 관광정책분석

Jeonbuk Institute

제1절 대·내외 관광여건변화

제2절 국가 관광정책분석

제2장 관광여건변화 및 국가 관광정책분석

제1절 대·내외 관광여건변화

1. 미래의 관광트렌드 전망

- 현대 지역관광 여건은 ICT기술 등 기술변화에 근간한 초광역 공간의 연결, 고령화 1인 가구 등 인구구조의 변화, 사회의 질적 성장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및 감성·체험중시 등 가치 중심적 소비경향 등 주변 환경과 밀접하게 반응(김향자·최자은, 2017)²⁾하여 급변하고 있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7)에 의하면, 관광개발과 관련한 국내정책의 집행과 실현을 위한 수단이 과거에는 단순히 관광(단)지 개발에 집중되었으나, 경제·사회·문화 등 사회적 분위기와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타 영역 및 산업과의 융·복합, 연계가 강조되면서 관광자원의 활용과 개발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임
 -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지방분권화 시대를 위한 중앙집권적 행정체계의 지방중심으로 이전·확대, 중앙부처 간 연계 강화, 지역자원의 특성을 반영하는 부존자원의 활용 등 지역관광 여건이 지속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됨
 - 사회·문화적 요인 및 경제적 요인에 따라 관광환경이 변화하고 특히, 관광수요자인 국내·외 관광객의 관광욕구 및 행태, 경험 등의 부문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됨
- 김향자·최자은(2017)은 지역 관광자원 개발방향의 정책제안을 위해 STEEP(사회·기술·경제·생태·정치) 분석틀을 활용하여 국내·외 문헌과 국제기구 트렌드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거시적 측면에서 관광환경 변화를 제시함
 - 지역관광 변화의 방향성 연구를 위해 관련 문헌 고찰을 수행하고 도출된 미래 관광트렌드의 주요 내용 중 거시적·미시적인 관점에서 지역관광자원 개발 영향 요인을 추출하여 관광환경에 직·간접적인 영향 요인을 예상하고자 함

2) 김향자·최자은(2017), 「지역 관광자원 개발방향 연구II: 정책제안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표 2-1] STEEP(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 미래 환경변화의 거시적 트렌드

유형	내용
사회	• (인구구조 변화) 인구증가, 고령화, 1인 가구, 저출산, 소비·라이프스타일 변화 • (사회불안 지속) 지역적·사회적 불안전성의 증가 및 세대·지역 간 양극화 • (개인권한 확대) 여성·다문화·소수인종 및 노인과 여성 등의 사회활동 참여에 개인권한 확대 및 소비패턴의 변화 • (가치지향 추구) 개인의 삶의 질 추구, 감성·문화 다양성 중시와 사회적 책임 관심 증대 • (디지털화 시대) 개성화, 교육혁명 및 도시화, 네트워크사회 등 디지털시대 도립
기술	• (과학기술의 혁명) 4차산업 혁명, 과학과 산업의 융복합 및 소셜미디어의 확대 • (미래예측 산업화) 기술발전 부작용, 바이오경제, 빅데이터 및 신소재 기술산업 • (지식의 디지털화) 가상지능과 로봇기술, 디지털 및 네트워크 기술의 성숙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기술패권주의 등장 • (정보의 글로벌화) 국가전략기술의 확보 중요도 증가, 기술 및 지식의 세계화 요구 증대
경제	• (불안정성) 세계경제의 불안정, 청년실업률 증가, 생산가능인구 감소, 소득불균형 심화 • (패러다임)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생태계 및 금융시장의 변화, 세계경제 통합 • (공유경제) 공유경제 증가에 따른 유통체계 및 소비패턴의 변화 • (지식경제) 지식기반 경제에 따른 지식재산권 중시, 지식·윤리경영의 부상, 노동인구 구조변화 • (균형발전) 지역혁신과 국토 및 지역의 균형발전, 세계 경제 질서와 역학구도의 변화
환경	• (기후변화·자연재해)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적인 대응전략 실패, 지구온난화, 환경오염 등 • (환경과 윤리 중시 풍토) 국제환경의 규제, 그린(Green) 친환경 분야 수요 증가 • (라이프스타일) 웰빙·힐링·개성 추구
정치	• (불안정성) 세계분쟁의 증가, 안전위험성 증대, 세계경제의 다극화·양극화 • (국제협력) 국가안보를 위한 범(凡)세계적 협력, 국제 권력분산·이동, 국가지원 및 국제적 복지지원 • (의사결정역량과 거버넌스) 민주주의 및 신뢰자본, 규제완화·자유무역주의

자료 : 김항자·최자은(2017)³⁾, 지역 관광자원 개발방향 연구Ⅱ: 정책제언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또한, 관련 연구에서 도출된 거시적 미래트렌드에 대해 중요도 분석을 실시하고 관

3)「농업·농촌경제동향(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메가트렌드 분석을 통해 예측한 외식상품의 미래, 상품학연구, 3(30), p. 51~62(마정아·손미희·조현영·김종근, 2012)」,「기술산업화 정책 변화 방향 예측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26(2), pp. 803~824(김혜민·한정화·김연배, 2013)」,「글로벌트렌드 2030(미국가정보위원회, 2103)」외에도 「한국사회의 15대 메가트렌드(한국정보화진흥원(2010))」,「미래의 직업연구(한국고용정보원, 2013)」,「유엔미래보고서 2040, 교보문고(박영숙 외, 2013)」,「Steep 분석을 통한 국내 테러발생 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5(4), pp. 31~68(배정환, 2013)」및「세계경제포럼의 세계경쟁력보고서(한국과학기술평가원, 2014)」의 자료를 검토하여 결과를 도출함

광환경 변화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도출함으로써 지역 관광자원 개발의 영향요인을 파악함

- 사회인식과 분위기 및 환경 등에 따라 지역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관광여건 변화와 관광객 욕구를 파악하고 관광자원 개발 분야에서의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거시적 환경의 영향요인을 도출함

[표 2-2] STEEP(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 관광환경 변화요인

구분		관광환경 변화요인
사회	인구구조 변화	• 핵가족화, 이혼율, 고령화, 딩크족, 솔로이코노미 등 1인가구
	소비패턴 변화	• 자기만족형 소비문화 확산, 합리적 소비패턴(중저가제품·서비스 등)
	가치 변화	• 여가활동 중요성 증대, 정신적 가치 추구, 힐링·치유트렌드 증가
	개인권한 확대	• 권력의 개인집중 현상,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증가(인터넷)
기술	모바일 기반 유통	• 가상현실 보편화, IT기술 활용 플랫폼 유통구조 확산, 사공간 초월 생활영역
	ICT 융복합화	• 소비자 중심 ICT 기술기반 서비스 제공, IoT(사물인터넷)·빅데이터 시장 성장
	아날로그 시대	• 수요자 맞춤형 시장구조, 아날로그(Analog) 감성 여가·힐링추구 경향
경제	불안정한 경제상황	• 경기침체·고(高)실업률, 저(低)성장, 뉴트럴 상태(가계부채 증가, 고용악화)
	아시아 소비시장	• 아시아 소비트렌드 다변화, 다양한 콘텐츠의 공유문화 확산(아시아 중심)
	경제 패러다임	• 셰어하우스·셰어카 등 공유경제 증가, 협력소비·온라인 시장 강화 및 확대
	新소비계층 등장	• 新소비계층인 N포세대 등 나홀로 트렌드(일코노미) 부상
환경	기후변화/자원위기	• 기후변화 대응, 식량·물 등의 공급감소 및 新에너지 개발
	친환경적 생활	• 친환경적 삶 추구, 공유경제 서비스 기반 친환경적 사회
	힐링트렌드 확산	• 힐링의 관심 증대 및 라이프스타일 선호, 얼리힐링족 등장 등
정치	불안정한 세계정치	• 글로벌 거버넌스 부재, 분쟁지역의 확산 및 다자주의 정치시대의 등장
	협력의 중요성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정부·시민사회 네트워크 활성화
	글로벌 리더십	• 글로벌 리더십 위기 확산, 비효율성·갑질 등 관료제, 수직문화 변화 요구

자료 : 김항자·최자은(2017), 지역 관광자원 개발방향 연구II: 정책제언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이와 같이 관광은 외부 충격과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김상태 외, 2016⁴⁾)함에 따라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 사회적 가치관 등에 따라 관광의 역할 규명 및 정책을 위해 충분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함

4) 김상태·류광훈·전효재·조아라·정광민(2016), 「관광진흥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 관광환경 변화와 전망

1) 사회적 여건의 변화와 전망

■ 여가·관광 중심사회로의 국민 인식 전환

- 과도한 근로환경, 경직된 휴가문화 등 성장과 소득 중심의 양적 패러다임으로 인한 일과 삶의 불균형은 국민의 삶의 피로도를 증가시키는 악영향을 초래하였으며, 따라서 현대사회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쉽표가 있는 삶'을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포용과 삶의 질' 중심사회로 변화하고 있음
- 개인행복과 현재의 삶을 우선하는 국민의 인식과 가치관 변화에 따라 여가, 관광에 대한 요구가 과거에 비해 더욱 증대되어 2017년 국민사회조사(통계청, 2017)에 따르면, 총 인구 대비 국내 여행자는 약 70.6%(2015년 66.7%)이며, 해외여행자 26.5%(2015년 19.7%)를 차지하는 등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음
 - 2017년 국민사회조사 결과, 국내관광 여행자는 1인당 약 5.3회(숙박여행 2.8회, 당일여행 4.9회)로 2015년 5.1회(숙박 2.6회, 당일 4.7회) 대비 약 0.2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관광을 목적으로 해외를 방문한 여행자는 약 88.1%로 2015년(79.8%) 대비 약 8.3%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2015년 국민사회조사⁵⁾에 의하면 '관광활동(59.4%)'이 향후 하고 싶은 여가활동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문화·예술관람(34.2%)', '취미, 자기개발활동(34.2%)' 및 스포츠 활동(24.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일과 삶(여가)의 균형, 다양성을 추구하는 삶의 가치 등 문화·관광 활동의 수요가 확대되고 다변화됨에 따라 관광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접근을 통해 국민 여가시간 확충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요구됨
 - 여행전문업체 익스피디아 트래블(Expedia Travel, 2016)가 국내 2050 남녀 직장인 1,000명을 표본으로 조사⁶⁾한 결과, 평균 1~2회(46.0%)의 횟수로 약 91.2%가 여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30대의 연령층이 타 연령층 대비 잦은 여행 횟수를 갖는 것으로 분석됨
 - 조사 결과(익스피디아 트래블블로그, 2017)에 의하면, 자신을 위한 가치소비에 즐기는 '포미족(For Me)'이 2017년 여행 키워드의 1순위(32.0%)로 선정되었으며, 그 외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는 '먹방',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갬이어족'이 선정됨

5) 통계청(2015), 「2015년 사회조사결과·복지·사회참여·문화와 여가·소득과 소비·노동」, 통계청 사회통계국

6) 익스피디아 트래블블로그(2016), <http://travelblog.expedia.co.kr/10064>

■ 인구구조의 변화와 지역인구 과소 현상 심화

- 한국은 과거 높은 인구 증가세 및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에 따른 노동력과 소비로 인해 경제성장을 경험한 인구보너스(Demographic Bonus) 시대였으나(이희연, 2016)⁷⁾, 2012년 약 0.45%였던 인구증가율이 2030년 '제로성장' 구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저(低)출산에 따른 낮은 인구 증가율과 65세 이상 인구의 증가의 고령화로 인한 인구오너스(Demographic Onus) 시대로 급격히 진입하는 모양새임
 - 2016년 65세 이상 인구(약 657만 명)가 전체 인구의 약 13.2%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30년(약 24.6%), 2040년(32.7%)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생산가능인구(15세~64세)는 동년 기준 약 3,704만 명에서 2040년 약 2,887만 명으로 약 22.1%(817만 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통계청, 2017; 문화체육관광부, 2017)⁸⁾
- 이상호(2016)⁹⁾는 국내 226개 시군구에서 약 29.7%인 79개 지역에 대해 인구감소에 따른 소멸의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저(低)출산 및 인구 고령화가 지역 인구의 감소문제를 야기하고 궁극적으로 지방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회적 논제의 계기가 됨
 - 통계청(2017) 자료에 의하면, 1993년 1.65명인 국내 합계출산율이 2016년 1.17명으로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으며, 노령화지수는 2017년 98.6명으로 1990년(20.0명) 대비 약 4.9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이상호, 2016; 윤현호·윤남경, 2017)¹⁰⁾
- 이와 같은 인구과소화 심화 수준은 전국의 '읍' 지역 인구가 '면' 지역의 인구를 추월하는데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며, 특히, 지역인구의 과소현상은 관광산업과 관련하여 지역 관광사업체의 인력난·운영 등의 부정적 영향의 요소가 됨에 따라 지역관광 경쟁력 기반 확충의 대의적 목표 아래 정책적·제도적 마련이 요구됨

7) 이희연(2016), 「저출산 고령화시대의 도시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 토론노트, 2016.10.20.

8)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6년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9) 이상호(2016),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지역고용동향브리프, 봄호, pp. 4~17

10) 윤현호·윤남경(2017),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공동체적 접근과 노력」, 마을공동체 이슈프리즘, 14, 행정자치부 한국지역진흥재단

2) 기술적 여건의 변화와 전망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급변하는 관광생태계

- 모바일(Mobile),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빅데이터(Big Data) 등 과학 기술의 발달과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여 사고하고 자기개발을 수행하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의 진보를 통해 현대 사회는 사람과 사물 및 세상을 연계하는 ‘연결(Connection)’이 핵심주제가 됨(문화체육관광부, 2017)
- 이와 같은 시대흐름은 ‘제4차 산업혁명(Industry 4.0)’으로 정의되며 센서·사물인터넷(IoT) 및 인공지능(AI) 등을 기반으로 한 기술변화가 향후 사회경제·산업구조 및 고용구조 등 사회 전반에 높은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됨
 - 2016 다보스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은 4차 산업혁명을 ‘3차 산업혁명인 디지털 혁명에 기반하고 물리적·디지털적 및 생물학적 공간의 경계가 희석되는 기술융합의 시대’로 정의함(김진하, 2016)¹¹⁾
 -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성(Hyper-Connected) 및 초지능화(Hyper-Intelligent)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 및 확산에 따라 인간 對 인간, 인간 對 사물 및 사물 對 사물, 공간 등 모든 것의 상호연결성 강화와 지능화가 현실화 될 것으로 보임
 - 산업은행(2017)¹²⁾에 의하면, 4차 산업혁명은 (사회·경제) 소비자 효용 증가 및 공급 효율화의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산업구조) 기존 산업 간 경계 소멸의 원인으로 신규 산업·서비스의 등장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예측됨
- 산업 간 경계의 소멸과 융합을 통한 무한한 확장의 가능성을 제시(심정보, 2017)¹³⁾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변화는 노동집약적 서비스산업의 대표성을 띄는 관광산업의 환경 변화에 영향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2015)는 서비스분야에서의 급진적 변화를 예상하고 관광영역에 영향을 미칠 변화를 제시하였으며, 따라서 시대변화의 유연한 대응을 위해 관광부문의 새로운 생태계 확장과 부가가치 증진을 위한 R&D,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11) 김진하(2016),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 모색, KISTEP InI 제15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2) 조윤정(2017), 「한국형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산업은행 조사월보, 제736호, 산업은행

13) 심정보(2017), 「CEO칼럼」 4ch 산업혁명과 관광산업, 국제신문, 2017. 06. 27

및 빅데이터 등 자원의 융복합을 통한 관광스타트업 및 글로벌 기업 육성정책의 획기적인 변화가 요구됨

-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관광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자동 통·번역 시스템, 군집소형 드론을 활용한 광고·홍보 및 이벤트, 무인콜센터, 관광정보 요약 및 사용자 대화하는 인공지능(AI) 기반 가이드(Guide) 서비스 등이 논의됨
- 신(新)기술과 결합된 관광산업 시장의 변화는 범(凡) 산업영역에서 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따른 관광산업의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한 실정임
- 김현주(2017)¹⁴⁾는 “관광산업의 영역에서 4차 산업혁명은 현재진행형”으로 정리하면서 플랫폼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관광산업의 구조변화, 센서를 기반으로 하는 사물인터넷의 도입,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관광패턴의 분석, 인공지능과 로봇을 기반으로 하는 자동화를 사례로 제시함¹⁵⁾

○ 한편, 스위스 유니언뱅크(UBS, 2016)의 「국가별 4차 산업혁명 적응 준비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표본 139개국 중 25순위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싱가포르(2위), 일본(12위), 대만(16위) 등 아시아의 경쟁국가 대비 낮은 순위를 기록함¹⁶⁾

- 세부순위 조사 결과 한국은 ‘기술수준(23위)’, ‘교육시스템(19위)’ 및 ‘노동유연성(83위)’ 수준을 기록함

○ 앞선 논의에 의하면, 4차 산업혁명은 기존 산업의 급진적 발달과 확장뿐만 아니라 고용구조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관광분야의 고용변화의 대책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으로 해석됨에 따라 관광산업 노동시장의 수급 및 질적 서비스 제고를 위한 획기적 변화가 요구되는 실정임

-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인공지능(AI)과 로봇의 영향에 따라 약 510만 개의 일자리가 2020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한국고용정보원(2016) 조사 결과, ‘인공지능과 첨단기술은 자신이 종사하는 직업의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약

14) 김현주(2017), 「4차 산업혁명과 관광산업의 미래」, 문화관광뉴스, <http://ctjournal.kr/41/sub.php?id=318051&code=column&code2=kigo>

15) 김현주(2017)는 세계 최대 숙박 공유서비스 ‘에어비앤비’, 교통서비스 ‘우버’ 등 대표적 플랫폼 기업을 자동성과 연결성을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 확장 모델의 사례로 설명하면서 플랫폼 경제를 기반으로 관광상품 및 서비스의 유통구조가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설명함. 또한, 북촌 한옥마을의 주차공간 공유시스템인 ‘파킹플러스’를 통해 관광산업에서의 사물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설명하였으며, 외래관광객 소비패턴 파악을 위한 ‘신용카드 사용현황 분석’의 사례를 통해 관광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빅데이터 관광패턴 분석을 사례로 제시함. 로봇 기반 자동화의 경우 선도적 변화가 진행되지는 않으나 노동시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전망됨을 기술함

16) 김규찬·이성민·김현주·윤주(2017)의 연구 「4차 산업혁명과 문화·관광 산업 정책방향」에 의하면, 국가별 4차 산업혁명 대응 순위를 “서구 중심 지표설정과 평가의 편향성을 고려하더라도 한국의 산업적 유연성은 상대적으로 결여된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분석함

44.7%로 나타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노동시장의 변화는 핵심적 화두이며, 고용관계의 다양성 및 유연성 확대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김현주, 2017)

■ 고속철도의 확장과 신(新) 교통기술의 발달

- 2015년 동해선 등 KTX 노선의 확장, 2016년 12월 개통된 SRT 등 광역교통망 체계의 구축 및 확대에 따른 교통여건의 변화는 지역 간 이동시간의 절감 및 활발한 인구이동의 효과와 생활공간의 지리적 범위 확대의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킴
 - 인공지능(AI), 근접센서, GPS 기술이 집적된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등 미래 운송수단의 상용화는 교통의 편리성 및 접근성 강화의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 요인으로 작용함
- 교통여건의 변화는 고속철도 영향권 외 서울·수도권 및 지방거점도시의 역할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데 용이해짐. 따라서 미래 운송수단의 발달과 고도화는 결과적으로 관광 이동환경 변화의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관광객 접근성 증대 및 대중교통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가 기대됨(문화체육관광부, 2018)¹⁷⁾
- 특히, 대중교통체계의 발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동시간 및 관광피로도의 감소는 관광이동환경이 개선되는데 긍정 요인으로 국내외 관광객의 관광의향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17) 문화체육관광부(2018), 「제5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 수립 연구」, 최종보고(안)

3) 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전망

■ 저(低)성장 기조에도 소비심리의 개선 등 정책변화에 따른 관광산업 성장 기대

- 2018년 세계경제는 선진국의 경기회복세의 지속, 안정적 성장의 중국경제 등 선진국 투자 회복(investment-led recovery)과 원자재 수출국(브라질·러시아 등) 수출 증가에 의해 2017년 6월 대비 약 0.2%p 상향된 3.1%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세계은행, 2018¹⁸); 기획재정부, 2018)
 - 세계은행(2018)은 세계경제 리스크(World Economic Risk)를 '상방요인(upside risk)'과 '하방요인(downsides risk)'로 구분하였으며, 특히 하방요인으로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등 보호무역주의 증가, 중동지역 분쟁 등 지정학적 긴장감 조성 및 고조, 자본축적 규모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등으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을 제시함(기획재정부, 2018)
 - 2018년~27년의 향후 10년간 세계경제 평균 잠재성장률은 2.3% 수준으로 2013년~17년 등 5년(2.5%) 대비 약 0.2%p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 세계경제의 호전 기조에도 2018년도 한국 경제성장률은 2017년 3.1% 대비 약 0.2%p 감소한 2.9%로 전망됨(한국은행, 2017¹⁹), 한국개발연구원, 2017²⁰)
 - 정부의 일자리 중심 정책, 소득주도 성장정책 및 소비심리의 개선 등 소비와 수출의 꾸준한 증가세로 소비가 성장을 주도하는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에도 건설과 설비투자 등 투자 부문의 하락세는 전반적 경제성장률 감소에 영향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LG경제연구원, 2017)²¹⁾
- 2017년 국내·외 정치상황, 북핵리스트 및 사드(SHADD) 등 소비심리의 제약요인에 의해 수요부문 대비 상대적으로 미진한 성장세를 보인 '소비' 부문은 불확실성의 완화 기조 및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 등에 따라 구매력 개선과 총소득 증가를 바탕으로 점진적 개선 추세를 보여(한국개발연구원, 2017) 약 2.8%의 민간소비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LG경제연구원, 2017)
 - 소비심리의 개선, 정부의 일자리 중심 정책 기조 등의 영향으로 2017년 대비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민간소비' 부문은 그럼에도 여전히 가계부채 부담 증가, 부동산 경기 냉각에

18) 세계은행(2018), 「2018년 세계경제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s)」, World Bank

19) 한국은행(2017), 「경제전망보고서」, 한국은행

20) 한국개발연구원(2017), 「KDI 경제전망」, 34(2), 한국개발연구원

21) LG경제연구원(2017), 「2018년 국내외 경제전망」, 경제연구부문, 2017. 12. 21

따른 자산효과 축소 등 소비개선을 제약하는 부정요소가 시장에 잔존할 것으로 예상됨(현대경제연구원, 2017)²²⁾

- 결과적으로 저(低)성장 기조에도 불구하고 뚜렷해지는 소비활력, 최저임금 상승 등 가계의 실질구매력 및 실질국민소득 증가율이 관광소비 개선과 관광산업 성장의 기대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일자리 부족현장, 청년실업률 증가에 의한 관광 고용시장 중요성 확대

- 국내 청년 고용률 및 실업률(15세~29세) 조사에 의하면, 2017년 고용률은 42.1%로 전년 대비(2016년 41.7%) 약 0.4%p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9.8%로 2016년(9.8%)과 상동(上同)할 것으로 전망됨(통계청, 2017)²³⁾
- 월별청년고용동향(통계청, 2018)²⁴⁾ 추이 분석 결과, 2018년 1월 실업률(8.7%)은 전월(2017년 12월) 대비(9.2%) 약 0.5%p 감소하였으나, 2017년 05월~2018년 1월까지 지속적으로 9~10% 대의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일자리 창출 등 국가정책의 영향으로 고용부문의 개선이 이루어짐에 따라 청년층(15세~29세)의 구직활동이 확대되고 있으며, 청년고용률은 2014년 40.7% 수준에서 41.5%(2015년), 42.3%(2016년), 42.5%(2017년) 등 성장세를 보임
 - 한편, 청년실업률은 2018년 1월 기준 8.7%로 전년 동월(8.6%) 대비 약 0.1%p(9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 9.0% 수준에서 9.2%(2015년), 9.8%(2016년), 9.9%(2017년) 등 9~10%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관련하여 통계청(2018)은 일자리 예산의 지속 추진,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창업의 활성화, 고용유인형 제도 개편 등 정부의 구조개선 노력과 함께 적극적 거시정책,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 실업난 해소 노력의 강화가 필요함을 적시함
- 한편, 한국개발연구원(2017)에 의하면, 2017년 국내 생산가능인구(15세~65세)가 감소하고 경제성장률과 고용 간 연계성도 약화되고 있으며,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세는 노동수요 측면에서 2010년을 기준점으로 성장률과 취업자 증감 간 상관계수의 하락으로 성장이 고용을 견인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함
 - 노동공급 측면에서 취업자 증가폭의 감소세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음을 지적함. 취

22) 현대경제연구원(2017), 「2018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2018년 하반기 이후, 저성장 재현 우려」, 경제주평, 773호

23) 통계청(2017),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통계청

24) 통계청(2018), 「청년고용동향」, e-나라지표, www.index.go.kr/potal/mail/EachDtlPageDetail.do?idx_cd=1495

업자 증감은 산업수요의 변화 외에도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음으로 성장과 고용 간의 괴리감이 산업별로 차별적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함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9~10% 수준을 유지하는 청년실업률에 의해 2024년 약 79만 명의 일자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 관광산업의 고용확대를 통해 미래 일자리 창출 및 실업률 완화에 기여할 방안 모색이 필요함
 - 2024년 약 474.4만 명으로 예상되는 인력공급과 달리 구인인력수요가 약 395.4만 명에 그칠 것으로 보여 79.3만 명의 일자리 부족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 세계여행관광위원회(WTTC)의 관광종사자 고용비율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약 9.5% 수준(2015년) 관광업계 고용비율은 2025년 10.7%로 약 1.2%p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은 6.4%(2015년)에서 6.9%(2025년)으로 약 0.5%p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4) 환경·생태적 여건의 변화와 전망

■ 세계적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적 대응체계 구축

- 지구온난화가 인류와 자연, 생태계의 심각한 위협요소로 대두됨에 따라 국제사회는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대의적 목표로 국제적 협력을 모색하고 있음
 - 지구환경보호와 생물다양성의 보존을 위한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SPC)'을 위한 범(凡) 세계적 협력체계를 구축·강화하는 추세임(문화체육관광부, 2017)
- 특히, 2015년 세계 195개 참가국의 만장일치로 합의·채택된 新기후체제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은 과거 유럽연합(EU) 등 37개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한 '교토의정서(1997년)'와 달리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 강조 및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
 - 기후변화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을 포함한 개도국 역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파리협약'은 '교토의정서'의 체제를 극복하고 모든 국가가 자발적 기여방안(INDC)에 기초하여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량을 스스로 결정하는 유연한 방식을 적용함

[표 2-3] 교토의정서와 新기후체제의 특징 비교

구분	교토의정서	新기후체제(파리협약)
범위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	감축을 포함한 포괄적 대응 (감축, 적응, 재정지원, 기술이전, 역량강화, 투명성)
감축 대상국가	EU 및 37개 선진국 (미국, 일본, 캐나다, 러시아, 뉴질랜드 제외)	선진국·개도국 모두 포함
감축목표 설정방식	하향식 방법 (Top-Down)	상향식 방법 (Bottom-Up)
적용시기	1차 공약기간 : 2008년~2012년 2차 공약기간 : 2013년~2020년	2020년 이후 발효 예상

자료 : 기후변화홍보포털(2018), www.gihoo.or.kr, 한국환경공단 통합기후변화홍보포털

- 한국은 ‘교토의정서’에 적시된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가에 포함되지 않지만,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2013년 세계 8위 수준(OECD 국가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 1위)으로 제2차 공약기간(2013년~20년) 동안 구속적 형태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는 요구가 예상됨(환경부, 2018)
 - 2015년 6월 30일 한국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의 25.7%는 국내에서 감축하고 11.3%를 국외에서 감축하여 총 37.0%(3억 1,473만 톤)을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확정함
 - 산업 전(全) 분야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책 모색에 따라 2016년 하반기, ‘친환경에 초점을 둔 소비, 투자 촉진을 위한 경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기후 변화위기로 인한 세계적 환경대응 요구에 대응하고 있음(김상태 외, 2016)²⁵⁾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에너지 사용량, 탄소·폐기물 배출량 등 세계적으로 제기되는 환경문제에서 자연·생태자원, 기후 등 자연환경과 밀접한 관계성을 보이고 있는 관광산업은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관광’이라는 목표를 바탕으로 관광산업을 접근할 필요가 제기됨
 - 세계적으로 탄소배출의 약 5%의 비율을 차지하는 ‘관광산업’ 역시 지구온난화 및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의 영향요인으로 지목받고 있으며, UNWTO(유엔세계관광기구)조사 결과, 2015년 에너지소비(154%), 온실가스배출(131%), 물소비량(152%), 고형폐기물(251%) 등 급속한 증가세를 전망함(문화체육관광부, 2017)

25) 김상태·류광훈·전효재·조아라·정광민(2016), 「관광진흥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황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심화·비주기성 재해재난 등에 따른 대응체계 마련

- 2017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제시한 세계 각국의 관광경쟁력 평가²⁶⁾에 의하면, 한국은 136개 평가대상 국가 중 종합 19위로 2015년(29위) 대비 10계단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초미세먼지 농도(130위)'를 비롯하여 '환경규제의 엄격성(47위)', '환경규제의 집행력(51위)' 등 「환경 지속가능성(63위)」 분야 에서 여전히 하위권으로 분류됨
 -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Group 1)로 지정하였으며, 서울시는 2016년 2월 미세먼지를 자연재해로 지정함(환경부, 2016; 김상태 외, 2016)
- 야외 관광활동 제한에 따라 대체 관광활동 공간 및 상품의 구성, 신규 콘텐츠 개발에 대한 시장의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지속가능한 자연생태계의 유지 외에도 국민건강 및 안전 증진, 친환경적 경제체제 확립(김상태 외, 2016)을 위한 관광여건 마련이 요구됨
 - 한국은 기온·해수면 상승, 극한기상 등에 따른 한반도 기후변화에 의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 유해화학물질·초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건강피해 위험도 증가 등 기후변화, 자원사용, 환경보건 문제 악화의 대응목적으로『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0조에 근거,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국제적 합의 이행과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의 촉진을 위한『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함(김상태 외, 2016: 19)
- 한편, 2014년 4월 발생한'세월호', 2015년 6~9월'메르스사태'등 국내·외의 비주기성 재해재난은 내수경제의 침체 원인이자 국민 불안의 영향요소로 단기적 관광산업의 축소를 야기함
 - 세월호 사고 이후, 민간소비증가율은 약 0.4% 증가에 그쳤으며, 국내여행 참가자수는 -35.1%, 메르스 사태로 인한 소비자심리지수 7.0%, 외래관광객 -6.8% 등 비주기성 재해·재난은 관광소비 심리 위축의 영향 요인으로 작용함
 - 9·11테러가 발생한 2001년 미국의 경제산업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일본의 경우, 동일본대지진(2011년 3월) 이후 연간 성장률이 -0.8%를 기록하는 등 세계적으로 재해·재난은 경제위축의 요소로 작용함(연합뉴스, 2014. 04. 27)²⁷⁾

26) 관광경쟁력평가(The Travel & Tourism Competitiveness Report)는 2007년부터 세계 각국의 여행·관광경쟁력을 4대 분야, 14개 항목, 90개 지표를 구분하여 격년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말하며, 90개 지표 중 관광·문화분야 등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직접 지표는 18개이며, 40개(환경, 교통 등 간접분야), 32개(국가경쟁력지수 측정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7. 04. 11)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2)²⁸⁾에 따르면, 대규모 외부충격은 재해발생국 경제상황에 전 세계를 기준으로 평균과 비교하여 동일본대지진의 경우 경제성장률이 약 2% 하락하였으며, 동일본대지진 및 9·11테러의 경우 약 6%의 수출하락세가 발생하는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규모 외부충격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의 정도는 재해특성, 재해 대응방식, 경제적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음
- 따라서 비주기성으로 발생하는 재해·재난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광소비 심리의 위축 요인이며, 이는 중소 관광사업체의 매출 저하 등 관광산업의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바 상시 위기대응을 위한 체계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

27) 연합뉴스(2014), 「〈세월호참사〉소비와 정책의 위축, 한국 경제 흔들리나」, www.yonhapnews.co.kr, 2014.04.27

28) 안지연·이동은·박영준·강은정(2012), 「대규모 외부충격(disaster)이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2절 국가 관광정책분석

1. 국가정책에 관한 고찰²⁹⁾

■ (국가비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 국민 개개인이 국정·정책수립 과정의 전(全) 과정에 참여하여 국정운영을 함께 변화시키며, 공정한 기회와 격차 확대로 인한 사회적 불만과 국민 불안의 극복방안을 제시하고 사회 안정이 국가운영의 핵심가치라는 사실을 반영함
 - ‘국민의 나라’는 국가정책의 수립 및 수혜 대상이 국민임을 뜻하며, 이를 관광환경으로 확대할 경우, 관광으로 인한 외화획득 보다 내국인 관광과 관광복지 및 여가·관광기회의 확대에 그 초점을 두는 것을 의미함
 -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세대의 균형발전을 의미하며 관광으로 확대할 경우, 관광을 통한 사회·문화적 균형, 지역균형 및 지역관광 질적 경쟁력 제고를 위함임

■ (국정목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 시장 만능주의의 확산에 따라 지역·세대 간 불평등과 격차의 확대, 공공성 약화 현상이 초래됨에 따라 정부는 사회·경제 및 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품위 있는 삶을 추구하며 사회 구성원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추구할 것을 목표로 함
 - 국정전략 ‘자유와 창의를 넘치는 문화국가’에 따라 문화·관광은 지식정보사회의 진전에 대응하고 국민의 창의성 발휘에 대해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모색하고자 함

■ (국정전략) 자유와 창의를 넘치는 문화국가

- 현대사회는 국민이 문화·예술 및 관광활동의 생산자이자 동시에 소비자이며 휴식과 여가가 있는 삶이 중요한 삶의 질 지표임에도 한국은 대외적으로 정립된 경제적 지위 대비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국가의 미흡한 지원이 문제임

29)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참고하여 재구성함

- 따라서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와 예술, 국민의 휴식제고를 위한 관광 및 관광진흥을 중요 전략으로 설정하여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스포츠 활동 및 관광복지의 여건 조성'을 통해 문화격차를 해소하고자 함
- 특히,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문화·관광분야의 재정기반 확충, 매개인력 등 일자리 창출·확대를 통해 문화·관광산업 생태계의 공정성 강화를 추진하여 국민의 창의 수준을 제고하고 문화의 부가가치 극대화, 관광의 공익적 가치 실현토록 함



자료 :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참고하여 재구성함

[그림 2-1] 문재인정부 국가 관광정책 방향

- 본 연구는 문재인정부 관광정책 방향에 따라 전라북도 토틸관광의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전라북도 관광산업의 외연 확대를 위한 전략적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로서 관광분야에 부합한 세부과제를 선별하여 분석하고자 함

2. 관광정책에 관한 고찰³⁰⁾

1) 관광정책 핵심기조

-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과 동시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국가비전 및 정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면서 국민 중심 정책추진, 국가의 책임성 강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3대 국정 원리를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광부문에서도 국정방향을 반영한 중·장기적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요구됨

■ 삶의 질 및 일과 여가의 균형

- 현대사회는 사회적 가치가 성장과 소득 중심의 양적 패러다임으로부터 개인의 행복과 현재의 삶을 우선하는 인식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여가활동에 대한 국민의 선호도는 ‘관광활동(38.8%)’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³¹⁾, 결과적으로 관광이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긍정적 영향 요소임이 확인됨
- 이에 따라 ‘저탄소녹색관광’, ‘창조관광’ 등 과거 정부의 정책목표에 대해 차별성을 부여하고 변화하는 국민인식에 부합하기 위해 문화·관광산업을 삶의 질 및 일과 여가의 균형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관광복지’를 핵심기조로 설정함

■ 지역특화관광명소 육성을 통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저(低)출산, 인구 고령화, 1인 가구의 비약적 성장세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전통적 가족개념 및 라이프스타일이 변화함과 동시에 고령화, 지방소멸 등 사회·제도적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관광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수단으로 관광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수도권·제주도에 편중된 외래관광객의 지방 분산화를 위해 지역주도형 관광산업 생태계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관광주체의 역량을 개

30) 국가관광전략회의(2017), 「(관광진흥기본계획) 실효가 있는 삶, 사람이 있는 관광, 관계부처합동, 2017.12.18. 및 문화체육관광부(2018), 「관광진흥기본계획」, http://www.mcst.go.kr/web/s_policy/tour/tourPolicy01.jsp을 참고하여 재구성함

31) 통계청(2015), 「2015년 사회조사결과_복지·사회참여·문화와 여가·소득과 소비·노동」, 통계청 사회통계국

발하여 결과적으로 지역관광발전이 지역사회발전으로 환원되는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고자 함

■ 제4차 산업혁명 대비 관광산업 구조의 미래융합적 고도화 추진

- 관광은 자연자원과 역사·문화자원 및 숙박·교통 등 다분야 융합산업으로써 중앙정부의 유관부처와의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을 수립함에 따라 미래융합형 관광산업의 고도화 전략을 추진하고자 함
-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ICT) 등 기술·환경변화를 바탕으로 스마트산업의 성장에 따라 제4차 산업혁명(Industry 4.0)을 대비하고 융·복합적 신규 업종 및 관광생태계의 등장과 외연확대에 따라 혁신적 관광벤처기업의 육성, 신규 일자리 창출 도모를 위해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의 육성 및 전통적 산업군과의 복합성장을 기대함

2) 관광정책 추진방향

- 정부는 국내 관광환경의 여건과 발전 방향성 및 사회적 인식·가치관 변화를 바탕으로 국민 향유의 문화·여가 정책 일환으로 장기적인 문화비전의 틀 안에서 '사람이 있는 관광정책'을 수립하고자 함
 - 국가 산업·경제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성과 중심의 도구적 수단으로 인식되던 문화·관광의 관점을 국민과 지역주민, 관광객 등 사람 중심의 관광정책으로 전환하여 '선풍이 있는 삶, 사람이 있는 관광'을 추구함
- 이를 위해 국민·지역 중심의 관광정책을 수립하고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여, 관광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고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한 혁신형 관광산업을 육성하고자 소통과 협업을 중시하는 정책추진의 기반을 마련함
 - (국민·지역중심 관광정책) 관광정책을 인바운드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여 '여행의 일상화'를 추진하고 연령·계층 및 지역별 관광기반을 마련토록 함
 - (지역주도형 균형발전) 지역별 매력적 관광지를 발굴·육성하여 국토의 균형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토록 함
 - (관광시장의 체질개선) 양적 성장에 초점을 맞춘 과거 정책과 차별화를 추진하여 외부충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방한 관광시장의 다변화 및 방문지역과 콘텐츠의 다양화·고품격화 등에

따라 한국 관광시장의 질적 성장을 도모토록 함

- (혁신형 관광산업 육성) 국내·외 개별관광객의 이동 편의성을 제고하며, 다양한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新기술 활용 및 타 분야(또는 산업)와 융복합을 통해 관광산업의 외연을 확장하고자 함
- (소통·협업을 통한 정책추진) 중앙주도형(Up-Down) 관광정책에서 탈피하여 민간-부처-지자체 간 협력이 강조된 관광정책 추진체계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하고 실현가능한 정책 마련을 추진토록 함

○ 따라서 정부는 국가 관광진흥의 정책방향을 첫째, 국민들이 한 달에 한 번은 여행을 떠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둘째, 관광객들이 다시 방문하고 싶도록 매력적 콘텐츠와 편의 제공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함



자료 : 국가관광전략회의(2017), 「쉽표가 있는 삶, 사람이 있는 관광」, 관계부처합동, 2017.12.18.

[그림 2-2] 관광진흥기본계획 전략 및 핵심과제

3) 관광정책 추진전략

- 정부는 국가관광전략회의(2017)에서 국가 관광진흥의 비전(Vision)을 ‘쉽표가 있는 삶, 사람이 있는 관광’으로 정하고 전략적이고 지속가능한 관광정책을 수립·집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
 - 국민의 일과 삶의 균형,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여행의 일상화를 추진하고 지역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소수 지역에 한정된 국내·외 관광객의 지방 분산화를 통해 관광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 편중된 방한 관광시장의 다변화를 위해 시장세분화에 따른 맞춤전략을 제공하고 관광상품의 고부가화·고품격화를 통해 외래관광객의 재방문율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여 정책적·제도적 토대 마련에 따라 국내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 유도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미래를 위한 법·제도정비’를 바탕으로 추진전략의 동력을 마련하고 중앙의 관계부처 간 협업과 협력을 통해 가시적 성과 창출에 따른 국민의 체감도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1975년 제정된 『관광진흥법』을 체계적인 개편 없이 지속적으로 개정과 보완의 과정을 거치면서 법체계와 해석 등의 부문에서 혼란을 발생시킴에 따라 정책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법체계의 정비와 관광진흥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함



자료 : 국가관광전략회의(2017), 「쉽표가 있는 삶, 사람이 있는 관광」, 관계부처합동, 2017.12.18.

[그림 2-3] 관광법제 개편방향(안)

- 『관광기본법』에 「진흥조항」을 강화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와 관광진흥기본 계획 수립, 국가관광전략회의 설치 등 총괄적 조문을 확대하고 국민의 관광참여, 국제관광진흥 등 구체적인 진흥 조문을 신설함. 관광산업진흥 기반 조성을 위한 내용 규정에 따라 품질인증제,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한 내용을 확대한 (가칭)관광진흥 기본법으로 확대하여 추진토록 함
 - (관광사업) 관광사업의 업종분류체계를 공급서비스 유형에 따라 규정하여 단순화하며, 업종별 등록과 지정에 관련된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토록 함
 - (관광개발) 관광개발과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분리하여 시·도의 심의기구 및 자원 중간조직을 신설하고 관광(단)지 조성·관리 지침을 마련, 평가제도 도입을 통한 관리기능을 강화하여 관광 개발 절차의 체계화 및 효율화를 강화토록 함
 - (관광숙박) 숙박산업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전체 숙박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통계조사)를 실시하며, 관계부처 협력체계인 ‘관광숙박정책협의회’ 구축 및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가칭)관광숙박진흥법 제정을 추진하여 숙박산업의 진흥과 新산업 트렌드인 공유민박업 도입을 추진토록 함
- 따라서 정부는 관광진흥을 위해 관련된 법제를 개정·신설하여 법·제도를 정비하고 문화·관광을 국가의 新성장동력 및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추진동력을 인식하고 이에 근거한 하위 추진과제를 마련함

가. 여행이 있는 일상

■ 생애주기별·계층별 관광지원

- 생애주기와 계층에 따라 관광의 선호요소 및 제약요소가 상이하게 나타남에 따라 관광향유 주체를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 정책추진은 효율성과 만족도의 저해요인으로 지목됨
- 노약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또는 관광 취약계층의 여행욕구가 증가함에도 이동의 제약과 편의시설 부족 등 관광기반시설이 미비함에 따라 무장애 관광제도 개선을 통한 보편적인 관광향유권을 보장하고자 함

세부 핵심추진과제	
생애주기별 관광지원체계 구축	• (청소년) 교과와 연계한 체험학습 여행코스, 진로체험 연계 프로그램 등 • (청년) 지역의 새로운 관광코스를 발굴하는 '출발 청년원정대' 지원 • (청중장년층)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도입 • (노년층) 여행과 평생교육을 결합한 '실버여행학교' 도입 검토 • (관광교통패스) KTX기반 관광할인혜택이 제공되는 교통패스 도입
취약계층 관광지원	• 열린관광지 및 무장애여행 추천 코스 확대 • 장애인 관광객 실태조사 실시 및 무장애 관광정보 통합제공(web, Mobile)

자료 : 국가관광전략회의(2017), 「관광진흥기본계획」 심표가 있는 삶, 사람이 있는 관광, 관계부처합동, 2017.12.18.

문화체육관광부(2018), 「관광진흥기본계획」, http://www.mcst.go.kr/web/s_policy/tour/tourPolicy01.jsp

■ 휴가 및 국내관광 활성화

- 사회적 욕구를 투영하는 정책 수립 및 기반 조성을 위해 국민여행의 일상화를 추진하고 휴가제도의 활성화, 가족여행의 확대에 따라 국민에게 '휴식이 있는 삶', '일과 여가의 균형'을 제공하고자 함
 - 국내관광 향유 및 욕구의 지속적 증가 추이에도 국민여행 횟수(5.15회/년)는 대만(7.67회/년), 일본(5.40회/년) 등 선진국 대비 다소 미흡한 수준임
- 한편, 국내·외 여행 수요의 증가 추세와 맞물려 각종 사회적·윤리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자연재해를 포함하여 관광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

- 내·외국인 관광객의 불안과 불편사항의 해소를 위해 정부는 관광상품의 선택에서부터 여행과정과 사후평가 등 전(全) 과정에서 관광객의 권리와 안전을 확보·보장하여 관광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함

세부 핵심추진과제	
휴일·휴가제도개선 가족휴가 활성화기반	• 연차휴가 사용 문화 정착 및 대체공휴일 확대방안 검토 • 국민휴양형 펜션단지 조성 검토
국내외 여행자 보호	• 여행사(상품) 정보공개 강화 및 10일 이상 영업정지 여행사 인터넷 공개 • 유원시설 검사 강화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안전관리가이드북 제작 • 여행불편신고센터 및 여행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 • 자연재해, 질병 등 관광 위기유형·상황별 대응매뉴얼

자료 : 국가관광전략회의(2017), 「관광진흥기본계획」 심표가 있는 삶, 사람이 있는 관광, 관계부처합동, 2017.12.18.

문화체육관광부(2018), 「관광진흥기본계획」, http://www.mcst.go.kr/web/s_policy/tour/tourPolicy01.jsp

나. 관광으로 크는 지역

■ 지역관광 역량 및 기반 강화

- 현재, 국내의 중앙·지방정부 및 기초자치단체의 관광정책은 상향식 프로세스(Up-Down)의 중앙 주도 정책추진이 다수이며, 지역관광개발을 위한 조직과 인력의 부족 현상이 두드러짐
 - 정부의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위한 인위적 관광자원개발 사업 또는 선도 지역(지자체)의 성공 사례의 차별화 없는 답습(승계) 형식의 칸막이식 관광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사업 간 연관성의 저하를 초래함
- 국토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관광산업을 접근하여 지역 관광주체의 역량 및 역할을 개발·강화하며, 지역의 관광생태계 발달이 지역사회의 가시적 발전으로 환원되도록 유도하는 정책마련이 시급함
- 지역관광 수요 증가에도 합리적 가격 및 고품질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관광서비스 품질 제고가 요구되며, 관광객의 이동편의성·교통접근성 개선을 통해 일부 지역에 편중된 관광객의 분산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세부 핵심추진과제	
지역주도형 관광산업 생태계 조성	• (주민사업체) 관광두레, 관광형 마을기업 및 농촌·생태관광 주민협약체 등 지역 주민사업체 창업 활성화 추진 - 지역의 민·관·산·학 공동 마케팅 및 한국형 DMO 등 상품개발 지원 • (지역관광 거버넌스) 정부-지자체-민간 간 협치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관광발전 지수를 통해 지자체별 관광역량 평가·환류
지역관광 품질 제고	• (숙박) 공유민박업, '관광숙박진흥법' 제정, 민박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숙박 산업의 통합적 진흥 기반 마련 • (안내) 읽기 쉬운 관광안내체계, 카페·편의점 간이 관광안내소 설치, 숙박·쇼핑 등 관광품질인증제 확대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 (교통) 철도역·관광지·숙소를 연계하는 교통망 구축, 경관도로 심도 조성 등 지역관광 접근성 제고 • (편의) 짐 보관·운송서비스 확산, 외국어 대중교통 예매시스템 구축, 버스터미널·기차역 시설 개선 등 • (상품) 항공-철도-관광연계 상품 및 도보관광 이야기 프로그램 개발 등

자료 : 국가관광전략회의(2017), 「관광진흥기본계획」 심표가 있는 삶, 사람이 있는 관광, 관계부처합동, 2017.12.18.

문화체육관광부(2018), 「관광진흥기본계획」, http://www.mcst.go.kr/web/s_policy/tour/tourPolicy01.jsp

■ 지역 특화 콘텐츠 발굴

- 내국인 관광객 및 외래관광객 대상 국내 관광목적지가 수도권(서울 및 경기도)과 제주도, 강원도 및 충청도 등 일부 지역에 편중됨에 따라 지역 편중현상을 해소하고 지역관광의 횡수, 체류일수 등 관광지수 확대를 위해 매력적이고 특색 있는 관광자원 및 명소를 발굴·개발하여야 함
- 지역의 보유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인문·자연, 역사·문화 등 소재의 융복합을 통해 다양한 관광객 선호와 수요에 부합하는 경쟁력을 갖춘 차별화 콘텐츠를 발굴·육성을 추진하고자 함
 - 관계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을 기반으로 농·산·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산림관광·해양관광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기반 마련을 추진하고자 함

세부 핵심추진과제	
새로운 지역관광자원 발굴 및 육성	• (관광자원개발) 권역(서부내륙권), 지역연계(테마여행 10선), 거점(관광전략 거점도시)별 관광자원 발굴 및 홍보지원 - (문화적 도시재생) 노후 관광시설 재생, 근현대 문화유산 활용 지역역사문화 공간 조성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숨은 관광지) 잘 알려지지 않은 국내 여행지 등 새로운 국내관광 명소 발굴 - 보존 등의 사유로 개방 불가 유적지(창덕궁 인정전, 파주장릉 등), 공공시설, 자연공원 등 특별 개방 및 외래관광객 및 인문학적 관점에서 관광자원의 가치를 발굴하는 프로그램 제작 추진
매력적인 지역관광 콘텐츠 육성	• (문화관광축제) 문화관광축제 선별 및 집중 지원(인력양성, 관광자원 개발 등)을 통해 세계적인 축제 육성 - 예비유망(가칭) 축제 신설, 획일화 문제 해소 및 지역축제 다양성 확보 • (테마 콘텐츠) 공연·문화예술, 전통문화, 등 지역자원 활용 콘텐츠 개발 - 농촌 특화 콘텐츠 개발, 어촌체험마을 역량강화, 산림관광 10대명소 선정 등 농·산·어촌 관광 활성화 - DMZ(한반도생태평화벨트 등), 섬(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섬 선정), 다도해 등 국내 고유 관광자원개발 - 길을 따라 걸으며 자연과 문화를 체험하는 '걷기여행길' 조성 확대

자료 : 국가관광전략회의(2017), 「관광진흥기본계획」 심표가 있는 삶, 사람이 있는 관광, 관계부처합동, 2017.12.18.

문화체육관광부(2018), 「관광진흥기본계획」, http://www.mcst.go.kr/web/s_policy/tour/tourPolicy01.jsp

다. 세계가 찾고 싶은 한국

■ 방한시장 전략적 다변화

○ 한국관광은 지리적 입지 및 정치적 이슈 등 외부 요인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민감하게 반응(2017년 사드(SHADD) 등)함에 따라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구조적 안정화를 추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시장 다변화 전략의 체계화·효율화 마련이 시급함

- 특정 국가의 시장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新 시장전략을 수립하고 관광수입과 기대성장률 등 근거에 기반, 시장그룹별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여 방한 관광객의 출입국 편의를 제고하며 내실화에 따라 양적 성장을 지양하고 질적 성장을 유도하는 한국관광 시장의 경쟁력 고부가화에 집중하고자 함

[표 2-4] 방한시장 전략적 다변화를 위한 시장별 마케팅 전략

시장	특성과 전략	주요국 (예시)
주력시장	- 방한객 총량 및 관광수입 측면에서 안정적이나 지속 관리 필요 - 2선 시장·틈새시장 발굴 등 시장의 확장 추진	중국·일본·미국
도약시장	- 방한객 수는 중규모이나 주력시장 대체 정도의 미래성장 기대 - 한류 등 대표콘텐츠 발굴 및 무슬림 인프라 확충	인나·베트남·대만
신흥시장	- 국제 관광시장(의료관광 등)에서 폭발적 성장 전망 - 출입국 편의제고 등 잠재수요 조기 발굴 추진	인도·몽골 등
고부가가치 시장	- 방한시장 규모 대비 관광수입 측면에서 중요 - 국가별 고부가가치 상품 확충 및 부유층 맞춤형 마케팅	러시아·중동

자료 : 국가관광전략회의(2017), 「관광진흥기본계획」 심표가 있는 삶, 사람이 있는 관광, 관계부처합동, 2017.12.18.

문화체육관광부(2018), 「관광진흥기본계획」, http://www.mcst.go.kr/web/s_policy/tour/tourPolicy01.jsp

- 또한, 세계적으로 관광이 일상화·생활화됨에 따라 단순 지리적·입지적 구분에 따른 시장관리와 마케팅 전략에서 벗어나 상이한 특성을 지닌 국가에 따른 차별적 접근 뿐만 아니라 인접 국가와의 연계를 통해 新시장을 창출하고 분야별 전문성 강화, 국제적 관광 위상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세부 핵심추진과제	
방한시장 관리전략 전환	4대 시장그룹 주요 국가별 맞춤형 마케팅 강화 등 新시장전략 수립 - 비자발급 기준 완화 및 자동출입국심사대 확대와 입국심사 방식 간소화 등
중국시장 질적관리 및 고부가가치	- 한-중 관광교류 재개 및 집중 홍보 통한 시장 안정화 추진 - 방한 중국 단체관광시장 대상 質 관리제도 실시(한-중 공동관리·감독) - 개별여행객 유치 및 고품질 단체상품 개발·지원
동북아 관광활성화로 新시장 창출	- 공동 관광브랜드 및 상품개발 추진, 항공노선 확충 및 항공자유화 추진 등 - 국가 간 관광교류 기반 조성을 통해 전략적 다자 협력 및 한국형 관광개발 협력 모델 추진

자료 : 국가관광전략회의(2017), 「관광진흥기본계획」 심표가 있는 삶, 사람이 있는 관광, 관계부처합동, 2017.12.18.

문화체육관광부(2018), 「관광진흥기본계획」, http://www.mcst.go.kr/web/s_policy/tour/tourPolicy01.jsp

■ 방한시장 고부가화·고품격화

- 한국관광수지(2018)³²⁾에 의하면, 2017년 관광수입액은 \$13,323,700으로 2016년(\$17,199,700) 대비 약 2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래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 여행경비(관광수입)는 \$999로 2014년(\$1,141)부터 지속적 감소 추세를 이어옴
 - 관광수입액은 2013년 \$14,524,800, 2014년 \$17,711,800(전년 대비 성장률 21.9%), 2015년 \$15,091,700(△14.8%), 2016년 \$17,199,700(14.0%), 2017년 \$13,323,700(△22.5%)로 나타났으며, 외래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액은 2013년\$1,193, 2014년 \$1,247, 2015년 \$1,141, 2016년 \$998, 2017년 \$999로 분석됨
- 방한 외래관광객 1인 평균 지출액과 비교할 경우, 의료관광은 약 6배, MICE산업은 약 1.8배 높은 지출수준을 보임에 따라 고부가가치 관광콘텐츠의 집중 육성을 통해 관광산업의 수익성에 대한 제고가 필요한 시점임
- 방한 관광시장의 급격한 양적 성장과 맞물려 경쟁구도가 심화됨에 따라 저가 덩핑 관광상품 등 관광객 만족도 저하 및 시장의 질적 성장력이 제한되면서 정부는 한국 관광시장의 경쟁력 제고 및 내실화를 위해 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높은 '프리미엄 또는 럭셔리 관광' 시장의 저변 확대를 추진하고자 함

세부 핵심추진과제	
고부가 관광산업의 지속 육성	• (한류관광) 한류 연계 관광상품 개발 등 스타 추천 국내 여행지 발굴, 드라마 촬영지 관광프로그램 확대 등 • (MICE)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및 유치분야·시장다변화, 해외마케팅 강화 • (의료·웰니스) 유치채널 다양화를 통해 건강·치유 관련 웰니스 관광으로 확대 추진(웰니스 관광클러스터 등) 및 한국의료 신뢰도 제고 추진 • (크루즈·마리나) 크루즈 시장 다변화 및 마리나 산업 육성기반 조성 등
방한시장의 고품격화	• (프리미엄) 부유층 선호를 반영한 맞춤형 고부가 관광콘텐츠 육성 - 국내외 럭셔리 박람회 개최 및 참가지원을 통한 네트워크 강화 등

자료 : 국가관광전략회의(2017), 「관광진흥기본계획」 심표가 있는 삶, 사람이 있는 관광, 관계부처합동, 2017.12.18.

문화체육관광부(2018), 「관광진흥기본계획」, http://www.mcst.go.kr/web/s_policy/tour/tourPolicy01.jsp

32) 관광지식정보시스템(2018), 「관광객 통계_한국관광수지」, www.tour.go.kr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본 자료는 한국은행 국제수지>서비스수지>여행수지>일반여행수지를 자료의 출처로 밝히고 있음. 본 자료의 주석에 의하면, 1인당 평균 관광수입액은 관광수입/방한 외래관광객 수로 산출됨

라.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 관광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 국내 관광산업은 급격한 기술 진보 및 시장의 외연 확대에 인하여 양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취약한 산업경쟁력, 미흡한 기반투자시설 및 관광사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 관광산업의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 제4차 산업혁명(Industry 4.0)의 등장 및 확산으로 기술환경이 변화하면서 산업 간 융복합과 IT를 활용한 산업의 외연이 확대되고 전통적 관광산업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이에 대응한 기반구축 및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노력이 요구됨
- 현재 국내 관광산업의 기반은 미래를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정책적 지원체계가 미흡하며 타 산업과의 융합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관광 및 연관 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제도³³⁾ 마련이 필요함
-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사업의 성격에 따른 특화지원을 통해 건강한 관광생태계 조성 및 관광산업의 외연 확대에 지속적 노력을 추진하고자 함

세부 핵심추진과제	
혁신적 관광기업의 발굴 및 지원	- 관광벤처보육센터를 통한 관광 중소·벤처기업 인큐베이팅 공간 조성 및 맞춤형 지원(경영·회계·법률·마케팅 등) - 지역 콘텐츠 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환원 유도
일자리·기업자원의 허브 조성	- 정부·관광공사·산업계·학계의 소통 강화, 원스톱 종합상담 창구 구축 - 관광 창업 예비인력, 지역관광인력 양성 및 구인·구직 매칭 활성화
공정한 산업 환경의 기반 조성	관광통역안내사 애로 신고센터 설치 및 표준계약서 제적을 통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 추진
IT기반 관광플랫폼 스마트관광 활성화	- R&D지원, 정부 및 공공기관 보유 관광 관련 정보 제공 - 관광지 중심 무료 공공 와이파이 존 확대 설치 - 두루누리, 스마트투어 가이드 등 모바일 활용 관광안내 서비스 활성화

자료 : 국가관광전략회의(2017), 「관광진흥기본계획」 심표가 있는 삶, 사람이 있는 관광, 관계부처합동, 2017.12.18.

문화체육관광부(2018), 「관광진흥기본계획」, http://www.mcst.go.kr/web/s_policy/tour/tourPolicy01.jsp

33) 문화체육관광부(2018), 「제5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 수립 연구」, 최종보고

■ 관광산업 규제개선 및 성장지원

- 2017년 2월, 국가안보와 관련한 정부의 사드(SHADD) 배치 결정으로 인하여 방한 관광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인 중국관광객이 급감하였으며, 이는 국내 관광시장의 장기 침체로 이어짐
 - 한국은 사드(SHADD)로 인한 한·중 관계의 냉각화 등 지리적·입지적 및 정치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각종 이슈(Issue)에 관광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며, 결과론적으로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에 자생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국내 관광산업의 자생역할을 강화하고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장문제에 정책·제도의 펜스(Fence)기능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ICT기술의 급격한 진보와 각종 과학기술의 발달, 사회적·환경적 변화에 따라 현대의 관광산업은 과거 전통적 모습과 달리 기존 제도권에 편입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업종이 등장하고 있으며, 국가는 新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노력을 기하여야 함

세부 핵심추진과제	
관광산업 조기회복 기업애로 해소	• (세제지원) 관광호텔 부가세 환급기준 완화 • (고용지원) 소수어 관광통역안내사 양성 확대·외국인력 고용특례(고용부) • (관광개발) 관광(단지) 개발방식 다양화,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
신산업 활성화의 규제개선	• 소규모 관광객 이동편의를 위한 승합차 중개·운송서비스 확대(국토부) • 공유민박업 도입 • 지역상생 관광활성화 규제 발굴·개선 추진

자료 : 국가관광전략회의(2017), 「관광진흥기본계획」 심표가 있는 삶, 사람이 있는 관광, 관계부처합동, 2017.12.18.

문화체육관광부(2018), 「관광진흥기본계획」, http://www.mcst.go.kr/web/s_policy/tour/tourPolicy01.jsp

3

장

전라북도 토탈관광 실태 진단

Jeonbuk Institute

제1절 전라북도 토탈관광 현황분석

제2절 전라북도 토탈관광 실태분석

제3장 전라북도 토탈관광 실태 진단

제1절 전라북도 토탈관광 현황분석

1. 토탈관광의 개념

-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토탈관광(Total Tourism)’은 전통문화·농·산어촌·생태자연 등 전라북도가 보유하고 있는 한국적 관광자원과 인적·물적 서비스 간 기능적 연계 및 융·복합을 통해 관광객과 지역민에게 맞춤형 토탈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라북도 14개 시·군 전체를 ‘단일관광지화’하는 정책임



자료 : 전라북도 관광총괄과 내부자료

[그림 3-1] 토탈관광 체계도

- 전라북도는 ‘한 곳 더, 하루 더, 한 번 더 전북을 방문할 수 있도록 통합형 연계관광 기반을 구축하고, 융·복합형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창조형 관광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관광객 및 지역민에게 맞춤형 토탈관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다시, 새롭게 만나는 한국, 전북관광’을 구현하고자 함



자료 : 전라북도 관광총괄과 내부자료

[그림 3-2] 토탈관광 비전 및 목표

- 전라북도 토탈관광 사업은 2015년부터 2024년(10개년)까지 약 17,231억 원이 투입되어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라북도의 단일관광지화’를 위한 관광패스라인 구축 및 맞춤형 토탈관광서비스 기반을 마련함

2. 토탈관광의 전략 및 핵심사업

1) 토탈관광 추진전략

■ 통합형 연계관광 구축

- 전라북도 및 광역지자체 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전라북도민을 포함한 모든 관광객이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선진형 토탈관광 체계’를 구축하고 전북관광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할 뿐만 아니라 산재한 관광지 간 물리적 요소와 기술적 요소 및 인적 자원의 연계 강화를 추진하여 ‘통합형 연계관광’을 실현하고자 함

[표 3-1] (추진전략 1) 통합형 연계관광구축

(단위 : 억 원)

추진과제 소계	핵심과제 7개
관광기반 확충	전라북도 대표관광지 육성
	관광자원 개발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육성
관광네트워크 강화	전북관광패스라인 구축
광역연계관광 활성화	서부내륙권 광역관광 개발
	익산백제고도 르네상스

■ 융복합형 관광자원 개발

- 지역자원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 재해석을 바탕으로 ‘관광자원의 명품화’ 전략을 마련하고 ‘고부가가치 관광상품’으로써 가치제고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며 전라북도가 보유한 가장 한국적인 관광콘텐츠인 ‘음식과 축제 및 공연 외 종교문화, 태권도, 생태자원’ 등 자원 간 융복합을 통해 ‘글로벌 관광상품’으로 육성토록 함

[표 3-2] (추진전략 2) 융복합형 관광자원 개발

(단위 : 억 원)

추진과제 소계	핵심과제 9개
한국적 전통문화 관광콘텐츠 확충	한국적 전통문화 공연 운영
	백제문화 융성 프로젝트
	시군 대표축제 육성지원
	전주세계소리축제 개최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생태관광육성	1시군 1생태관광지 육성·조성
	고창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조성
농촌관광 활성화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
	농촌 테마공원 조성

■ 창조형 관광산업 육성

- 급변하는 경제생태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新성장 관광산업 발굴 및 육성을 바

탕으로 관광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관광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MICE산업, 휴양·힐링관광, 한류관광상품 및 레저스포츠관광 등 유망 관광산업의 차별화에 따라 대내외적 관광수요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자 함

[표 3-3] (추진전략 3) 창조형 관광산업 육성

(단위 : 억 원)

추진과제	핵심과제
소계	9개
MICE산업 집중육성	전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2023 세계챔버리 국내유치 추진
휴양·힐링관광 활성화	자생식물원 조성 외국인환자 유치 마케팅 지원
한류관광상품 육성	영화 영상 제작기지화
레저스포츠관광 육성	해양레저산업 이벤트 개최 새만금 해양레포츠 타운 신축 세계선수권대회 개최 장수 승마힐링센터 조성

■ 맞춤형 토탈관광서비스 제공

- 토탈관광 정책의 원활한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 행·재정적 지원 시스템과 민간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강화하는 한편, 급변하는 관광트렌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국내·외 시장의 확대와 관광수용태세 개선 및 관광홍보 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맞춤형 토탈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표 3-4] (추진전략 4) 맞춤형 토탈관광서비스 제공

(단위 : 억 원)

추진과제	핵심과제
소계	8개
국내외 관광시장 확대	해외관광객 유치(중국,일본) 전북 SIT브랜드상품 마케팅
전북관광 핵심역량 강화	복지관광 활성화 (사랑티켓, 통합문화이용권) 전북문화관광 재단 설립·운영
관광수용태세 개선	한국형 전통숙박시설 조성·지원 (한옥숙박시설 조성 및 개보수, 운영지원) 숙박업소·음식점 개선사업
관광홍보·마케팅 강화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운영 토탈관광 온·오프라인 홍보강화

2) 토탈관광 핵심사업

■ 전북투어패스

○ 사업개요

- 전북투어패스(JB TOUR PASS)는 전라북도 소재 60여곳의 관광지, 버스 및 주차장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형 관광패스'로 1일권·2일권·3일권 및 수요자 맞춤형(30일) 등 한정된 기간에 먹거리(맛집), 잘거리(숙박시설), 놀거리(체험시설)의 할인혜택이 제공되는 '자유관광서비스', '자유교통서비스' 및 '특별할인서비스'가 포함된 관광패스권을 의미함

○ 추진경위

- 전북투어패스 14개 시군 발매 선포식 개최(군산, '17.2.15)
- 자유관광시설 65개소, 특별할인가맹점 1,256개소 확보('17.5)
- 옥션, 쿠팡 등 온라인 마켓 8개소 및 도내 판매소 46개소 운영
- 주요 포털, SNS(페이스북 등) 홍보 및 각종 오프라인 홍보 추진
- 투어패스 가맹점(자유이용시설, 특별가맹점 등) 발굴 및 주기 교육 실시
- 전북투어패스 통합시스템 개발('16.9~'17.4)
 - ❖ 센터장비 H/W 및 가맹점 현장 단말기 개발 설치
 - ❖ 가맹점 관리 및 집계시스템 등 S/W 프로그램 개발
 - ❖ 홈페이지, 모바일 쿠폰, 전용 앱 개발 등

전북투어패스란?

- ✓ 60여 관광지, 버스, 주차장 무료이용
- ✓ 맛집/숙박/체험시설 할인혜택

단 한장의 카드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자유이용권형 관광패스!

권종	가격
한옥마을권	4,200원~
1일권	5,900원~
2일권	12,900원~
3일권	18,500원~

자료 : 전북투어패스, www.jbtourpass.kr

[그림 3-3] 전북투어패스

■ 1시군 1대표관광지

○ 사업개요

- 전라북도 관광객의 단일지역 방문율은 74.2%(전북연구원, 2017)³⁴⁾, 복합지역(2지역 이상) 방문율은 25.8%로 관광지원 간 연계·확산이 주된 화두이며, 시군별 경쟁력을 갖추고 특화된 거점 관광지를 선정하여 육성·활성화를 바탕으로 지역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특히, 시·군 관광명소(핵심거점) 간 연계 시스템 구축을 통해 도탈관광의 기반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단일지역 방문에 한정된 전라북도 관광객의 복합지역으로 유도 및 대표관광지 관광객의 연평균 10% 증대를 목표로 설정함

○ 추진경위

- 대표관광지 육성 추진방향 설정(' 14.8.21), 육성 가이드라인 마련·통보(' 14.9.23)
- 14개 대표관광지 선정(' 14.11.25), 사업추진 가이드라인 마련·통보(' 14.12.30)
- 2015년도 대표관광지 육성 추진계획 통보(' 15.2.13)
- 시·군별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마련·통보(' 15.2.25)
- 관광자원개발 관련 시·군공무원 워크숍 개최(' 15.2.26)
- 시군별 현장점검(' 15.3.16~24),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자문회의(' 15.4~7)
- 기본계획안 승인 심사기준 마련 및 심사위원 구성(' 15.6.26), 승인 심사(' 15.8.21)
- 지방재정투자심사(도) 완료(' 15.10), 추진실태 및 실적점검 평가(' 16.9)



34) 김형오 외(2017), 「2016 전라북도 관광객 실태조사」, 전북연구원

■ 1시군 1생태관광지

○ 사업개요

- 생태관광(Eco-Tourism)은『자연환경보전법』제2조 18항에서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으로 정의함
- 전라북도는 ‘생태자원의 현명한 이용으로 환경·주민·관광객의 행복 증진’의 정책적 비전을 바탕으로 각 생태관광지별로 유형별 특색에 따른 특화·육성을 바탕으로 생태관광지 인근 생태마 을 조성을 통해 체류형 관광객을 유도, 지역 및 가계소득을 창출하고 마을기업과 조합 등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경영조직 체계를 중심으로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대표하는 생태관광지 로 조성하고자 함

○ 추진경위

- 기반마련 : 전북형 사군별 생태관광지 선정 및 조례 제정
 - ❖ 도 가이드라인 마련('15.6),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제정('15.11), 생태관광 육성지원센터 설치('16.2~), 사군 생태관광 MP수립('16.8), 사군 사업 평가지표 마련 및 평가('16. 9~10)
- 중간점검 : 생태관광사업 중간점검을 통한 추진방향 정리('17.4)
 - ❖ 시군별 추진상황, 생태관광 취지 부합성 등을 고려하고, 성공모델 조기 가시화 위해 3개 유형별 구분 관리와 세부사업 조정
 - ❖ 조정보완지역(6개시군)에 대한 1차 집중토론 추진('17.6~7)
- 주민주도 생태관광 활성화 : 주민역량강화 및 생태자원 조사
 - ❖ 생태마을 해설사(एको매니저)양성교육('17.5), 주민교육('17.6~)
 - ❖ 생태관광지 내 마을 및 생물자원조사('17.6~)

전국 최초로 시군별 생태관광지 12개소 선정지 ('15~ '24, 1,022억원/12개시군)

군항 청암산 에코라운드 | 덕안금와 서동 생태공원 | 정읍 솔터 달빛 생태소 |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김제 벽골제 생태동경원 | 진안 경진성그늘이 에코빌 | 완주 지오파크 | 무안 구정동 33경과 자연생태원
 장수 금강옛물 뜰농장 | 진흥 생수왕의 숲 | 완진 침진강 강군목 생태관광지 | 고창 은곡람사르습지

▶ 주민교육, 해설사 양성 등 주민과 협력, 생태관광 활성화 추진
 ※ ('16년 관광객) '15년과 비교시 장수 뜰농장 47% 증가, 고창 은곡습지 14% 증가

국가산림문화자산 전국 최다 보유(전국 38개 중 10개소)
 ※ 진안 데미샘, 장수 뜰농장, 부안 서림공원, 완주 위봉폭포, 남원 구룡폭포 등

전북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 인증 ('17.9월, 520.30m²)
 ※ 지질명소(12개소) : 적벽강, 채석강, 은곡습지, 고창갯벌, 명사십리, 직소폭포, 모항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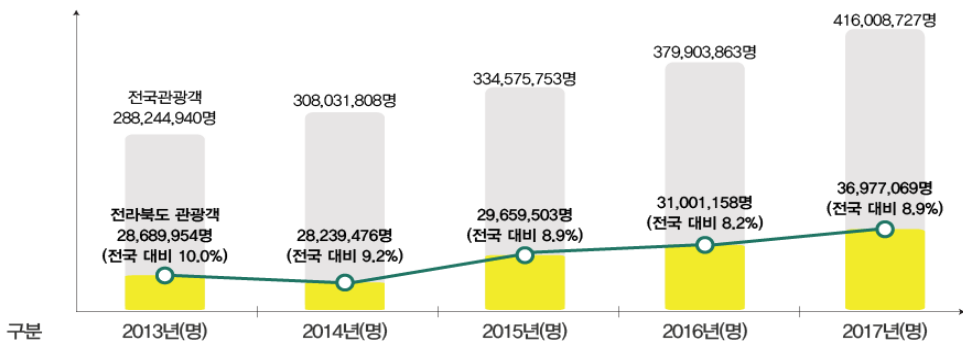


제2절 전라북도 토탈관광 실태분석

- 본 연구는 국가 관광정책을 검토하고 전라북도 관광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추진과제를 발굴하여 향후 토탈관광이 전라북도의 단일관광지화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하고 실천 가능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추진과제 발굴에 앞서 명확한 전북관광 브랜드 정립을 위해 국가승인 통계자료인 문화체육관광부의「주요관광지 입장객 통계」를 활용하여 5개년의 전북 관광객 수의 추이를 분석하고 「국민여행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전라북도 관광의 이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1. 전라북도 관광현황

- 문화체육관광부(2018)에 의하면, 2017년 전라북도 총 관광객 수는 36,977,069명으로 전국(416,008,727명) 대비 약 8.9%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2017년까지 5개년 간 약 5.9% 연평균 증가율을 나타냄
 -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전국 관광객은 약 8.7%의 연평균 증가세를 보였으며, '대구광역시(31.5%)'의 증가율이 가장 많고, 그 외 '울산광역시(24.5%)', '부산광역시(24.0%)', '충청북도(19.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5개년 연평균 증가율의 감소세를 보인 곳은 '서울특별시(△4.6%)', '제주도(△0.5%)' 등 2개 지역에 국한되는 것으로 분석됨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주요관광지점 입장객통계」, 관광자식정보시스템을 참고하여 재구성함

[그림 3-4] 전라북도 관광객 현황

- 전라북도의 경우, 2014년 관광객은 전년(2013년) 대비 1.6% 감소하였으나, 2015년은 전년(2014년) 대비 4.8%, 2016년은 전년(2015년) 대비 4.3%, 2017년은 전년(2016년) 대비 16.2% 증가하는 등 2014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증가 추이를 보임
- 한편, 주요관광지점 입장객통계(2018) 자료에 의하면, 2017년 전라북도 관광객(36,977,069명)은 경기도(76,433,499명), 전라남도(50,791,613명), 경상북도(47,450,271명), 강원도(41,054,763명) 및 경상남도(38,358,535명)에 이어 전국에서 6번째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한 것으로 나타남

[표 3-5] 전라북도 관광객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증가율
합계	288,244,940	308,031,808	334,575,753	379,903,863	416,008,727	8.7%
서울특별시	16,847,629	17,830,075	16,082,498	18,216,572	14,606,081	△4.6%
부산광역시	592,742	7,100,927	5,444,062	7,768,186	8,159,615	24.0%
대구광역시	1,703,284	6,047,800	6,567,614	11,012,903	11,679,988	31.5%
인천광역시	3,048,823	2,798,571	2,885,060	4,766,690	6,485,610	15.0%
광주광역시	2,116,901	1,892,082	5,188,067	6,662,847	6,727,894	18.7%
대전광역시	4,864,950	4,936,965	4,800,704	4,874,373	7,149,187	8.0%
울산광역시	1,494,143	1,548,055	1,820,538	2,600,968	5,171,954	24.5%
세종특별시	540,260	552,048	585,466	601,280	615,884	3.2%
경기도	55,447,619	59,057,024	63,698,138	73,093,108	76,433,499	7.7%
강원도	32,689,563	37,416,024	34,130,898	39,909,350	41,054,763	5.1%
충청북도	9,570,070	11,508,816	18,281,713	19,413,686	23,785,413	19.5%
충청남도	11,821,582	17,520,905	18,731,870	22,504,570	24,175,857	15.7%
전라북도	28,689,954	28,239,476	29,565,903	31,001,158	36,977,069	5.9%
전라남도	40,678,103	31,962,625	39,688,125	42,785,085	50,791,613	3.8%
경상북도	30,575,934	34,326,279	35,564,675	39,448,777	47,450,271	10.3%
경상남도	30,970,380	28,528,716	34,367,870	37,286,969	38,358,535	4.8%
제주도	16,593,003	16,765,420	17,078,952	17,957,341	16,385,494	△0.5%

각주 :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는 매년 통계지점의 변동이 있어 연평균 증가율을 매년 증가율의 평균으로 계산함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주요관광지점 입장객통계」,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을 참고하여 재구성함

- 2017년 전라북도 외래관광객 수는 382,712명으로 전국(10,172,714명) 대비 약

3.76%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2017년까지 5개년 간 약 28.1% 연평균 증가율(관광지식정보시스템, 2018)을 나타냄

-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전국 외래관광객은 연평균 약 △2.5%의 감소세를 보였으며, '서울(△0.6%)', '부산(△5.1%)', '광주(△3.6%)', '울산(△2.6%)', '세종(△43.1%)', '충북(△22.2%)', '전남(△20.2%)', '경남(△23.2%)', '제주(△13.6%)' 등 9개 시·도에서 외래관광객이 감소세를 나타냄

○ 한편, 전라북도의 경우, 2014년 관광객은 전년(2013년) 대비 30.5% 증가하였으며, 2015년은 전년(2014년) 대비 △10.6%, 2016년은 전년(2015년) 대비 6.4%, 2017년은 전년(2016년) 대비 86.1% 증가세를 보임

○ 또한, 2017년 전국 총 관광객 416,008,727명 대비 외래관광객 10,172,714명은 약 2.45%의 비율을 차지하며, 전라북도의 경우 총 관광객(36,977,069명) 대비 외래관광객 382,712명은 약 1.03%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됨

[표 3-6] 전라북도 외래관광객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증가
합계	12,808,003	14,622,971	11,923,733	15,156,173	10,172,714	△2.5%
서울특별시	3,352,523	3,929,726	3,268,743	4,797,407	2,415,276	△0.6%
부산광역시	47,487	27,456	26,136	44,505	25,128	△5.1%
대구광역시	28,712	79,508	67,230	66,794	48,168	33.2%
인천광역시	74,850	62,005	71,300	164,202	147,887	29.5%
광주광역시	16,739	30,655	36,778	7,904	4,808	△3.6%
대전광역시	1,650	12,181	4,680	3,641	-	113.6%
울산광역시	30,326	26,684	17,320	25,305	22,886	△2.6%
세종특별시	4,990	5,427	3,658	192	89	△43.1%
경기도	3,699,386	4,276,924	3,276,193	3,780,492	3,789,069	2.0%
강원도	901,037	1,372,309	1,235,866	1,705,800	1,404,431	15.7%
충청북도	239,525	151,246	126,251	160,949	59,465	△22.2%
충청남도	79,319	75,562	101,340	117,108	114,669	10.7%
전라북도	165,659	216,231	193,365	205,651	382,712	28.1%
전라남도	296,342	344,151	237,505	191,579	102,583	△20.2%
경상북도	566,606	313,788	560,944	597,636	579,339	9.4%
경상남도	326,442	145,278	99,355	146,395	69,027	△23.2%
제주도	2,976,410	3,553,840	2,597,069	3,140,613	1,007,177	△13.6%

각주 :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는 매년 통계지점의 변동이 있어 연평균 증가율을 매년 증가율의 평균으로 계산함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주요관광지점 입장객통계」,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을 참고하여 재구성함

- 한편, 국민여행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연차별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전라북도 국내관광객(문화체육관광부, 2017)은 총 7,711,027명으로 전년(6,760,830명) 대비 약 12.3%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숙박관광객은 4,332,888명, 당일관광객은 4,494,063명으로 나타남
- 연차별 국민여행실태조사의 '지역별 국내관광객 수'는 1회 여행 시 다수의 시·도를 동시에 방문할 경우가 존재함으로 각 시도별 여행 참가자 수의 총량과 전체의 값은 상이함

[표 3-7] 전라북도 국내관광객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국내	숙박	당일	국내	숙박	당일	국내	숙박	당일
합계	38,069,002	32,149,761	30,773,487	38,307,303	32,084,253	30,202,196	39,293,235	32,372,366	30,540,219
서울	12,688,366	4,572,543	9,697,432	12,451,891	4,492,318	9,328,855	13,237,854	4,641,069	10,305,213
부산	6,742,578	3,568,553	3,926,466	7,158,553	4,211,520	3,504,804	7,414,157	4,331,155	3,728,781
대구	3,640,036	1,328,160	2,499,682	3,163,161	1,233,127	2,328,194	3,137,687	1,416,299	2,172,210
인천	4,510,913	1,805,470	2,969,799	4,407,063	2,011,756	2,925,715	5,420,706	2,440,123	3,557,231
광주	2,277,996	1,252,203	1,376,810	2,135,332	1,187,512	1,073,057	2,401,244	1,136,145	1,485,081
대전	3,209,249	1,342,206	2,148,187	2,984,929	1,161,267	2,158,204	3,497,887	1,290,879	2,651,532
울산	1,854,434	706,391	1,215,709	1,632,410	796,863	1,037,484	2,043,956	826,464	1,452,337
세종	383,996	63,483	340,554	333,329	144,080	195,596	740,710	208,747	597,290
경기	15,452,708	8,066,410	11,020,225	15,451,755	8,464,676	10,861,561	16,826,706	9,059,845	11,826,371
강원	12,399,283	10,088,788	3,788,466	11,559,005	9,404,357	3,452,943	11,683,223	9,504,334	3,623,360
충북	5,290,788	3,081,615	2,896,211	5,141,110	2,792,120	3,008,743	5,579,188	3,051,328	3,159,722
충남	10,042,385	5,715,730	5,983,831	9,944,616	6,190,490	5,550,163	10,192,432	5,692,152	6,193,461
전북	8,062,002	4,827,083	4,391,217	6,760,830	4,056,877	3,722,697	7,711,027	4,332,888	4,494,063
전남	7,479,779	4,920,831	3,907,246	8,063,538	5,386,592	3,908,074	9,080,116	5,660,052	4,914,322
경북	9,764,234	6,086,661	5,497,674	8,822,201	5,442,054	5,143,400	8,659,836	5,282,158	4,811,237
경남	9,941,580	6,355,206	5,553,374	8,479,567	5,489,001	4,570,457	9,482,359	5,954,701	5,113,473
제주	3,728,172	3,479,825	273,513	4,732,494	4,478,864	279,216	4,829,952	4,377,579	539,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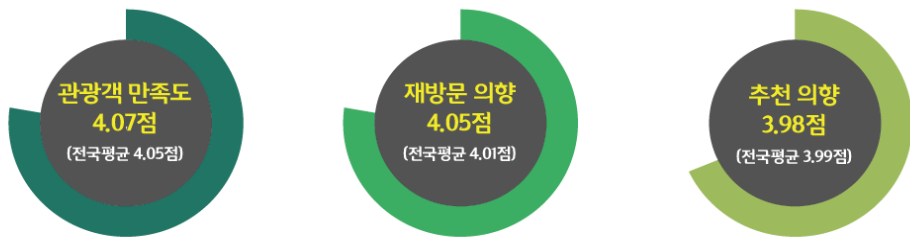
각주 : 1회 여행 시 여러 시·도를 방문할 수 있으므로 각 시도별 여행 참가자수의 합과 전체값은 상이함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5, 2016, 2017), 「(연도별)국민여행실태조사」를 참고하여 재구성함

2. 전라북도 관광실태

1) 국민여행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2017)에 따르면, 2016년 전라북도는 ‘관광객 만족도’가 4.07점 (5.0점 만점)으로 전국평균(4.05점) 대비 약 0.02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행·관광산업에서 중요척도로 분류되는 ‘재방문 의향(4.05점)’과 ‘추천의향(3.98 점)’ 등 모든 항목에서 전국 평균 대비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국관광목적지’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6년 기준, 국민여행실태조사」를 참고하여 재구성함

[그림 3-5] 전라북도 관광객 만족도

(단위: 점/50점 만점)

구분	전체만족도	재방문 의향	추천 의향	자연경관만족도	문화유산만족도	교통시설만족도	숙박시설만족도	관광안내만족도	편의시설만족도	체험프로그램만족도
전체평균	4.05	4.01	3.99	4.12	3.99	3.97	3.96	3.92	3.94	3.91
서울특별시	4.11	4.10	4.09	3.95	3.95	4.13	3.93	4.03	4.09	4.11
부산광역시	4.07	4.06	4.02	4.14	3.95	3.94	3.97	3.95	3.94	3.81
대구광역시	3.75	3.77	3.68	3.91	3.93	3.78	4.27	3.63	3.79	3.48
인천광역시	3.98	3.93	3.93	4.04	3.91	3.90	3.92	3.83	3.83	3.75
광주광역시	4.07	4.04	4.00	4.12	4.21	4.05	3.68	4.08	4.00	3.72
대전광역시	3.88	3.91	3.89	3.93	3.88	4.01	3.77	3.92	3.94	4.10
울산광역시	3.99	3.89	3.92	3.96	3.78	3.93	3.94	3.78	3.89	3.91
세종특별시	3.76	3.76	3.76	3.68	3.58	4.00	-	3.73	3.87	4.00
경기도	3.98	3.92	3.92	4.05	3.88	3.93	3.88	3.82	3.87	3.87
강원도	4.15	4.11	4.05	4.23	4.01	3.89	3.93	3.90	3.91	3.90
충청북도	3.95	3.85	3.85	4.19	4.08	3.91	3.79	3.93	3.97	3.91
충청남도	3.97	3.92	3.93	3.99	3.98	3.94	3.84	3.86	3.82	3.85
전라북도	4.07	4.05	3.98	4.20	4.08	4.04	4.03	4.01	4.01	4.00
전라남도	4.16	4.08	4.09	4.25	4.08	4.07	4.07	4.04	4.07	3.96
경상북도	3.93	3.90	3.87	4.10	4.02	3.88	3.92	3.83	3.87	3.77
경상남도	4.01	3.98	3.99	4.13	3.97	3.95	3.98	3.94	3.94	3.91
제주도	4.36	4.33	4.29	4.53	4.22	4.10	4.17	4.06	4.12	4.07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6년 기준, 국민여행실태조사」를 참고하여 재구성함

[그림 3-6] 전라북도 관광객 부문별 만족도

2) 전라북도 관광객 실태조사

- 전라북도의 명확한 관광실태를 파악하고 급변하는 관광행태를 이해하기 위해 전북 연구원은 3년 주기로 「전라북도 관광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관광객의 관광욕구·수요 등을 선제적으로 이해하여 관광시장 환경변화에 탄력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토탈관광’ 성과를 가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13년과 2016년 시행된 「전라북도 관광객 실태조사」의 결과를 상호 비교하고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토탈관광의 방향성에 대한 관광객 행태에 대한 이해를 선행하고자 함

[표 3-8] 전라북도 관광객 실태조사 개요

년도	구분	내용
2013년	조사대상	• 전라북도 관광지를 방문한 만 15세 이상 방문객
	표본설계	• 전체표본 할당 : 9,000명(유효표본 : 8,851명) - 14개 시·군(각 150명) 균등 분할하여 분기별 2,250명 할당 - 새만금권을 별도 권역으로 구분하여 분기별 150명 할당
	조사지점	• 각 시군별 주요관광지점 입장객통계(문화체육관광부)에 따라 비례할당
	조사기간	• 1/4분기 : 2013년 01월 25일~02월 07일 • 2/4분기 : 2013년 04월 24일~05월 07일 • 3/4분기 : 2013년 07월 25일~08월 07일 • 4/4분기 : 2013년 11월 08일~11월 21일
2016년	조사대상	• 전라북도 관광지를 방문한 만 15세 이상 관광객
	표본설계	• 전체표본 할당 : 6,160명(유효표본 : 6,162명) - 14개 시·군(각 110명) 균등 분할하여 분기별 1,540명 할당
	조사지점	• 각 시군별 주요관광지점 입장객통계(문화체육관광부)에 따라 비례할당
	조사기간	• 1/4분기 : 2016년 02월 15일~02월 29일 • 2/4분기 : 2016년 04월 25일~05월 09일 • 3/4분기 : 2016년 08월 08일~08월 22일 • 4/4분기 : 2016년 10월 08일~10월 22일

자료 : 전북연구원(2013, 2016), 「전라북도 관광객 실태조사」를 참고하여 재구성함

■ 관광만족도, (2013년) 3.69점에서 (2016년) 3.80점으로 0.11p 소폭 상승

○ 전라북도 관광객의 관광만족도에 대한 비교 결과에 의하면, 2013년 전라북도 ‘관광만족도’는 평균 3.69점(5.0점 만점)이며, 2016년 3.80점으로 0.11p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세부지표에 대한 비교 분석결과, ‘볼거리/즐길거리(0.06p)’, ‘쇼핑시설(0.16p)’, ‘관광안내/정보(0.12p)’, ‘여행지 편의시설(0.09p)’, ‘여행지 청결도(0.25p)’, ‘교통편/접근성(0.25p)’, ‘관광종사자 친절도(0.29p)’ 등 다수의 항목에서 관광객의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여행물가 수준(Δ 0.39p)’, ‘먹거리(Δ 0.02p)’의 항목은 관광객 만족도가 저하된 것으로 나타남

[표 3-9] 전라북도 관광객 실태조사 : 세부항목별 관광만족도

(단위 : 점)

년도	2013년					2016년				
구분	1/4	2/4	3/4	4/4	전체	1/4	2/4	3/4	4/4	전체
전반적 만족도	3.60	3.74	3.74	3.67	3.69	3.67	3.82	3.85	3.88	3.80
볼거리/즐길거리	3.79	3.67	3.79	3.84	3.83	3.83	3.89	3.83	4.02	3.89
먹거리	3.66	3.67	3.63	3.64	3.65	3.56	3.64	3.69	3.66	3.63
숙박시설	3.75	3.25	3.65	3.87	3.76	3.56	3.65	3.68	3.63	3.63
쇼핑시설	3.18	3.25	3.22	3.29	3.23	3.34	3.38	3.41	3.51	3.39
관광안내/정보	3.42	3.49	3.50	3.43	3.46	3.49	3.60	3.59	3.66	3.58
여행지 편의시설	3.51	3.61	3.63	3.65	3.60	3.59	3.74	3.69	3.76	3.69
여행지 청결도	3.47	3.55	3.60	3.53	3.54	3.71	3.83	3.79	3.87	3.79
교통편/접근성	3.59	3.65	3.77	3.60	3.65	3.83	3.90	3.92	3.98	3.90
관광종사자 친절도	3.56	3.76	3.74	3.67	3.48	3.66	3.79	3.83	3.85	3.77
여행물가 수준	3.41	3.54	3.54	3.45	3.68	3.18	3.32	3.34	3.34	3.29

각주 : 2013년과 2016년 실태조사의 항목이 상이한 경우가 있어, 비교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추출하였으며, 항목을 구분하는 명칭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어 이를 2016년 기준으로 통일함

자료 : 전북연구원(2013, 2016), 「전라북도 관광객 실태조사」를 참고하여 재구성함

■ 재방문의향, (2016년) 91.5%, 추천의향 (2016년) 91.8%

- 전라북도 관광객의 재방문의향 및 추천의향 경우, 2016년 관광객 실태조사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재방문의향'은 91.5%, '타인 추천의향'은 91.8%로 관광객의 다수가 전북여행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5점 등간척도로 분석한 2013년 전라북도 관광객 실태조사의 경우, 재방문의향은 3.67점, 타인추천의향은 3.89점으로 5점 만점 기준으로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됨

[표 3-10] 전라북도 관광객 실태조사 : 재방문의향 및 타인 추천의향

(단위 : 점 / %)

년도	2013년(등간척도/점)					2016년(명목척도/%)				
구분	1/4	2/4	3/4	4/4	전체	1/4	2/4	3/4	4/4	전체
재방문의향	3.70	3.71	3.68	3.61	3.67	90.4	91.6	89.0	94.9	91.5
추천의향	3.87	3.96	3.89	3.85	3.89	90.8	92.9	90.5	93.5	91.8

각주 : 2013년과 2016년 실태조사는 사용 척도의 상이함으로 비교가 불가하며, 결과값을 단순 제시하는 것으로 비교 분석을 대체함

자료 : 전북연구원(2013, 2016), 「전라북도 관광객 실태조사」를 참고하여 재구성함

■ 복합목적지 방문비율, (2013년) 19.9%, (2016년) 32.1%로 12.2%p 증가

- 전라북도의 단일관광지화를 위해 관광객의 주요 이동경로를 살펴본 결과, 2013년 2개 시·군 이상을 방문하는 '복합목적지 관광객'은 19.9%이며, 2016년의 경우, 32.1%로 약 12.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3-11] 전라북도 관광객 실태조사 : 단일목적지 및 복합목적지 관광객

(단위 : %)

년도	2013년					2016년				
구분	1/4	2/4	3/4	4/4	전체	1/4	2/4	3/4	4/4	전체
단일목적지 관광객	-	-	-	-	80.1	68.4	74.2	61.2	67.1	67.9
복합목적지 관광객	-	-	-	-	19.9	31.6	25.8	38.8	32.9	32.1

자료 : 전북연구원(2013, 2016), 「전라북도 관광객 실태조사」를 참고하여 재구성함

■ 개선사항, (2013년) 생태자원개발 19.9%, (2016년) 공공/편의시설 개선 22.1%

- 전라북도 관광에 대한 관광객 인식 조사에 의하면, 2103년 기준 '자연·생태관광자원개발(19.9%)'이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되었으며, '관광상품개발(13.0%)', '기념품과 먹거리(11.6%)' 등의 부문에서 관광객의 지적이 나타난 반면, 2016년 자료 기준으로 '공공/편의시설개선(22.1%)'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상품/코스 개발(21.7%)', '휴양/문화시설 개선(15.7%)' 등의 의견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분석됨

[표 3-12] 전라북도 관광객 실태조사 : 전라북도 관광에 대한 개선사항

(단위 : %)

년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2013년	1/4	생태관광자원개발 (18.0)	관광상품개발 (11.9)	기념품·먹거리 (11.8)	종합놀이시설 (11.3)	축제 및 이벤트 (9.3)
	2/4	생태관광자원개발 (21.1)	종합놀이시설 (13.2)	축제 및 이벤트 (11.2)	관광상품개발 (10.5)	전통·역사자원 (9.8)
	3/4	생태관광자원개발 (22.4)	종합놀이시설 (13.5)	기념품·먹거리 (11.0)	관광상품개발 (10.8)	축제 및 이벤트 (10.7)
	4/4	생태관광자원개발 (23.3)	관광상품개발 (16.2)	기념품·먹거리 (11.7)	축제 및 이벤트 (11.0)	전통·역사자원 (8.3)
	전체	생태관광자원개발 (19.9)	관광상품개발 (13.0)	기념품·먹거리 (11.6)	종합놀이시설 (11.0)	축제 및 이벤트 (10.8)
2016년	1/4	상품/코스개발 (22.7)	공공/편의시설 (21.3)	휴양/문화시설 (13.8)	홍보/마케팅강화 (11.5)	축제/이벤트개발 (11.0)
	2/4	공공/편의시설 (22.2)	상품/코스개발 (20.2)	휴양/문화시설 (18.4)	홍보/마케팅강화 (12.6)	숙박시설 (8.8)
	3/4	공공/편의시설 (22.9)	상품/코스개발 (19.4)	휴양/문화시설 (19.2)	홍보/마케팅강화 (11.2)	숙박시설 (10.3)
	4/4	상품/코스개발 (23.8)	공공/편의시설 (21.5)	홍보/마케팅강화 (14.1)	휴양/문화시설 (12.1)	축제/이벤트개발 (9.6)
	전체	공공/편의시설 (22.1)	상품/코스개발 (21.7)	휴양/문화시설 (15.7)	홍보/마케팅강화 (12.2)	숙박시설 (9.3)

자료 : 전북연구원(2013, 2016), 「전라북도 관광객 실태조사」를 참고하여 재구성함

3) 전라북도 여행자·현지인 인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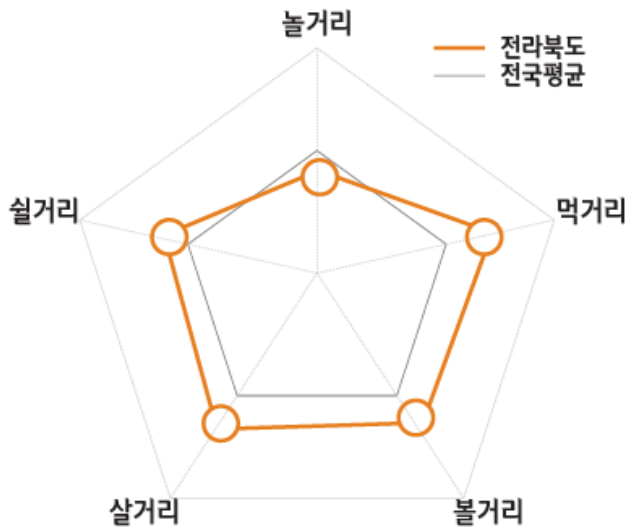
- 세종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와 (주)컨슈머인사이트는 「DMO를 위한 관광산업 개발환경 분석」³⁵⁾을 통해 총 63,949명을 대상으로 여행자와 현지인이 인식하는 전국의 여행·관광에 대해 이미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전라북도의 경우, 여행자 1,886명, 현지인 1,618명 등 총 3,504명을 표본으로 결과를 도출함
- 연구에 의하면, 2017년 국내 여행객의 약 5.3%를 차지하며, ‘종합만족도’, ‘추천의향’, ‘재방문의향’, ‘자원풍족도’ 및 ‘환경쾌적도’ 등 총 5개 항목에서 전국 17개 시·도 대비 중상위권 수준을 보이며, 특히 ‘살거리’와 ‘먹거리’ 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관광객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지역이미지 프로파일 분석 결과, 관광객과 현지인은 전라북도에 대해서 ‘한국적’이고 ‘친절하며’, ‘인심 좋은’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원풍족도는 ‘살거리’와 ‘먹거리’, 환경쾌적도는 ‘교통’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됨



자료 : 세종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주)컨슈머인사이트(2018), 「DMO를 위한 관광산업 개발환경 분석: 6만4천 여행자·현지인의 평가와 추천」를 참고하여 재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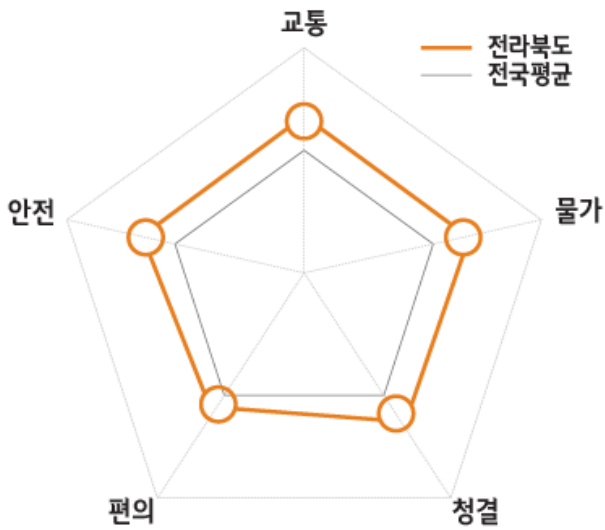
[그림 3-7] 전라북도 추천키워드 및 관광만족도

35) 세종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주)컨슈머인사이트(2018), 「DMO를 위한 관광산업 개발환경 분석: 6만4천 여행자·현지인의 평가와 추천」



	전북	전국1위
놀거리	A	부산광역시
먹거리	S	광주광역시
볼거리	D	제주도
살거리	B	전라남도
쉴거리	C	제주도

자원풍족도



	전북	전국1위
교통	A	광주광역시
물가	B	광주광역시
청결	B	세종특별시
편의	C	세종특별시
안전	B	세종특별시

환경쾌적도

자료 : 세종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주)컨슈머인사이트(2018), 「DMO를 위한 관광산업 개발환경 분석: 6만4천 여
 행자·현지인의 평가와 추천」를 참고하여 재구성함

[그림 3-8] 전라북도 자원풍족도 및 환경쾌적도

4

장

전라북도 토탈관광 향후 방향

Jeonbuk Institute

제1절 국가 관광정책과 전라북도 토탈관광 연계 방향

제2절 국가 관광정책과 전라북도 토탈관광 연계 추진과제

제4장 전라북도 토탈관광 향후 방향

제1절 국가 관광정책과 전라북도 토탈관광 연계 방향

- 본 연구는 전라북도의 14개 시·군의 단일관광목적지화를 위한 전라북도 토탈관광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과 의의가 있음
- 이를 위해 총 5단계의 추진과제 발굴 기준을 바탕으로 향후 전라북도가 추진해야 할 토탈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기 추진 과제의 향후 발전방향 제시 및 신규 과제를 발굴하고 실천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과제 추진을 위해 상위계획인 국가 관광정책과의 연계 방안 검토하고자 함

■ (상위계획 연계) 정부정책과 토탈관광 연계 부합성 고려

- 문재인정부 국가 관광정책 및 전라북도 토탈관광 정책의 정책적 목표, 방향성, 추진전략과 상호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고자 함

■ (실현 가능성) 지자체의 계획 실현성 확보

- 사업기간, 재원투자 등 실현가능성을 갖춘 사업의 육성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전라북도 및 도내 14개 시·군이 실천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추진 계획의 의지를 반영하고자 함

■ (지역관광 활성화) 전북 관광 활성화 유도 및 기여

- 전북관광 발전 및 지역관광 경쟁력 기여도와 합리적인 운영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함으로써 14개 시·군의 추진 지속성이 담보되어 지역균형발전 및 국토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전북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자 함

■ (소프트웨어 중심) 전북 문화·관광 핵심콘텐츠의 발굴 및 상품화 추진

-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을 지양하며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을 검토함으로써 지역의 역사 및 문화자원의 재해석과 재창조를 통해 창의적인 관광상품화가 가능한 사업을 육성하고자 함

■ (일자리 창출) 지역관광 역량강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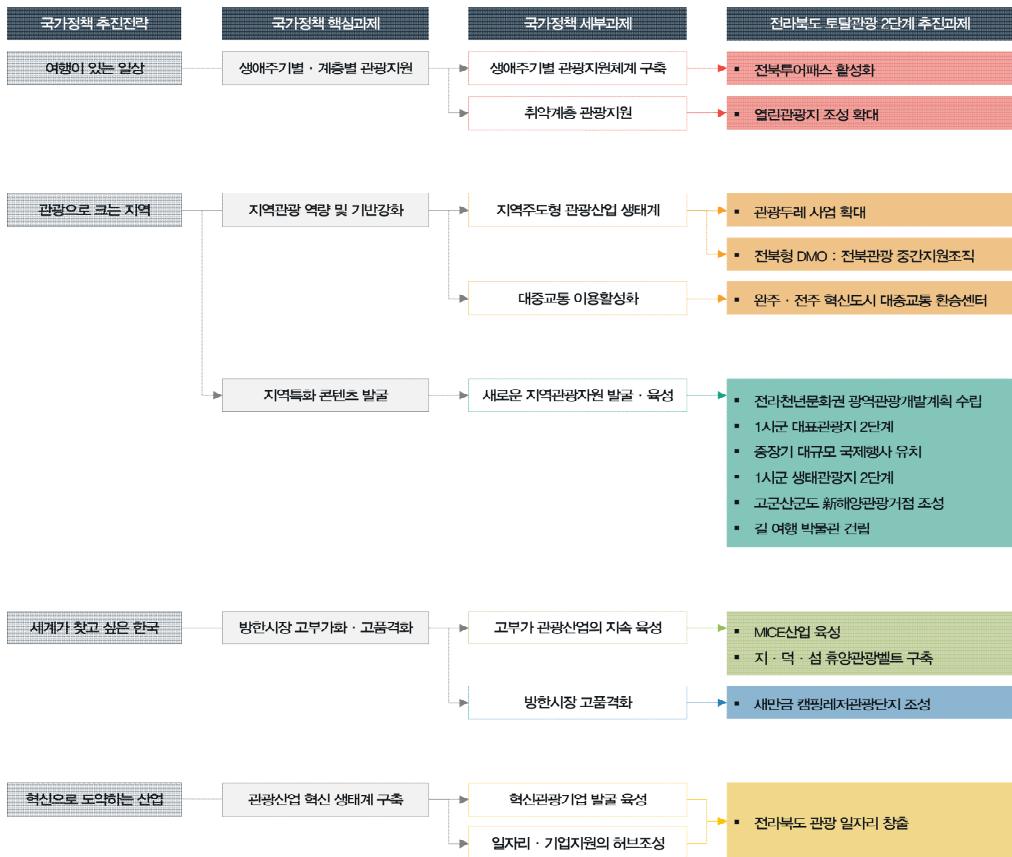
- 전라북도 관광산업 생태계의 영세한 구조로 인해 부가가치 창출의 한계가 상존하므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관광분야 일자리 확대가 가능한 사업을 발굴·육성하고자 함



[그림 4-1] 국가 관광정책과 전라북도 토탈관광 연계 방향

제2절 국가 관광정책과 전라북도 토탈관광 연계 추진과제

- 정부는 ‘쉽표가 있는 삶, 사람이 있는 관광’을 국가 관광정책의 기조로 삼고 국가관광전략회의(2018)에서 관광진흥계획의 4대 추진전략을 ‘여행이 있는 일상’, ‘관광으로 크는 지역’, ‘세계가 찾고 싶은 한국’,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으로 규정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전라북도 토탈관광의 핵심 추진과제의 도출이 요구됨
- 따라서 ‘전라북도 토탈관광 2단계’는 1단계 추진에 따른 결과를 명확히 파악하고 지속가능하고 실천 가능한 정책 추진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가시적인 도약기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의 관광정책과 연계한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그림 4-2] 국가 관광정책과 전라북도 토탈관광 연계 추진과제 도출과정

■ 생애주기별·계층별 관광지원

- 급변하는 사회·생태환경 속에서 현대사회는 과거와 달리 개인의 행복과 현재의 삶을 중시하는 ‘일과 여가의 균형(Work & Life Balance)’을 우선되는 가치로 지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는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문화·관광산업을 국민 행복감 증대라는 실천적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인식하고 ‘생애주기별 관광지원체계’ 및 ‘취약계층 관광지원’ 등을 추진과제로 설정함
-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교과연계 체험학습 코스 발굴, 출발 청년원정대, 관광교통패스, 근로자 휴가지원, 실버여행학교 도입 및 열린관광지 조성 등 연계하여 ‘전북투어패스 활성화’를 추진하고 이와 함께 ‘열린관광지 조성 확대’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여행·관광수요 창출의 기반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지역관광 역량 및 기반강화·지역특화 콘텐츠 발굴

- 정부는 지역균형·국토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문화·관광산업을 접근하여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특히, 수도권 및 제주도 등 특정지역에 국한된 국내·외 관광객의 지방 분산화를 위해 지역 중심의 관광정책 수립을 추진함에 따라 ‘지역관광 역량 및 기반강화’, ‘지역특화 콘텐츠 발굴’을 중점 개발·육성하고자 함
- 따라서 정부 주도의 지역주민사업체 창업 활성화, 한국형 DMO사업, 대중교통 이용활성화(시티투어 픽업존·대중교통 관광지도) 등과 연계하여 ‘관광두레 사업의 확대’를 추진하고 ‘전북형DMO 조직 설립’, ‘완주·전주 대중교통 환승센터 설립’ 등 토탈관광 2단계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방한시장 고부가가치·고품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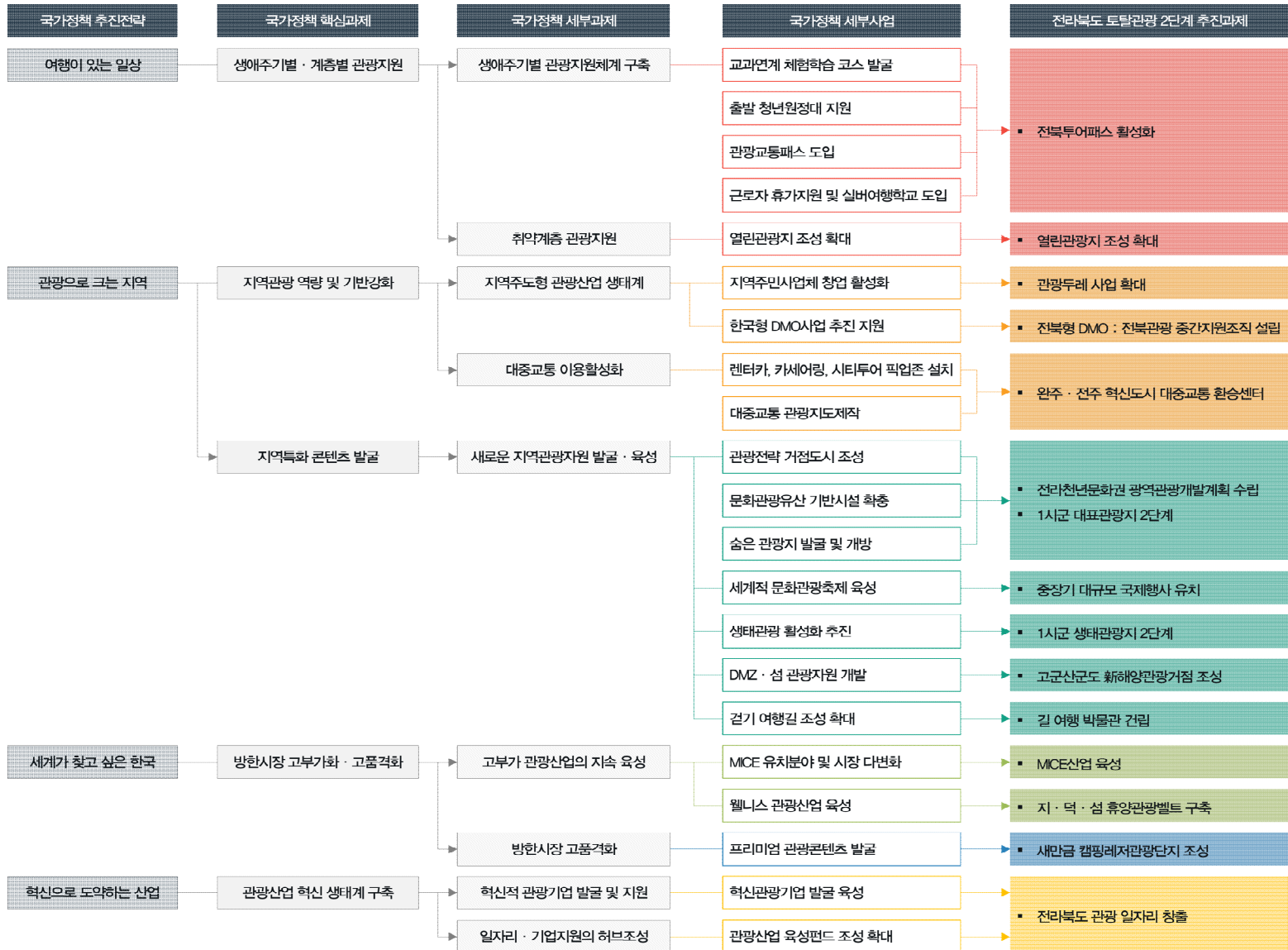
- 국내관광은 지리·입지적 여건 및 환경적 요소 등 대내·외적인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지난 사드(SHADD), 북핵위기 등 정치적 요인이 방한 관광시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함에 따라 정부는 MICE산업, 웰니스(Wellness) 등 고부가가치 관광콘텐츠의

집중 육성을 통해 국내 관광산업의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고부가 관광산업의 지속 육성’, ‘방한시장의 고품격화’를 추진토록 함

- 이에 따라 정부의 MICE유치 분야 및 시장의 다변화, 웰니스 관광산업의 육성, 프리미엄 관광콘텐츠 발굴과 궤를 같이하여 전라북도는 ‘MICE산업 육성’, ‘자·덕·섬 휴양관광벨트 구축’ 및 ‘새만금 캠핑레저관광단지’ 등을 통해 프리미엄 관광상품 발굴에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 관광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 정부는 국정운영의 핵심방향을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로 설정하고 세계경제의 호전 기조 및 선진국 경기회복세 등 긍정적 신호를 보내는 세계경제와 맞물려 국가·가계의 질적·양적 성장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그럼에도 지속되는 저(低)성장 기조에 의하여 국내 청년 고용률 및 실업률은 매년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일자리창출은 국가정책의 영향으로 인한 고용부문의 개선 등 국가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함에 따라 정부는 고용창출효과가 타 산업 대비 높은 관광산업을 바탕으로 ‘혁신적 관광기업 발굴 및 지원’, ‘일자리·기업 지원의 허브조성’ 등 적극적 거시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 따라서 정부의 혁신관광기업 발굴 육성, 관광산업 육성펀드 조성 확대와 연계하여 ‘전라북도 관광일자리 창출 방안’의 전략을 마련하고 산업 간 융·복합, 급변하는 IT 기술의 접목 등 기술·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을 구축하여 관광산업 성장에 따른 사회 환류체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함



[그림 4-3] 국가 관광정책과 전라북도 토탈관광 연계 추진과제 발굴

5

장

전라북도 토탈관광 추진과제

Jeonbuk Institute

제1절 전라북도 토탈관광 추진과제 발굴

제2절 전라북도 토탈관광 추진과제 핵심요약

제5장 전라북도 토탈관광 추진과제

제1절 전라북도 토탈관광 추진과제 발굴

1. 생애주기별·계층별 관광지원

1) 전북투어패스 활성화³⁶⁾

■ 필요성

- 민선 6기 핵심공약사업인 ‘전북투어패스’는 토탈관광 실현을 위해 시·군내 버스, 유료관광지, 유료주차장, 특별할인가맹점(숙박, 음식, 기념품점 등)을 하나의 카드로 자유롭게 여행하는 패스권을 의미함
 - 2017년을 기준으로 전북투어패스 판매점 50개소, 자유이용시설 66개소, 시·군 유료주차장 32개소, 특별가맹점 1,348개소가 연계되었으며, 약 12만 장의 전북투어패스가 판매됨
- ‘전북투어패스’는 출범 이후 전국적 선진 관광모델로 부상하였으며 2017년 14개 시·군으로 전면 확대 운영 및 통합시스템 개발을 추진중임
 - 국민디자인 3.0 특화과제 선정(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5천만 원)
 -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관광 패스사업’ 도입 추진(문체부)
 - ❖ 문화관광산업 경쟁력강화 대책(6.17) 및 경제장관회의(6.28) 소개
 - 전북투어패스 관광형 발매 선포식(2.15, 군산근대역사박물관)
 - 전북투어패스 통합 시스템 개발(단말기 프로그램 개발 및 설치, 전용 앱 및 모바일 쿠폰 등)
- 이에 전북투어패스의 활성화를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 등에 대해서 점검하고 개선 방안 제시를 통해 판매 촉진 및 관광객 이용 편의성 제고가 필요함

36) 전라북도 관광총괄과 내부자료(2018)를 참고하여 재구성함

■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북도 14개 시·군 일원
- 사업기간 : 2014년~계속사업
- 총 사업비 : 37억 원(도비 26, 사군비 11) 2014~2018년까지 예산투입 현황
- 사업내용 : 연구용역, 관광인프라 정비, 상품개발, 이벤트 및 홍보

■ 사업추진

- 전북투어패스 14개 시·군 발매 및 온·오프라인 판매
 - 전북 도내 관광안내소 등 판매처 50개소 및 온라인 마켓 8개소, 전북 홈페이지 동시 판매
 - 출시 초기 판매 붐 조성을 위해 온·오프라인 선판매 추진
-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 강화
 - 온라인 : SNS광고, 포털 키워드, 클릭광고, TV, 라디오, 팟캐스트 등
 - 오프라인 : 버스랩핑, 전광판, 여행잡지, 포스터, 신문, 홍보전단지 배포, KTX객차 모니터, 서울지역 극장, 지하철 광고 등
 - 기타 홍보 : 패스 체험수기 공모전, 발매체험 행사, 초기 할인판매, 팸투어, 유관기관(혁신도시 이전기관, 대기업 등) 방문 홍보 등
- 특별할인가매점 지속적인 발굴
 - 맛집, 숙박, 체험, 공연 등 패스 제휴가매점 발굴 및 인지도 강화
 - 지자체·민간위탁사 합동으로 특별할인가매점 적극 추천 및 발굴
 - 가매점 인센티브(가이드북 및 관광홈페이지에 가매점 홍보)로 가입 유도

■ 개선사항

- 전북투어패스 3개 시·군(전주, 군산, 임실) 이용률 편중 개선이 필요함
 - 전북투어패스를 이용하여 전라북도를 관광하는 관광객의 이동 동선이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사용 실적이 미진함
 - 2017년 10월 기준 전체 이용매수 43,606매 중 전주, 군산, 임실에서 31,477매가 사용되어 투어패스 이용률의 72% 차지함

- 시·군 자유이용시설 추가 발굴 및 14개 시·군 연계 패키지 상품 출시가 필요하며 향후 타깃별 맞춤형 홍보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카드형 전북투어패스는 재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점진적으로 모바일형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함
 - 카드형 전북투어패스의 경우, 카드제작에 따른 장당 단가 비용이 발생하며 특별 가맹점 이용 시에도 별도의 쿠폰을 제시해야하는 등 이용 상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 모바일 형태의 전북투어패스 사용 강화로 비용 절감 및 이용객의 편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한옥마을권 주변 자유이용시설 이용범위 개선 필요
 - 한옥마을권, 1일권이 분리되어 외지 방문 관광객이 한옥마을 경계를 알 수 없는 상황임. 지역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인접 지역 편입을 고려해야함
 - 전주시에서 운영중인 자연생태관과 부채박물관은 한옥마을과의 연계성 및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한옥마을권과 1일권 통합 방안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함
- 기타 이용객 편의를 위한 개선사항
 - 특별가맹점 1,348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직원 재교육이 필요함
 - 외래 관광객이 선호하는 대표 맛집, 숙박업소, 기념품점 등을 발굴하여 특별가맹점으로 등록을 유도해야함

■ 기대효과

- 전라북도 14개 시·군별 숙박, 음식, 쇼핑, 대표관광지 및 대중교통과 상호 연계를 통한 이용객 편의성 향상 및 관광객 만족도를 제고함

2) 열린관광지 조성 확대³⁷⁾

■ 필요성

- ‘열린관광지란 장애인, 노약자 및 영·유아 동반 가족 등 모든 관광객들이 제약 없이 관광 활동을 할 수 있는 무장애(barrier free) 관광지를 의미함(문화체육관광부, 2018)
 - 통계청(2016) 조사에 의하면, 2016년 기준 국가 등록 장애 인구는 약 251만 명이며,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707만 명으로 열린관광지는 급변하는 인구구조 변화와 관광활동 취약계층 증가세에 따라 관광기반시설의 개선을 통해 관광수요 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임
 -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29개소가 선정·지원되었으며, 매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성이 완료된 관광지에 대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접근 편리도 등 대다수의 항목에서 관광지 만족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열린관광지 조성을 국정과제로 지정하고, 열린관광지 공모사업을 통해 매년 2022년까지 100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전라북도의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함
- 전라북도는 ‘고창 선운산도립공원(2016년)’, ‘무주 반디랜드(2018년)’ 등 2개소 선정·지원

[표 5-1] 열린관광지 선정 현황

구분	열린관광지
2015년 (6개소)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경주 보문단지, 용인 한국민속촌, 대구 근대골목,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통영 한려수도 케이블카
2016년 (5개소)	강릉 정동진 모래시계공원, 여수 오동도, 고창 선운산도립공원, 보령 대천해수욕장, 고성 당항포
2017년 (6개소)	정선군 삼타아트마인,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울산 태화강습리대숲, 고령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경기도 세미원, 제주 천지연폭포
2018년 (12개소)	아산 외암마을, 갯골생태공원, 망상해수욕장, 무주 반디랜드, 함양 상림공원, 해운대해수욕장 & 온천,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부여 궁남지, 해양공원(이순신광장, 하멜전시관, 자산공원, 진남관), 영광 백수해안도로, 산청전통한방휴양관광지,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재구성함

37)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18.4.12.)를 참고하여 재구성함

■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북도 관광지 일원
- 사업기간 : 2018년~2022년(5개년)
- 목 표 : 전라북도 관광지 10개소 선정
 - 무장애 관광코스 개발지원, 장애유형별 안내체계정비, 화장실·편의시설 및 경사로 등 관광지 시설 개·보수, 무장애환경 맞춤형 컨설팅 및 관광지 종사자 육성·교육, 온·오프라인 관광지 홍보 등 열린관광지 선정에 따른 지원 항목은 다양함

■ 사업내용

- 장애인 화장실 및 주차장 개선, 편의시설 등 물리적 환경의 개선과 다양한 체험공간 조성을 포함하는 관광서비스 개선, 픽토그램* 활용 시설 종합 축지도 등 정보 접근성 개선을 지원하고 또한 장애인, 노약자 등 관광취약계층의 수요자 모니터링을 통한 맞춤형 개선 컨설팅을 실시해 전 국민의 관광 향유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
 - 픽토그램이란 그림과 전보의 합성어로서 독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인프라, 사물 및 행동 등을 상징적 그림으로 나타낸 일종의 그림문자를 의미함
- 문화체육관광부는 열린관광지와 기존 관광시설 등과의 연계성을 강화함
 - 추천코스 확대 추진(2022년까지 200개), 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숙박, 음식점 등 연간 1,000개), 여행지 연계 나눔여행(연간 600명) 등을 추진 중에 있음
- 사업근거
 - ① 법령상 근거
 - 「관광기본법」제1조(목적), 제13조(국민관광의 발전)
 - 「관광진흥법」제47조의2(관광통계), 제47조의3(장애인 관광활동의 지원), 제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제76조(재정지원), 제80조(권한의 위임·위탁), 「관광진흥개발기금법」제5조(기금의 용도), 「한국관광공사법」제14조(보조금)
-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계획 산출 근거 : 열린관광 환경 조성 : 2,414백만 원
 - 열린관광지 조성 : 2,114백만 원
 - ❖ 시설 개보수 지원 : 1,920백만 원(12개소×160백만 원)

- ❖ 열린관광지 개·보수 컨설팅, 열린관광지 공모 등 : 194백만 원
- 취약계층 관광정보 제공 : 172백만 원
- ❖ 콘텐츠 확충 88, 시스템운영 44, 홍보 40
- 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 및 홍보 : 128백만 원
- ❖ 코스개발 및 보급 28, 시범여행 100

■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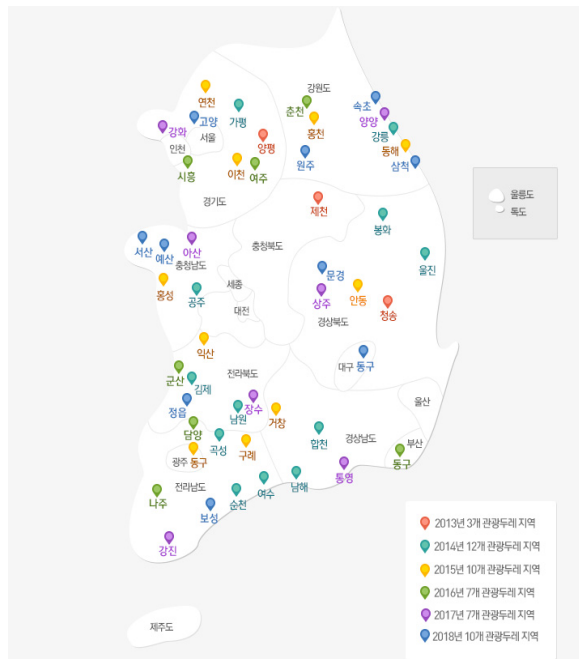
- 국내외 관광객 만족도 제고를 통해 관광수용태세 개선 및 전북관광의 질적 향상에 기여함
- 장애인, 노약자, 영유아 등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으로 선진형 전북 복지관광을 실현함

2. 지역관광 역량 및 기반 강화

1) 관광두레 사업 확대³⁸⁾

■ 필요성

- ‘관광두레’란 지역민이 대상지역의 고유한 특색을 반영 또는 활용한 관광사업체를 창업하여 지역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국가가 사업체 발굴에서 경영환경 개선 까지 밀착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함
- 결과적으로 관광두레는 지역의 관광소비가 지역사회 발전으로 환원되도록 자생적인 관광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사업으로 전국 49개 지역, 160개의 주민사업체 및 약 1,200여명의 지역민이 참여함
 - 전라북도의 경우, 익산시(2015년), 군산시(2016년), 장수군(2017년), 정읍시(2018) 등 4개 시·군이 선정·지원됨



자료 : 한국관광공사. <https://kto.visitkorea.or.kr>

[관광두레 지역 현황]

38)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18.3.12)를 참고하여 재구성함

- 사업시행 6년 차인 관광두레 사업은 주민이 주도하는 관광창업 모델로 지역의 자생적 관광생태계 조성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일자리 확충 및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또한, 2022년까지 정부는 1,125개 이상의 관광두레 사업체를 발굴·육성하고자 정책·제도적 역량을 집중하고 이를 통해 지역민이 자생적·지속성을 지닌 지역 관광산업 생태계의 주체자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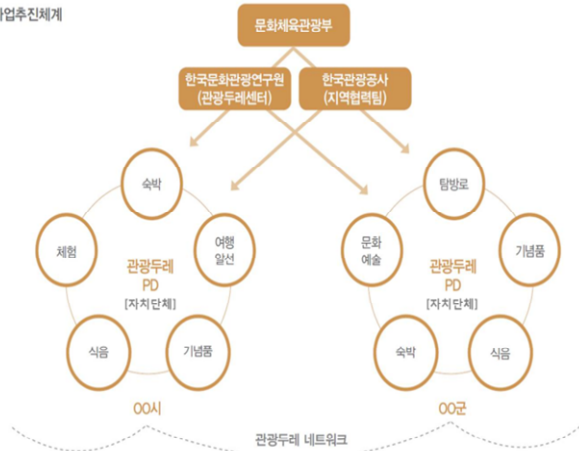
■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북도 일원
- 사업기간 : 2018년~2022년(5개년)
- 목 표 : 전북 14개 시·군(기존 4개 시·군 포함), 주민사업체 100개소 선정

■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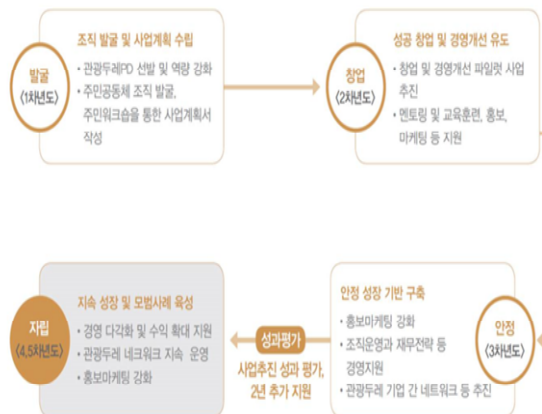
- (사업목적) 관광두레는 지역민이 자발적이고 협력적으로 지역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지역특화 관광사업체를 창업하는 것으로서 과거 중앙정부 중심 하향식 관광자원화와 달리 상향식(Bottom-up) 지원사업으로 대상지역 내 성장잠재력이 높은 관광자원을 개발,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둠
-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관광공사
- (주요내용)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자가 관광두레PD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하고 다양한 지역민 중심 사업체를 발굴·육성하도록 활동비를 포함한 교육과 멘토링, 판로개척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홍보지원을 최대 5년간 지속함
-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도 계획 산출 근거 관광두레 : 6,000백만 원
 - 세부내역 : 관광두레PD 활동지원(2,674), 주민사업체 지원(1,971), 홍보마케팅 및 성과확산(1,235), 모니터링 및 평가(120)

사업추진체계



[사업추진체계]

연차별 사업 추진 목표



[연차별 사업추진 목표]

자료 : <https://tourdure.blog.me/220594347039>

■ 기대효과

- 지역관광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주민이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방식의 지역관광 접근방법으로 자생적 관광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됨

2) 전북형 DMO : 전북관광 중간지원조직 설립³⁹⁾

■ 필요성

- 국가균형발전 비전 및 목표, 실행력 제고 방안의 정책 추진 하에 문화체육관광부 균특화계 내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상당 부분은 지방분권 강화로 인해 배분조정편성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 될 가능성이 높아졌음(김형오, 2018)⁴⁰⁾
 - 국정운영 방향과 부합하여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지방정부로의 이양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정책적 수단과 국기예산 등 관련 부분의 총량이 감축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라는 대의적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역할론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 다만, 현재 지역의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지역관광개발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여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적합한 기관 또는 조직이 부재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이 시급한 실정임
- 따라서 전라북도의 지역관광 및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와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운영을 위한 중간지원 조직 설립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검토와 근거 마련 및 조직 구축이 요구되는 시점임

■ 정부정책 동향⁴¹⁾

- 한국형 DMO 조직의 역할과 기능 정립에 따른 설립은 중앙 또는 초광역권 및 생활권역 기반 기초단위 기준으로 추진하며 지역이 주도하는 관광사업 발굴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해야함
 - (유형) 중앙 및 초광역권 단위는 ‘공설공영형’으로 구분하며 기초단위의 경우 ‘공설민영형’으로 구분하여 추진함
 - (역할) 초광역권 단위는 사업의 조정 및 관리, 정보제공에 따라 지역관광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며, 기초단위의 경우 지역역량개발 및 구축, 코디네이팅 등을 통해 해당 지자체와 연계·협력에 따른 지역주도형 관광사업을 집행하는 역할을 부여함

39) 전북형 DMO : 전북관광지원조직 설립'의 경우, 향후 타당성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40) 김형오·김동영·장세길(2018), 「전라북도 관광체류인구 증대 방안」, 이슈브리핑 171호, 전북연구원

41) 문화체육관광부(2018), 「제5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 수립 연구」를 참고하여 재구성함

[표 5-2] 지역관광 단위별 중간지원조직의 기능과 특징 및 역할

기능	중앙 단위	광역 단위	기초 단위	특징	역할
정보 수·발신	●	⊕		상세·구체적 정보의 지역별 자료취합	중앙부처 관광정책 수집과 전달 및 시군 단위의 의견 청취 후 반영 요구
현지 조사·연구	●	○	⊕	대상지역 특성 반영의 프로젝트 진행	지역특화관광사업 발굴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정책계획 수립	●	○		행정자원의 효율적 지역분배 및 전달	사업계획 수립과 재정지원 외 광역시도별 사업모델 발굴
네트워크	⊕	●	○	시군별 네트워크 연계 체계 구축 및 마련	동종 혹은 이종 관광조직 간 연계체계 구 축 및 교류 촉진, 민간·정부·주민 연계 교 류 활성화(세미나, 지역포럼) 및 정보교류 장소 제공
인재육성	⊕	○	●	공통매뉴얼 마련, 대학 간 연계프로그램 구축에 따른 심층화 및 장기화 체계	매뉴얼과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교육 프로그램 제공(재무, 세무, 경영 및 창업 등), 공무원 교육, 전문가 육성, 관광 사업 관련 지역 설명회 등
상담 및 컨설팅	⊕	○	○	지역형의 관광조직과 기업을 키워낼 수 있는 컨설팅 제공	경영일반/마케팅 등 부문별 상담·컨설팅, 사업지원 컨설팅 등 지원

자료 : 김형자·최자은(2017) 지역 관광자원 개발방향 연구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해외사례 : 일본판 DMO

- 지역 관광마케팅 기관을 의미하는 DMO(Destination Management/Marketing Organization)는 해당사업과 관련 있는 다부처, 지역민 및 민간기관의 상호 유기적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지역관광지 만들기 사업의 마케팅과 관광지의 운영 및 관리를 정부 주도로 추진하도록 함
- 일본판 DMO의 후보가 될 만한 법인을 관광청에 등록하고, 등록 법인 및 이와 연계된 사업을 행하는 관계단체를 정부 다 부처가 연계하여 지원함
- 관광관련 행정은 지자체가 담당하며, 관광상품 개발은 민간업체가 담당하는 형태로

추진함. 특히 행정구역 간 형평성이 아닌 성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음

- 2018년부터는 DMO의 성공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DMO 사업비의 약 50%(총액 약 208억 원)를 지원하며 또한, 2020년까지 전국 100개 조직으로 확대·추진할 예정으로 온천세의 인상, 숙박세 도입 등 세부사업을 바탕으로 자주재원 확보계획을 마련함

○ DMO 지원책

- 정보자원·빅 데이터 활용 촉진 : DMO 클라우드 개발·제공, 관광객 숙박 관련 속성 데이터, GPS 기반 위치 정보 등의 빅데이터를 제공하여 지역 관광관계자가 활용하도록 함
- 인적 지원 : 인재 육성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해외전문가 초빙교육, 전문가 지역매칭을 실시함
- 재정·금융 지원 : 지방창생교부금을 통해 KPI⁴²⁾ 설정과 PDCA 사이클⁴³⁾을 확립하여 조직 설립부터 자율적인 운영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함. 지역 재생법을 개정하고동법에 근거하여 교부금으로 규정하여 안정적·계속적인 운용을 실시함. 민간공동펀드, 관계기관, 광역 DMO 등이 연계·참여하며 규제개혁과 함께 민간에서 1조 엔 규모 지원 사업을 실시함

■ 전라북도 대응⁴⁴⁾

- 전북관광 중간지원조직의 설립이후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수익사업 추진 방안도 같이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유지가 가능하도록 해야함
- (재원) 보조금, 교부금 정부지원비, 소속 사업체 분담금, 수익사업, 펀드 등 자주 재원비율을 유형에 따라 재원 구성
- (수익사업 예시) 관광가이드 및 지도 유료화 등
- (재원확보 예시) 전북 관광활성화 펀드 및 숙박시설 관광세 도입 검토 등
- (주요사업) 지역데이터 수집·분석·제공, 주요 업적 평가지표 PDCA(Key Performance Indicator) 설정, 지역 관광 상품 개발 등 사업추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 공동 홍보 등 추진

42) KPI(key performance indicator) 주요업적평가지표

43) PDCA(plando-check-actcycle) 사이클: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 등의 관리 사무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수법. Plan(계획)-Do(실행)-Check(평가)-Act(개선)의 4단계를 반복(김형오 외, 2018)

44) 문화체육관광부(2018), 「제5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 수립 연구」를 참고하여 재구성함

3) 완주·전주 혁신도시 대중교통 환승센터 신설⁴⁵⁾

■ 필요성

- 전북연구원 「2016 전라북도 관광객 실태조사(2017)」에 따르면⁴⁶⁾, 전라북도 관광객의 주요 이동수단은 자가용으로 전체의 약 80.4%의 비중을 차지하며 그 외 전세/관광버스(9.3%), 고속/시외버스(5.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라북도 방문 관광객들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가용을 활용하고 있으나 대중교통의 꾸준한 서비스 향상에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숫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전라북도가 대중교통을 이용한 관광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조성이 필요함
- 전라북도의 지리적·교통적으로 중심에 있는 완주군 이서면에 환승센터를 건립하여 전라북도의 관광지 접근을 위한 허브로 구축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일원
- 사업기간 : 2019년~2021년(3개년)
- 총 사업비 : 4,000백만 원(국비 1,000, 도비 2,000, 군비 1,000)
 - 구체적인 사업비는 기본계획 수립 후 확정
- 사업주체 : 국토교통부, 전라북도, 완주군

■ 사업내용

- 환승센터 건설
 - 교통수단 간의 연계교통 및 환승활동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환승시설이 상호 연계성을 갖고 한 장소에 집합되어 있는 시설로 완주군 이서 지역에 다양한 대중교통수단(고속버스, 시외버

45) 김형오 외(2017), 「완주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참고하여 재작성함

46) 김형오 외(2017), 「2016 전라북도 관광객 실태조사」, 전북연구원 정책브리프 vol.15

■ 기대효과

- 환승센터조성을 통한 대중교통 관광허브 구축으로 관광객 증대 기대 및 대중교통 간 환승거리 단축을 통해 이용객 편의를 도모함
- 쉼터 시설을 고급화하여 도시미관 향상과 주민 만족도 향상, 전주, 완주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

3. 지역 특화 콘텐츠 발굴

1) 전라천년문화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수립

■ 필요성

- 전라권이 포함되어 있는 광역관광개발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전라도 권역의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후속 계획이 필요함
 - 광역관광권이란 인접한 2개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일한 특성을 가진 자연·문화·역사자원 등이 있어 연계 개발하고 관리하는 것이 자원의 개발·이용·관리 측면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문화체육관광부, 2010)
-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적으로 11개의 광역관광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추진 중임. 2022년 이후, 2개 과제를 제외한 9개의 과제가 종료됨에 따라 광역관광개발계획 부재가 예상됨
 - 추진 중(5개 사업), 계획수립 (1개 사업), 완료 (5개 사업)
 - 완료사업(5개) : 남해안 관광벨트(2000~2009/ 36,257억 원), 경북북부유교문화권(2000~2010/ 15,208억 원), 서해안권(2008~2017/ 25,470억 원), 지리산권(2008~2017/ 2,367억 원), 남해안관광클러스터(2010~2017/ 3,904억 원)

사업명	권역	기간	총사업비(국비)	사업규모	비고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	부산 전남, 경남	2000~09	36,257억 원(4670억 원)	64개	종료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부산 전남, 경남	2010~17	3,904억 원(1,444억 원)	37개	종료
경북 북부 유교문화권	경북 북부 11개시·군	2000~10	15,208억 원(4,175억 원)	186개	종료
지리산권	전북 전남, 경남	2008~17	2,367억 원(1,050억 원)	25개	종료
서해안권	경기 충남, 전북, 전남	2008~17	25,470억 원(2,483억 원)	57개	종료
동해안권	부산 울산 강원 경북	2009~18	2,551억 원(781억 원)	25개	추진
3대 문화권	대구, 경북	2010~21	21,518억 원(12,674억 원)	57개	추진
중부내륙권	강원 충북, 경북	2013~22	3,970억 원(1,594억 원)	38개	추진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인천 경기 강원	2013~22	2,466억 원(1,120억 원)	29개	추진
사부내륙권	세종, 충남, 전북	2017~26	6,167억 원(2,626억 원)	40개	추진
충청유교문화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2018~27	7,947억 원(3,547억 원)	47개	예산 마반영(49억)
전라천년문화권	전북 광주, 전남	2020~29	약 1조 원 이상	40개 이상	기본구상 용역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연차별)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참고하여 재구성함

[전국 광역관광개발 현황]

- 광역관광권의 유형은 거점과 외부지역 간 공간적 기능 설정에 따라 유형이 구분되며 거점연계형, 동일자원형, 초광역형의 세 가지 형태가 존재함(김영준, 2010)⁴⁷⁾
 - 거점연계형 : 관광거점과 주변지역 연계(예: 속초·설악권 등 관광도시)
 - 동일자원형 : 공통의 역사적 배경과 생활권 연동(예: 3대문화권)
 - 초광역형 : 광범위한 지리적 영역 및 기능 연계(예: 서해안 관광벨트 등)
- 본 계획은 ‘동일자원형’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관광경쟁력 제고 및 낙후지역 육성하고자 하는 두 가지 목적에 부합된 지역임
-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전라천년문화권 지자체(전북, 광주, 전남)의 광역관광개발 계획 수립으로 호남권 관광경쟁력 제고 및 관광활성화를 도모함

■ 사업개요

- 위 치 :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일원
 - 광주광역시 5구, 전라북도 14개 시·군, 전라남도 22개 시·군
- 사업기간 : 2019년~2029년(10개년)
- 총 사업비 : 10,000억 원 이상(2019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억 원 요청)
 - 구체적인 사업비는 기본계획 수립 후 확정

■ 사업내용

- 광역관광개발계획의 한계
 - 초기 광역권 관광개발계획은 중앙정부 정책집행을 위한 정부의 수요·판단에 근거, 확정된 공간영역이라는 특성을 부여함
 - ❖ 자원배분을 위한 중앙정부의 행정·정책집행의 공간적 준거 활용 목적
 - ❖ 국가주도 또는 자원성격의 광역권 관광개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던 획일화된 정책 수단
 - 정치·사회적 과정의 산물이 아닌 정책의 핵심 이슈(Issue)로써 지역의 내생적·자율적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변화함

47) 김영준(2010), 「광역권 관광개발사업 평가 기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 과거 하향식(pre-selection) 계획에서 탈피, 공간적 광역성과 동질적 공간 내 기능 간 통합성 전제 필요
- ❖ 지역 내 물리적·인적 및 시스템 자원을 바탕으로 한 상향식(self-selection) 계획으로 지속적 지역관광발전 기제 확보 필요

○ 전라천년문화권 관광개발계획의 국가적 필요성

- 지역발전과 광역권 전략 추진의 동인(動因), 인구변화 및 저성장
 - ❖ 한 사회의 변화를 초래하는 환경변화, 기술진보 및 인구 변천
 - ❖ 총 인구의 감소와 노동력 부족, 고령화 등으로 인한 광역권 정책 마련 필요
- 지역발전의 핵심 단위는 '네트워크의 경제'
 - ❖ 지역 형성 및 발전의 핵심 공간이 지역 내외의 집합체 간 효율적 네트워크 구조로 변화
 - ❖ 국가 단위에서 핵심지역(광역권 등)의 성장이 이끄는 스펀오버(spill-over) 효과로 변화
- 내국적 균형 탈피와 지방분권·자율, 집적과 연계를 통한 혁신
 - ❖ 분절, 단절의 구조에서 상생과 동반의 구조로 변화함에 따라 상호협력의 포용적 발전 추구
 - ❖ 지역통합과 지역의 균형을 위해 통섭적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 도모

○ 전라천년문화권 관광개발계획의 지역적 필요성

- 동일한 역사·문화 정체성 및 고유성
 - ❖ 전라도는 평야와 하천이 발달된 지역이며, 농경문화 중심 의식주, 생활문화, 정신, 종교 및 문화예술 등 문화자원의 고른 분포
- 지역균형, 균형발전 선진 지역
 - ❖ 2022년을 기준으로 국가 추진의 광역관광개발계획은 다수가 종료될 예정
 - ❖ 지역균형발전·국토균형발전 측면 고려
- 광역관광개발계획의 신(新)패러다임 전환 필요
 - ❖ 1.0세대의 광역관광개발계획은 '자연' 중심, 2.0세대 '역사', 3.0세대는 '생활문화 중심', 4.0세대는 '인물', '교류', 즉 '사람' 중심의 계획 수립 필요

○ 전라도 천년 역사의 의미⁴⁸⁾ : 고려 현종 1018년부터 2018까지

- 삼한문화 융합의 땅 : 전라도 땅은 마한, 가야, 백제 문화를 아우르는 문화 융합의 지역임
- 전통문화 창조의 땅 : 농업기반 전라도의 경제환경에 의한 전라문화는 한국문화를 대표함
- 현실변화 개혁의 땅 : 전라도는 개혁의 땅. 새로운 세상을 바라는 백성들의 꿈은 강한 개혁의 의지 표방함

48) 김동영 외(2017), 「전라도 천년 프로젝트 추진방향 및 사업구상(안)」, 전북연구원

- 행복추구 신념의 땅 : 전라도가 종교의 발원지 또는 발원지로 주목받는 이유는 인간의 행복추구가 신념·가치로 인식하던 전라도 사람의 특징에 기반하며 종교적 다양성은 미래를 지향하는 실천적 의지 표현을 의미함
- 행동하는 실천의 땅 : 천년의 전라도 역사는 한반도 역사·문화의 축을 형성하는 혁명적 실천이 내포되어 있으며 특히 근대 이후 동학농민혁명, 광주민주화운동 등으로 의지를 이어옴

○ 전라천년문화권 관광개발계획의 핵심방향(안)



[전라천년문화권 광역관광개발계획 핵심방향(안)]

■ 기대효과

- 전라도 역사·문화·인물 및 관광자원 발굴을 통해 호남권 지역관광 경쟁력 및 지역 브랜드 가치를 제고함
- 능동적·효율적 관광체계 마련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양질의 관광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

2) 1시군 대표관광지 2단계 추진 방향

■ 필요성

- 1시군 대표관광지 사업은 한국 속 한국 전라북도의 단일관광목적지화를 위해 공통적 이미지 및 브랜드 확립을 위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14가지의 매력과 우리나라 최초·최고·최대·최소 등 관광자원의 매력적인 변화를 통한 차별화된 대표관광지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임
- 2015년~2019년 제1차 대표관광지 사업 완료에 따른 제2차 대표관광지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경쟁력 있고, 특화된 관광지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지역관광 경쟁력 강화가 필요함
- 경쟁력 있고 특화된 거점 관광지를 육성하고 인근 관광자원과의 연계·확산으로 대표 관광지의 위상 및 브랜드를 정립하고 및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함



[1시군 대표관광지 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북도 14개 대표관광지 일원

- 사업기간 : 2020년~2024년(5개년)
- 총 사업비 : 총 700억 원(매년 도비 140억 원, 시군별 10억)
 - 평가를 통해 시군별 차등지원 :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적용

■ 추진방향

- 추진 방향
 - 사군 대표관광지 성과를 주변 부거점 지역으로 확산
 - 대표관광지간 연계 관광시스템 구축으로 2단계 토탈관광 완성
- 추진 방침
 - 가장 한국적이며, 전복적인 사군 자원을 대표관광지로 추진
 - 기존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대상지 특성 고려 차별화 관광명소 구축
 - 선택과 집중을 통해 거점관광지로의 육성·개발이 가능한 테마 관광자원 추진
 -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한 자원 추진
 - 시군별 대표관광지가 상호 연계보완되어 체류형 관광 유도
 - 시군별 아이템 중복 지양 및 민선 7기내 성과 도출
- 2단계 추진 시 고려 사항
 - 시설계획의 합리성 : 기존시설 보완, 신규시설 지양
 - 여건분석 : 관광 여건, 제1차 대표관광지 성과 및 개선방안, SWOT 분석 등
 - 기본구상 : 비전 및 목표, 개발 컨셉, 추진전략, 타깃 설정의 적절성 등
 - 컨셉 설정의 독창성 : 지역여건과 부합하는 독창적인 컨셉 설정
 - 사업규모의 적정성 : 수요예측의 적정성, 수요대비 사업규모의 적정성 등
 - 사업내용의 타당성 : 사업추진 방향, 내용의 합리성, 관광객 체류시간 증대 및 4계절 관광지화 방안의 합리성, 인접 관광자원과의 연계성 확보방안
 - 사업추진 효과성 : 관광객 유치효과, 경제적·사회문화 파급효과 등

〈 대표관광지 기본계획 목차(안) 〉

- 과업의 개요 : 배경 및 목적, 범위 및 방향, 수행 체계
- 제2차 00대표관광지 육성 여건 분석 : 지역 여건분석, 제1차 사업성과 및 개선방안, 종합분석 및 과제도출
- 제2차 00대표관광지 육성 기본 구상 :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공간 체계
- 제2차 00대표관광지 관광기본계획 : 대표관광지 사업, 연계·확산 관광지 사업, 국비지원 발굴
- 제2차 00대표관광지 관광진흥계획 : 관광 상품 및 코스 계획, 축제 및 이벤트 계획, 관광홍보 및 마케팅 계획, 관광안내정보체계 구축 계획
- 제2차 00대표관광지 육성사업 계획 : 투자계획, 자원 조달 계획, 관리 운영 계획, 파급효과 분석

○ 1사군 대표관광지 2단계 성공적 추진을 위한 컨설팅(안)

- (목 적) 관광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시군별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적 관광 발전체계가 마련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 (내용) 대표관광지 자문 및 사업의 효율성 확보방안 등
 - ❖ 콘텐츠 개발, 개발방향 설정, 세부계획 수립 자문
 - ❖ 사업 추진방향 검토, 효과분석 및 성과제고를 위한 컨설팅 실시 등

〈 대표관광지 컨설팅 구성(안) 〉

- 컨설팅 구성 : 00명
 - 전문가 : 도내·외 교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전북연구원 등
 - 전문분야 : 관광, 문화, 지역개발, 경영 등
- 주요역할
 - 대표관광지 기본계획 컨설팅
 - 콘텐츠 개발, 개발방향 설정, 세부계획 수립 자문 등
 - 추진방향 검토 및 성과제고를 위한 컨설팅 실시 등

■ 기대효과

- 대표관광지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정된 투자재원을 전략적으로 집중투자함으로써 개발효과 극대화함
- 사군 상호 간 관광자원의 연계성 강화로 다양한 관광수요 창출을 통한 전북 대표관광지 위상을 정립함

3) 중장기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⁴⁹⁾

■ 필요성

- 전라북도는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및 2023 세계잼버리를 성공적으로 유치함에 따라 국제공항, 항만 등 행사 개최에 필요한 인프라 조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2013 세계잼버리 유치 이후, 중장기적으로 전라북도에서 유치할 대규모 행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이에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 대상 선정 기준으로는 전북 도정 핵심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 IOC(국제올림픽위원회)지원 또는 국비지원 근거가 있는 체육행사와 최소 유치비용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행사 우선 검토해야함
 - 신규시설 조성 없이 기존시설 활용하거나 전라북도 인프라 여건에 부합하는 농생명 관련 행사 유치 검토가 필요함

[표 5-3] 전라북도 국제행사 유치 검토대상

신청	국제 스포츠	에너지/관광/농업	박람회
2020년	2024 아시안비치게임 2025 동계아시안게임	2021국제재생에너지기구 총회 2021 여행자가이드 세계연맹 총회 2022 SKAL 아시아총회	
2021년	2025 아시아청소년경기대회 2025 아시아실내무도경기대회	2022 국제식물종자 심포지엄 및 총회	
2022년	2027 하계청소년올림픽		2027 농생명 박람회

자료 : 전라북도 대외협력국 국제협력과(2018) 내부 자료

■ 스포츠분야 국제 행사

- 2024 아시안Beach게임(제9회)
 - 규모/개최주기/주최 : 45개국 2,000여명, 4년,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 기간/예산 : 10일간, 306억 원(2014년 대회 기준)
 - 종목 : 20개 종목 중 17개 종목 이상 개최하며 종목은 OCA집행위 결정

49) 전라북도 대외협력국 국제협력과(2018) 내부 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함

- 특징 : 아시아안치게임을 테스트 이벤트로 개최한 후 월드비치게임 유치 노력. 1회 월드비치 게임은 2019 미국 개최. 2025년(4회) 개최 타당

○ 2025 동계아시안게임(9회)

- 규모/개최주기/주최 : 30개국 2,500여명, 4년, 아시아올림픽위원회(OCA)
- 기간/예산/종목 : 8일간, 200억 원, 8개 종목 54개 세부종목
- 특징 : 한·중·일 유치 경합(일본 4회, 중국 2회, 한국 1회, 카자스탄 1회 개최)

○ 2025 아시아청소년경기대회

- 규모/개최주기/주최 : 9개국 2,364여명, 4년, 아시아올림픽위원회(OCA)
- 기간/예산/종목 : 9일간, 200억 원, 21개 종목
- 특징 : 경쟁국은 인도, 방글라데시, 카자스탄, 캄보디아 그 동안 개최해온 동아시아게임이 2013년 이후 폐지되고 본대회로 흡수

○ 2025 아시아실내무도경기대회

- 규모/개최주기/주최 : 49개국 2,000여명, 4년, 아시아올림픽위원회(OCA)
- 기간/예산/종목 : 11일간, 300억 원, 22개 종목
- 특징 : 2013년부터 아시아실내경기대회와 아시아무도경기대회를 통합 개최

○ 2027 하계청소년 올림픽(제5회)

- 규모/개최주기/주최 : 207개국 4,400여명, 4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 기간/예산/종목 : 13일간, 340억 원, 35개 종목
- 특징 : 올림픽 기간을 피하기 위해 2022년 대회 23년으로 변경 문화 및 교육프로그램과 함께 개최

■ 에너지분야 국제 행사

○ 국제재생에너지 기구(IRENA) 총회

- 개최시기 : 2021년 3월(4일간), 2020년 개최지 결정
- 주최 :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ssociation
- 참가규모 : 130개국 1,000여명
- 사업비 : 약 10억 원(체재, 만찬, 회의자료, 기념품 등)
- 행사내용 : 친환경 대체에너지 풍력 기술 개발 정보공유 및 연구
- 기대효과 : 친환경 새만금개발과 녹색성장 중심의 중앙정책을 연계하는 촉매 역할신재생 에너지

지 분야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 제고 및 관련분야 선점

■ 관광분야 국제 행사

○ 2021 여행자가이드 세계연맹 총회

- 개최시기 : 2021년 9월(4일간), 2020년 개최지 결정
- 주최 : 세계여행자가이드연맹(World Federation of Tourist Guide Associations)
- 참가규모/사업비 : 400여명, 사업비 : 약4억 원(체재, 만찬, 책자, 기념품 등)
- 행사내용 : 관광분야 트렌드 및 여행가이드 교류 활성화
- 기대효과 : 여행자가이드 세계연맹 총회를 통해 전라북도 관광 홍보 효과

○ SKAL 아시아 총회

- 개최시기 : 2022년 5월(5일간), 2020년 개최지 결정
- 주최 : SKAL International(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 관광단체인 국제스콜클럽)
- 참가규모 : 20개국, 500여명
- 사업비 : 약 6억 원(체재, 만찬, 출판인쇄, 홍보, 기념품 등)
- 행사내용 : 개회식, 아시아 총회, 비즈니스 상담 및 교류 등
- 기대효과 : 아시아 지역 관광·여행 관련 조직 대표자들의 모임「SKAL 아시아 총회」개최를 통해 전북관광 활성화

■ 농업분야 국제 행사

○ 국제 농·생명 박람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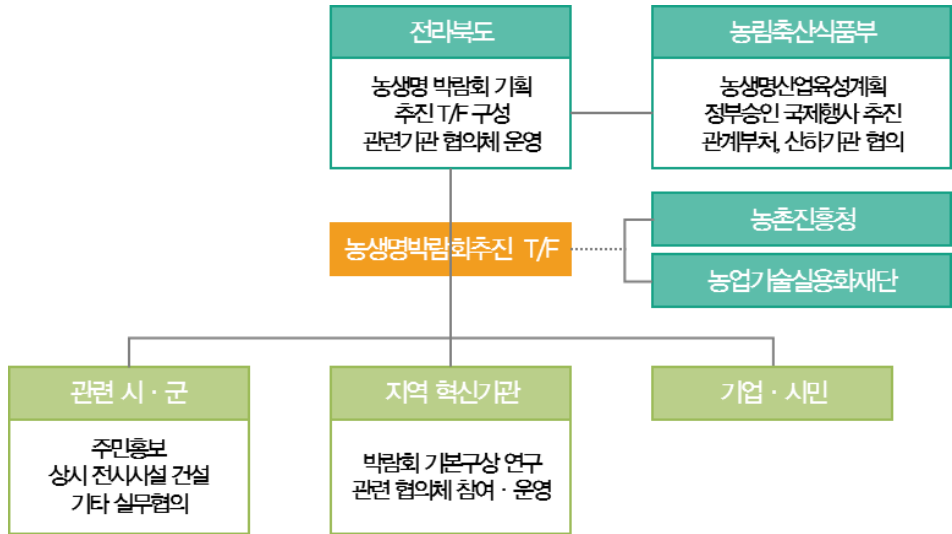
- 필요성 : 과학기술 기반의 농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실시하는 정부정책과 부합하며 농생명 수도로서 전라북도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국제행사 필요
- 위치 : 전북 혁신도시 일원
- 기간 : 2030 국제박람회 공인 박람회(1안), 2027 인정박람회(2안)
- 규모 : 상해/192국 50개 기구 18개 기업관 7,000만 명(외국인 500만 명)
 - ❖ 여수/104개국, 10개 국제기구, 국내 23개 지자체 및 7개 기업 820만 명
- 사업비 : 기재부 국제행사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승인 후 산정
 - ❖ 여수박람회 : 2조1천억 원(시설비 1조 8천억, 행사비 3천억)
 - ❖ 순천만정원박람회 : 2,217억 원(국비 817)

- 박람회 유치 추진 준비 단계

❖ T/F 구성(지역 여론 수렴 및 기초 연구 수행), 농생명 박람회 개최를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

- 국가예산사업으로 박람회를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유사 박람회(전라남도 농업박람회)를 개최하는 지자체가 있는 만큼, 차별화된 농생명박람회의 주제와 개최 논리를 개발하고,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 필요



[국제농생명박람회 추진을 위한 업무 협의 체계(안)]

■ 기대효과

- 박람회 개최에 따른 관광시설 증가로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 전주·완주 혁신도시의 지역 브랜드 가치 및 농생명 수도로서 국제적인 인지도 제고를 기대함

4) 1시군 1생태관광지 추진 방향

■ 필요성

- 생태관광은 자연자원 및 생태자원 또는 경관자원이 우수한 지역의 자연가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해 환경·자연의 중요성을 교육 체험하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모델로 등장하고 있음⁵⁰⁾
- 전라북도는 2015년부터 지역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전국 최초로 시군별 1시군 1생태관광지 12개소를 선정하여 운영 중에 있음
- 생태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생태관광 사업의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의 노하우를 갖추게 되었으며 차별화된 생태관광지 조성을 위해 시군별 평가 추진을 추진하여 우수 시·군에 대한 예산 조기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생태관광지의 전국적 홍보를 위해 ‘생태관광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음
- 그러나 2017년 14개 시·군 생태관광지 사업 실태조사 결과, 생태관광지에 대한 시·군의 이해와 의지 부족, 천편일률적인 기반시설 구축으로 본연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등 문제점이 드러남⁵¹⁾
- 이에 전라북도는 1시군 1생태관광사업 추진상황 중간점검 결과를 토대로 14개 시·군 사업을 ‘성장지원’, ‘조정보완’, ‘취지불합’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전주시와 부안군의 경우 취지불합 자자체로 평가돼 도비지원이 중단됨
- 1시군 1생태관광지 사업은 장기사업으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업별 중장기 계획 수립과 동시에 전라북도 차원의 관리 및 운영 계획 수립이 동반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북도 12개 시·군 일원(전주, 부안 제외)

50) 전라북도 자연생태과 보도자료(2018.10.10.)를 인용함

51) 전북일보 보도자료(2017.7.13.)를 참고하여 재구성함

- 사업기간 : 2015년~2024년(10개년)
- 총 사업비 : 1,022억 원(국비 504, 도비 266, 시·군비 252)
 - 시군별 매년 8억 원 지원 (지특 4, 도비 2, 시군비 2) ※ 2015년 : 도비 1억 원씩 지원
 - 선택과 집중을 위해 시군별 인센티브 지원

■ 사업내용

- 생태관광지 지역 주민의 체계적인 교육 실시
 - 전라북도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에서는 생태관광지역 주민 기본교육 및 해설사 양성교육을 추진 중임
 - 그러나 지역주민의 연령층이 높아 맞춤형 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므로 세대별 특성에 맞는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교육이 필요함
- 생태관광지 간 연계협력 사업 발굴
 - 1시군 1생태관광지는 지질형, 생물군락지형, 경관자연형, 생태관광기반형 등 4가지 서로 다른 유형을 가지고 있음
 - 같은 유형 안에서도 각 지역마다 특성이 상이하므로 상호 간 연계 협력 사업 발굴을 발굴하여 공동 페스티벌 개최, 공동 교육, 노하우 전수 등의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생태관광지 관광 매력성 배가(倍加) 전략 필요
 - 12개 시·군 생태관광지는 역사성과 자연경관,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성 등을 갖추고 있어 관광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관광객 체류시간 연장을 위해 지역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토속 음식 상품화, 생태관광 기념품 등을 개발하여 관광객 만족도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함
- 전라북도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기능과 역할 강화
 - 생태관광지의 성공을 위해 전라북도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기존 3명의 운영인력으로 12개 시·군 관리와 2년간 3억 원 예산으로 사업 추진의 한계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임

■ 기대효과

- 생태자원의 현명한 이용을 통한 생태관광 전국 1번지 전북관광 선점효과

5) 고군산군도 新해양관광거점 조성

■ 필요성

- 군산시 고군산군도는 반경 2km 이내 63개의 섬으로 군도를 이루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문화·역사·인문·해양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2017년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통, 2020년 신항만 및 국제공항 착공 등 국가적으로 新해양관광 거점으로 발전 잠재력이 높은 지역임
- 중국과 최단거리 등 입지적 우위를 활용, 폭발적인 해외관광 증가 등 중국 중심의 세계적인 관광유입의 관문역할 및 해양관광 거점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임
- 고군산군도는 사유지 과다(60%)에 따른 초기 자본금 거대화와 높은 조성원가 등으로 경제성이 낮아 민간사업자 공모 참여 기피로 공공주도 개발이 필요함
- 고군산군도는 문화, 역사, 자연, 해양 자원을 창조적으로 활용한 관광자원화를 통해 지역 경제발전의 견인을 유도하는 해양관광 선진모델 지역으로 육성이 필요함

■ 사업개요

- 위 치 : 군산시 고군산군도 일원
- 사업기간 : 2019년~2023년(5개년)
- 총 사업비 : 1,100억 원(국비 550, 지방비 550)
 - 구체적인 사업비는 기본계획 수립 후 확정

■ 사업내용

- 기본방향
 - 중국 유커 겨냥, 고군산군도를 국가차원 해양관광레저 거점으로 개발
 - 새만금 개발을 이끄는 앵커사업으로 서해안 대표관광지로 고군산군도 개발
 - 고군산군도 중심으로 1시간 권역 내 한류자원과 연계한 한류관광 벨트 구축
- 서공항로 해양문화교류 거점 구축

중국 오피니언 리더 팸투어 등

○ 해양레저 스포츠 복합공간 조성

- 사업개요

- ❖ 새만금 방조제 내측공간의 조성에 비하여 외측공간은 조성이 용이하여 해양관광공간으로 활용이 기대됨
- ❖ 교육과 체험 복합 해양레저 스포츠 공간 조성을 통한 안전하고 즐거운 해양레저 스포츠 공간을 구축함

- 위치/사업기간 : 고군산군도 일원, 2019년~2022년

- 총 사업비 : 300억 원(국비 150, 지방비 150)

- 사업내용 : 바다낚시 문화전시관, 잔교식 바다낚시공원, 해양레저 보트 교육공간, 스킨 스쿠버 교육공간, 탈라스 테라피 휴양시설, 친수시설, 시푸드 레스토랑 등

○ 고군산군도 자연치유벨트 조성

- 사업개요

- ❖ 고군산군도 산림 및 해안길 활용하여 다양한 생활습관성·환경성 질환을 치유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 힐링 트레킹 코스를 개발하여 자연치유벨트를 구축함

- 위치/사업기간 : 고군산군도 일원, 2019년~2022년

- 총 사업비 : 200억 원(국비 100, 지방비 100)

- 사업내용 : 편백나무 치유의 숲·명상의 숲, 산림치유센터 및 산책로, 일광욕장, 전망대, 숲속 통나무 집, 야영장, 야외 쉼터, 안내센터 및 기타 편의시설, 해변·산악 입체형 트레킹코스, 해변데크 L=30km², 산악 L=20km²

■ 기대효과

- 동북아 최고 관광지로 고군산군도를 개발, 국제적 수준의 관광거점으로 특화시켜 지역 관광산업 육성 및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를 기대함
- 서해안 시대를 맞아 동북아의 경제·물류 중심지로 개발하며, 글로벌 해양관광지역으로 성장을 시켜 중국 및 동남아 관광객 유치에 기여함

6) 길 여행 박물관 건립

■ 필요성

- 전국 걷기여행길 실태조사(한국관광공사, 2017)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걷기여행길은 557개길 1,774개 코스 약 17,589km가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음
 - 지자체의 직접수행으로 걷기여행길의 관리 및 운영이 이루어지며, 전국 걷기여행길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자체 직접 수행이 전체 대비 약 90%, 그 외 공공기관 관리·운영 위탁 및 민간기관 등으로 구분됨
- 전라북도는 '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념하여 전북의 자긍심·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생태·역사·문화가 담긴 '전북 1000리길'을 조성 중에 있음
 - '전북 1000리길'은 기 조성된 길 가운데 14개 사군에 해안, 강변, 산들, 호수 테마로한 걷기 좋고 다양한 숨결을 느낄 수 있는 44개 노선(405km)을 조성 중에 있음
 - 세부사업으로 걷기 좋고 스토리가 있는 길 '전북 1000리길' 디자인, GPS정보 기반 통합 안내 지도, 가이드북 제작, 종합 안내지도 등을 제작할 예정임
- 도보 여행객 유치 및 지역 주민 소득 향상을 위해 국내 최초 길에 대한 과거~현재~미래를 학습, 체험, 교육을 할 수 있는 도보길 박물관 건립이 필요함

■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북도 1000리길 일원(타당성 조사 후 후보지 결정)
- 사업기간 : 2019년~2023년(4개년)
- 총 사업비 : 300억 원(국비 150, 지방비 150)
 - 구체적인 사업비는 기본계획 수립 후 확정

■ 사업내용

- 길 역사 전시관 : 옛길 관련 역사 테마관, 옛지도, 옛길, 길 관련 역사, 유물, 유적 등 과거 체험 관련 전시
- 전북 1000리길 여행관 : 전북 1000리길 코스별 안내 전시관, 14개 시·군 44개 노

선별·시기별 관광정보 제공

- 길 실감콘텐츠 체험관 : VR·AR기술을 활용한 코스별 길 걷기 체험
- 자연생태전시관 : 길을 걸으며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생태·자연 체험관
- 야외 길 테마체험관 : 다양한 유형의 길을 축소화하여 직접 걸어 보며 느낄 수 있는 탐방로 체험관
- 콘텐츠 스토리 창작·교육관 : 길 관련 지역이야기 발굴·수집 전문양성 기관
- 힐링 걷기 연구소 : 전국 길 정보 DB구축, 권역별 도보 힐링 프로그램 및 연계 관광 프로그램 연구·개발, 길 문화 발굴, 과학적 도보 효과 검증 등
- 전국 걷기 네트워크 거점센터 운영 : 길 관련 민간단체 활동지원, 전국 길 여행 이 해관계자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등



[전라북도 마실길 조성 현황]



[전라북도 1,000리길 사례]

■ 기대효과

- 급속하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여유와 휴식을 찾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길을 따라 걸으면서 자연과 문화를 체험하는 길 여행 코스를 제공함
- 기존의 관광자원 중심의 점적 개발에서 벗어난 선형적 계획을 통해 도보여행객 증가 및 지역주민 소득 창출에 기여함

4. 방한시장 고부가가치·고품격화

1) MICE 산업 육성⁵²⁾

■ 필요성

- MICE 산업은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써 국제규모의 전시회 및 컨벤션 개최를 통해 산업, 관광, 문화 등 타 산업과의 동반성장을 견인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수행함
- 특히, 국제회의는 계절변화에 따른 영향력이 적어 관광비수기의 해결책으로써 활용도가 높으며, 관광업계의 마케팅 및 新시장 개척에 기여도가 높음
 - 일반적인 외래관광객의 한국 체재일수는 평균 4박 5일이나 반면 국제회의의 경우 통상 7일 이상으로 평균소비액의 여기 2,488달러로 일반관광객의 2.8배 이상으로 분석됨
- 문화체육관광부(2018)는 「관광진흥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중심의 MICE 산업 육성 및 분야별·시장별 다변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추진함
 - 국제회의복합지구 등 지정 : 숙박·쇼핑·공연 등 연관 산업 시설 집적화를 위한 국제회의복합지구·집적시설 신규 지정 추진(2018. 상반기)을 통한 특례 제공
 - ❖ 국제회의복합지구는 관광특구로 간주되며, 재정지원을 통한 부담금 감면 외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과 특히, 부담금 감면을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함
- 반면, 현재 전라북도도 고부가가치 산업인 MICE 산업과 관련한 인프라 및 지원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며, 전북혁신도시 12개 기관과 기금운용본부 이전에 따라 MICE 산업에 대한 수요 급증이 예상되므로 ‘컨벤션센터 건립’, ‘컨벤션뷰로 설립’ 및 ‘전북형 MICE 콘텐츠 발굴’ 등 관련 사업들의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북도 일원
 - 전라북도 전주시, 혁신도시 일원(컨벤션 센터·컨벤션뷰로)
 - 전라북도 일원(전북형 MICE콘텐츠)

52) 전라북도 관광총괄과 내부자료(2017)를 참고하여 재구성함

- 사업기간 : 2019년~2024년(6개년)
- 총 사업비 : 1,000억 원 이상
 - 민간자본으로 추진되는 호텔, 쇼핑센터 포함 시 사업비는 상향 조정될 수 있음
 - 컨벤션센터 건립 구체적인 사업비는 사업부지 및 기본계획 수립 후 확정함

가. 컨벤션센터 건립 계획⁵³⁾

- 농생명 컨벤션센터
 - 목표 : 농생명 관련 전산업 육성을 통한 관광 수요 창출
 - 위치 : 완주군 이서면 일원(혁신도시 택지개발)
 - 면적 : 57,000㎡(부지면적)
 - 사업기간 : 2020년~2022년(3개년)
 - 총사업비 : 50,000백만 원(국비 25,000, 도비 12,500, 군비 12,500)
 - 사업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완주군
 - 사업내용 : 전시장, 컨벤션, 임대시설, 부대시설 등
- 전북금융센터(JTFC)
 - 목표 : 금융투자육성을 통한 금융중심지 지정
 - 위치 : 전주혁신도시 일원
 - 면적 : 100,000㎡(연면적), 1,000㎡(건축면적)
 - 사업기간 : 2020년~2022년(3개년)
 - 총사업비 : 2,531백만 원(공사비 2,227, 부지매입 143, 용역비 등 161) 국책사업화와 민간 투자유치(건립부지 민간 장기임대)방안 검토 필요
 - 사업주체 : 중앙부처, 전라북도, 연금관리공단
 - 사업내용 : 사무공간, 교육/연구 공간, 회의시설, 전시시설

53) 전라북도 내 컨벤션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현재 5개 정도의 유형·장소가 거론되고 있으므로 건립 추진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 후 추진이 필요하며 고려요인으로 다음과 같음. 사업부지 위치에 대한 타당성 고려, 추진주체의 추진의지에 따른 사업기간 가능성 검토, 국비확보를 통한 사업추진 계획 수립, 회의 및 전시시설 규모 검토, 전라북도 강점을 살린 컨셉 등이 고려되어야 할 사항임

○ 전주 전시컨벤션센터

- 목표 : 대규모 행사 추진 및 지역 부가가치 창출
- 위치 :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39일원(종합운동장 부지)
- 면적 : 26,000㎡(부지면적), 30,079.14㎡(연면적), 지하 1층, 지상 4층
- 사업기간 : 2015년~2018년(4개년) 미 시행에 따른 사업기간 조정중에 있음
- 총사업비 : 59,000백만 원 (지특 29,500, 지방비 29,500) 토지매입비 별도
- 사업주체 : 미정(전라북도, 전주시 협의 후 추진)
- 사업내용 : 2,000명 이상 대회의실 1실, 중소회의실 10실, 전시장 및 부대시설 등

○ 전주 전시/컨벤션

- 목표 : 舊 대한방직 부지의 복합단지(컨벤션센터 포함) 조성
- 위치 :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220(대한방직 전주공장)
- 면적 : 216,463㎡(부지면적)
- 사업기간 : 구체적 계획 미수립
- 총사업비 : 약 1,500억 원 (부지전체 사업비 약 2조원 예상) 전시컨벤션 1,000억, 호텔 500억, 수익시설
- 사업주체 : 민관합동개발(컨벤션센터 건립 후 전주시 기부채납)
- 사업내용 : 전시시설, 회의시설, 수익시설, 자원·공용, 기타

○ 이서 표포장

- 목표 : 유휴부지 활용방안으로 컨벤션센터 검토
- 위치 : 완주군 이서면 낙산로 133-84 외 2필지
- 면적 : 50,000㎡(부지면적), 10,000㎡(시설면적)
- 사업기간 : 미정
- 총사업비 : 100,000백만 원(국비 50,000 도비 50,000)
- 사업주체 : 공공(전시장, 컨벤션), 민자(호텔 및 쇼핑시설)
- 사업내용 : 전시장, 컨벤션, 부대시설(민자)

나. 컨벤션부로 설립

○ 사업개요

- 전시회, 국제회의 유치뿐만 아니라 행사의 발굴, 기획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

라북도 컨벤션뷰로 설립이 필요하며, 전시회, 국제회의 유치 전담 전문가 활동 및 영역 확대 필요

○ 조직 형태

- 전국적으로 12개의 컨벤션뷰로가 운영 중이며 운영 초기에는 지자체 실국이 담당하고 이후 재단법인 전환을 거쳐 지방공기업에서 담당
- 단독 설치하는 경우는 비영리 사단법인, 재단법인(지방자치단체 출자출현기관)
- 비영리 사단법인의 경우는 안정적 재원확보가 어려우며, 재단법인은 예산 확보 및 전문인력 확보에 유리
- 조직 형태는 도내 문화관광체육국 관광총괄과에서 담당하고 이후 전북문화관광재단으로 이관 검토 가능

○ 인력·예산

- 초기 전문인력은 5명에서 출발 컨벤션센터 건립 후 10명 이상
- 운영비용은 초기에 10억 원 이내에서 컨벤션센터 설립 후 예산 증액

[표 5-4] 전국 컨벤션뷰로 운영 현황

조직명	컨벤션센터	구성
서울관광마케팅	코엑스(COEX)	3개팀 20명
대구컨벤션뷰로	엑스코(EXCO)	3개팀 11명
제주컨벤션뷰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3개팀 12명
광주관광컨벤션뷰로	김대중컨벤션센터	4개팀 18명
경남컨벤션뷰로	창원컨벤션센터(CECO)	2개팀 7명
강원컨벤션뷰로	지역컨벤션센터 활용	2개팀 7명
경주컨벤션뷰로	경주화백컨벤션센터	1개팀 8명
부산관광공사(컨벤션뷰로)	벡스코(BEXCO)	1개팀 10명
경기관광공사(경기MICE뷰로)	킨텍스(KINTEX)	1개팀 10명
고양시관광컨벤션협의회 컨벤션뷰로	킨텍스(KINTEX)	4명
대전마케팅공사(컨벤션유치팀)	대전컨벤션센터(DCC)	3개팀 23명
인천관광공사(MICE사업단)	송도컨벤시아	3개팀 24명

자료 : 전국 컨벤션뷰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재구성함

다. 전복형 MICE 콘텐츠 발굴

○ 사업개요

-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전시회, 국제회의 발굴, 기획
- 미래지향적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전시회 기획
- 각종 학술행사의 유치와 더불어 전국 순회 전시회, 국제회의의 적극 유치

○ 사업내용

- 아시아 Source 전시회, 세계한식컨퍼런스, 국제한식요리경연대회 등 식품관련 다양한 전시회, 국제회의의 행사 기획
- 전복의 전통문화, 예술을 활용한 공연과 국제회의가 접목된 행사 발굴, 기획
- 청소년, 교육 성격의 행사를 유치하거나 행사 기획
- 금융, 자동차, 부품, 신재생 에너지 등과 관련된 다양한 전시회, 국제회의의 발굴
- 지역별로 순회하여 개최하는 MICE 관련행사를 유치하여 정기적으로 개최
 - ❖ Korea MICE Alliance Conference & Awards, Asia Pacific MICE Business Festival(구 '한국마이스연례총회 및 마켓플레이스'), Korea MICE Expo(KME) 등
- MICE 콘텐츠 공모전 실시

■ 기대효과

- 컨벤션센터 건립을 통해 대상지 내 공공기관과 연계한 국제회의, 국내회의 등 대규모 회의뿐만 아니라 전시산업 유치를 통해 고부가가치가 높은 MICE 관광객 유치에 기여함
- 인센티브투어(Incentive Tour) 등 고부가가치 MICE 관련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 증진에 기여함

2) 지·덕·섬 휴양관광벨트 구축

■ 필요성

- 전라북도 동부권 6개 시·군은 서부권 대비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이미지로 살기 좋은 ‘건강과 풍요의 지역’으로 재창조 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상생 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며, 최근 5년 간 ‘1시군 대표관광지’, ‘1시군 1생태관광지’, ‘동부권 발전 사업(식품, 관광)’을 바탕으로 관광객의 증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전인한 사례가 있음
- 동부권 6개 시·군의 기 구축된 자원의 고도화를 위해서 지역의 특성·여건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실현가능성 높은 발전방안 및 국가예산과 연계 가능한 발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업개요

- 위 치 : 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일원
- 사업기간 : 2018년~2026년(9개년)
- 총 사업비 : 7,851억 원(국비 6,251, 지방비 1,600)

■ 사업내용

- (남원시) 친환경 관광교통 매력물 :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
 - 위치/사업기간/사업비 : 주천면 일원, 2018년~2026년, 2,434억 원(전액 국비)
 - 사업내용 : 총 L=34km. 1구간 18km(육모정~고기삼거리~정령차~달궁삼거리), 2구간 16km(달궁삼거리~성삼재~천은사). 전남 구례군 광의면 포함
- (진안군) 건강·휴양 거점 : 마이산 헬스관광 벨트 조성
 - 위치/사업기간/사업비 : 마이산 일원, 2019년~2024년, 500억 원
 - ❖ (국비 250, 지방비 250)
 - 사업내용 : 마이산 명상길 구축, 마이산 조망 8거점 조성, 탐방로 경관조명, 명상길 거점마을 활성화, 마이산 남부 신비 역사공원화 사업(이산묘 역사공원, 예술공원 등)

○ (무주군) 태권도 글로벌화 : 무주 태권시티 조성

- 위치/사업기간/사업비 : 태권도 일원, 2019년~2024년, 2,000억 원

❖ (국비 1,500, 지방비 500)

- 사업내용 : 태권도 아카이브, 태권도 용품 클러스터, 태권도 수련파크 조성, 태권도 특성화 학교 설립, 태권도 연구소, AR·VR 체험관 건립, 태권도 원천 콘텐츠 개발, 태권도 세미나프로그 창설 등

○ (장수군) 자연 식생 명소화 : 백두대간 산악형 정원 조성

- 위치/사업기간/사업비 : 장계면 명덕리 일원, 2020년~2025년, 500억 원

❖ (국비 250, 지방비 250)

- 사업내용 : 육십령 정원센터, 테마정원, 숲길, 육십령 캠핑장, 편의시설, 지방정원 운영 및 기능유지, 지역주민소득 연계사업 발굴, 정원식물 DB구축, 국가정원 지정, 정원박람회 개최 등

○ (임실군) 수변레저 거점 : 옥정호 에코 관광지 개발

- 위치/사업기간/사업비 : 옥정호 일원, 2019년~2025년, 2,000억 원

❖ (국비 1,400, 지방비 600)

- 사업내용 : 옥정호 수변관광도로 개설, 운종교차로 개선, 다목적댐 박물관 건립, 워터아트밸리 조성, 수변레포츠 조성, 에코경관 조성 등

❖ 옥정호 수역상생협력 선언서 4항 의거, 전라북도, 정읍, 임실, 순창 협의 후 추진함

○ (순창군) 건강 수명 120세 선도 : 국립노화종합연구원 설립

- 위치/사업기간/사업비 : 인계면 인덕로 일원, 2019년~2022년, 417억 원(전액 국비)

- 사업내용 : 노화 종합 R&D 기획, 노화교육 관련 교재 및 교구 개발 연구, 노화연구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노화종합연구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노화종합연구 정책 지원 등

■ 기대효과

○ 동부권 역사문화자원과 생태·환경자원의 활용을 통해 지역브랜드 및 이미지의 가치 제고와 국내·외 관광객 유치 증진을 도모함

○ 기 구축 시설과 경쟁력 있는 자원 간 융합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

3) 새만금 캠핑레저관광단지 조성

■ 필요성

- 국민 여가활동 수요 증대와 주 5일 근무제 실시로 인해 캠핑레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중적인 여가활동으로 정착되고 있는 추세임
 - 국내 캠핑인구는 약 5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캠핑시장은 약 6,000억 원 이상 규모로 성장(캠핑아웃도어진흥원, 2014)하였으며, 약 10년 만에 국내 등록 캠핑카는 약 20배 증가(2007년 346대→2016년 6,768대)한 것으로 나타남(국토교통부, 2017)
 - 2013년 캠핑시장의 규모는 총 7조 8,000억 원으로 '캠핑용품 5,000억 원', '아웃도어 6조 4,000억 원', '캠핑카 5,000억 원', '캠핑푸드 4,000억 원' 등으로 나타남
- 전라북도는 '2023 세계잼버리 대회' 개최를 통해 캠핑 공간 조성 및 캠핑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글로벌 규모의 캠핑레저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새만금 관광레저용지를 '동북아 캠핑레저 관광핵심거점'으로 조성하여 향후 캠핑산업의 발전 및 레저문화 확산의 전진기지로 활용해야 함
 - '2023 세계잼버리 대회'는 전라북도의 전통문화 체험·교류 프로그램 바탕으로 을 도내 주요 문화와 관광지를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됨

| 2023새만금 세계잼버리 개요

- ▶ 기간·장소 : 2023. 8월중(12일간), 새만금 일원
- ▶ 참가규모 : 169개국 5만여명(국외 4만명, 국내 1만명)
- ▶ 총사업비 : 491억원(자부담/참가비 310, 국비 54, 지방비 127)
- ▶ 주요 행사 : 개영식, 과정활동(야영, 수상활동, 문화체험 등), 한국의 밤, 국제의 밤 등
- ▶ 주최/주관/후원 : 세계스카우트연맹/전북·한국스카우트연맹/여성이족부



■ 사업개요

- 위 치 :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일원
- 사업기간 : 2020년~2023년(4개년)
- 총 사업비 : 500억 원(국비 250, 지방비 250)
 - 구체적인 사업비는 기본계획 수립 후 확정함

■ 사업내용

- 캠핑산업 체험지구 : 전 세계 캠핑 관련 용품을 직접 구매하거나 대여 기능을 수행함. 캠핑 관련 대표브랜드를 입점시킴으로써 방문객에게 홍보·판매하거나 캠핑용품 대여를 통해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캠핑용품산업관, 캠핑장비산업관, 캠핑아웃도어관, 캠핑산업전시실, 부대시설 등
- 캠핑역사박물관 : 캠핑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 조사(연구) 및 교육과 전시 기능을 수행함
 - 캠핑의 역사 및 캠핑자원, 캠핑장비, 용품 등의 역사 전시시설 등
- 캠핑체험촌 : 국제적 규모의 캠핑체험촌을 조성하여 국내·외 캠핑 문화를 선도하며, 캠핑족의 레저 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함
 - 캠핑야영촌, 오토캠핑장, 글램핑, 카라반, 숙박동, 안내동, 다목적 잔디구장, 체험시설, 실내체육관 등
- 캠핑로컬푸드존 : 음식관광과 연계하여 캠핑푸드 출시와 요리 시연회 개최하며, 전라북도 로컬푸드와 연계함으로써 관광객 만족도 증진을 제고함
 - 캠핑푸드 꾸러미, 캠핑식자재 스토어(전라북도 로컬푸드), 캠핑푸드거리 조성
- 축제 및 이벤트 : 캠핑은 방문객의 체류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특별한 콘텐츠 없이도 스스로 재미요소를 찾아 즐기는 경향이 강함. 캠핑족의 만족도 제고 및 체류시간 연장을 통해 다양한 축제를 개최함
 - 캠핑푸드페스티벌, 캠핑 페스티벌, 새만금 짜즈 페스티벌
 - (사례) 자라섬은 국내 최초의 발전전용댐인 청평댐(1943년)이 완공되면서 생긴 섬으로 1968년 가평군 지명위원회에서 채택된 "자라목이라 부르는 늪산이 바라보고 있는 섬이니 자라섬으

5. 관광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1) 전라북도 관광 일자리 창출 방안

가. 서비스분야 일자리 현황 및 특징

-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운영 방향은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이며, 이에 따라 취업유발 효과가 높은 서비스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국가적·사회적 요구와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특히, 2016년 OECD국가 평균 고용률(1/4분기 기준)은 전기 대비 0.2p% 상승한 67.2%이며, 한국은 66.3%로 경미한 수준이나, 여전히 OECD 국가의 평균치를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남(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
- 한국무역협회(2017) 연구⁵⁵⁾에 의하면,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주요 선진국들은 ‘서비스산업’을 新성장동력으로 규명하고 ‘의료’, ‘헬스케어’, ‘금융’, ‘관광’, ‘컨설팅’ 등의 부문에서 투자 확대 및 인력양성과 관련한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표 5-5] 국내 서비스산업 고용 및 부가가치 비중

구분	1992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6년
취업자	50.2	61.2	65.7	68.8	70.6
부가가치	53.9	57.5	59.4	59.3	59.1

자료 : 한국무역협회(2017),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국제적 위상과 일자리 창출효과」

나. 관광분야 일자리 현황 및 특징

■ 관광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현황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7)의 ‘관광사업체기초통계조사’ 분석 결과, 2016년 국내 관광사업체 수는 총 27,696개소로 전년 대비(23,874개소) 약 16.0% 증가(3,822개소)한 것으로 나타남

55) 한국무역협회(2017),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국제적 위상과 일자리 창출효과」, Trade Focus, 40호

- '여행업(13.7%)', '관광숙박업(14.2%)', '관광객이용시설업(161.2%)', '국제회의업(13.1%)', '유원시설업(68.1%)' 등 총 5개 업종에서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카지노업(동일)'과 '관광편의시설업(-23.6%)'의 경우 전년 대비 규모가 동일하거나 대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 또한, 2016년 기준 관광사업체 종사자수는 총 261,978명으로 전년(235,604명) 대비 약 11.2%(26,374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광객이용시설업'과 '유원시설업'의 업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여행업(16.4%)', '관광숙박업(4.7%)', '관광객이용시설업(57.4%)', '유원시설업(37.5%)' 등 총 4개 업종에서 종사원의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국제회의업(-16.8%)'의 경우, 산업의 규모가 확대되었음에도 종사원의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카지노업(-3.2%)' 및 '관광편의시설업(-2.8%)'에서도 종사하는 인원이 소폭 감소함

■ 지역별 관광사업체 및 종사원 추이

- 2016년을 기준으로 지역별 관광사업체 분포도에 대한 분석 결과(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 '서울(9,457개소, 34.1%)'이 가장 많은 분포도를 보였음
- '전북'의 경우, 총 1,201개소(4.3%)가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1,069개소) 대비 산업의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됨
- 관광사업체 총 종사원수는 261,978명으로 '서울(37.1%)', '경기(11.5%)', '강원(10.2%)', '제주(7.0%)'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북'의 경우, 2.7%로 분석되어 전국 대비 관광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전북'에 소재한 관광산업 총 종사원 수는 7,096명이며, 전국 대비 '여행업(1.3%)', '관광편의시설업(0.5%)', '관광숙박업(0.3%)', '관광객이용시설업(0.3%)' 및 '유원시설업(0.2%)'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5-6] 2016년 기준 지역별 관광사업체 및 종사원 수 추이

(단위 : 개소, 명)

지역	구분	소계	여행업	관광 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	국제 회의업	카드사업	유원 시설	관광 편의시설
전체	사업체	27,696	16,605	1,716	3,168	700	17	1,782	3,708
	종사원	261,978	98,421	73,631	17,421	12,596	9,115	23,683	27,110
서울	사업체	9,457	6,996	354	884	465	3	130	625
	종사원	97,279	46,758	27,214	1,878	8,860	2,134	3,853	6,583
부산	사업체	1,741	1,113	114	141	49	2	174	148
	종사원	15,362	5,628	3,804	1,150	1,308	745	799	1,928
대구	사업체	917	630	21	39	27	1	64	135
	종사원	7,710	4,104	730	135	342	180	851	1,369
인천	사업체	859	405	115	108	7	1	63	160
	종사원	6,204	2,481	1,318	359	46	662	313	1,025
광주	사업체	583	435	18	30	17	-	25	58
	종사원	3,373	1,616	469	61	251	-	192	785
대전	사업체	596	400	23	12	30	-	58	73
	종사원	4,816	1,982	961	461	373	-	295	745
울산	사업체	352	188	14	15	3	-	53	79
	종사원	1,914	465	642	66	7	-	163	571
세종	사업체	48	29	-	5	2	-	12	-
	종사원	137	91	-	10	4	-	32	-
경기	사업체	3,621	1,893	163	475	40	-	471	579
	종사원	30,106	10,302	4,468	2,937	888	-	5,846	5,664
강원	사업체	1,177	380	148	388	13	2	83	163
	종사원	26,707	2,347	14,511	1,767	138	3,737	3,075	1,131
충북	사업체	617	334	32	128	4	-	63	56
	종사원	6,620	3,781	1,121	1,054	20	-	349	294
충남	사업체	781	364	38	148	2	-	100	129
	종사원	9106	2,216	1,320	2,791	6	-	2,221	552
전북	사업체	1,201	556	48	214	7	-	52	324
	종사원	7,096	3,434	797	909	67	-	573	1,315
전남	사업체	1,220	484	143	127	1	-	101	364
	종사원	8,892	2,373	2,979	896	3	-	1,462	1,178
경북	사업체	1,378	527	75	201	12	-	112	451
	종사원	9,311	2,921	2,598	1,154	145	-	1,008	1,485
경남	사업체	1,364	638	90	196	18	-	190	232
	종사원	9,079	3,616	2,372	872	110	-	918	1,190
제주	사업체	1,784	1,233	320	57	3	8	31	132
	종사원	18,267	4,306	8,327	920	28	1,657	1,733	1,296

자료 : 관광자식정보시스템(2017), 「2016년 관광사업체기초통계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016년 기준, 관광사업체 1개소당 평균 종사자 수는 9.5명으로 전년(9.9명) 대비 0.4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광편의시설업(1.6%)'과 '여행업(0.1%)'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5-7] 관광사업체 1개소당 평균 종사원 수

(단위 :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증감률(%)
전체	11.1	9.9	9.5	-0.4
여행업	5.4	5.8	5.9	0.1
관광숙박업	52.8	46.8	42.9	-3.9
관광객이용시설업	31.8	9.1	5.5	-3.6
국제회의업	25.6	24.4	18.0	-6.4
카지노업	525.4	554.0	536.2	-17.8
유원시설업	28.7	16.2	13.3	-2.9
관광편의시설업	7.9	5.4	7.3	1.6

자료 : 관광자식정보시스템(2017), 「2016년 관광사업체기초통계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다. 관광분야 일자리창출 정책

■ 관광분야 일자리 정책의 흐름

-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3大 경제전략으로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수립함(월간조선, 2017)⁵⁶⁾
 -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가계소득 증진과 내수산업 활성화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지자체, 출연기관 및 출자기관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 및 확대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비롯하여 소상공인 등 각 부문에서 일자리 축소 없이 최저임금 인상 방안을 모색토록 함
 - (혁신성장·규제혁신) 경제활력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본전략으로 규제혁신을 통해 新산업 육성 및 혁신성장의 사례 구체화에 따른 국가전략산업 육성의 기초를 구축함
 - (공정경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의 핵심방향인 '정의로운 나라, 더불어 잘사는 경제'의 핵심근

56) 월간조선(2017), 「문재인정부의 3대경제전략」, <http://monthly.chosun.com>

간으로써 사회 전반에 만연한 갑을(甲乙)관계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 소비자보호 및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체계를 마련하는 등 상생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함

-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2018)는 「혁신성장을 이끄는 문화」의 업무추진 목표를 수립하고 '현장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 지원'의 과제를 추진하고자 함
 - '국가관광전략회의(2017. 12)'에서 '관광산업'은 고용창출효과가 제조업 대비 약 2배⁵⁷⁾ 높은 산업으로 저(低)성장 기조의 국가 新성장동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적시함
 - 또한, '일자리·기업지원 허브 조성'을 목적으로 문화와 관광 등 다부문 산업 융복합에 따른 신규사업 발굴과 이를 육성·지원할 원스톱(One Stop) 종합상담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정부 및 관광공사·관광업계 및 학계'의 소통과 협업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확보토록 함

라. 전라북도 관광분야 일자리 창출방향⁵⁸⁾

■ 전북 도내 대학 관광인력 취업 종합지원망 기능 강화

- 현재, 관광분야의 취업에 관한 정보제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관광 관련 학과 졸업생의 경우, 전공과 상이한 취업연계가 발생하고 있는 추세임. 특히, 관광관련 전문대학과 대학교를 졸업한 전공자들의 관광분야 취업률(2015년 기준)은 50%미만으로 나타났으며, 전문대학의 경우 졸업생의 47.8%, 대학교의 경우 49.1%가 관광분야에 취업한 것으로 분석됨
- 우수한 인력의 확보와 전공자 취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자리의 규모와 질, 향후 발전 전망 등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나 현재의 기반시설 및 지원체계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존재함
- 따라서 관광분야 취업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채용정보, 교육훈련정보, 기업정보) 및 세부적인 관련 정보(직종·직무별 노동조건, 임금, 자격요건)를 제공하는 취업 관련 통합정보망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57) 2014년 한국은행·산업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관광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8.9로 서비스업(17.3) 대비 약 1.6, 제조업(8.8) 대비 약 10.1p 높은 것으로 나타남

58) 문화체육관광부(2018), 「제5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 수립 연구」를 참고하여 재구성함

■ 전북중심의 관광창업 지원체계 구축

- 관광산업은 일자리 창출·확충 등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산업으로써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지역 단위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은 관광두레사업을 제외하고는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정보통신 및 제조업 등의 부문에서는 ‘창조경제센터’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나 관광산업의 경우 취업과 관련된 지원은 부재한 상황이 지속됨
- 따라서 지역인재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창업지원과 관광창업의 확대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가칭)전북관광 창업지원센터’ 등 관련 역할과 기능을 제공하는 조직 또는 기관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전북 도내 주요 관광관련 학과 운영 및 전북문화관광재단을 중심으로 관광사업 창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가칭)전북관광 창업지원센터’ 지정 및 창업지원사업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전북형 관광콘텐츠 기업 지원 기반 조성

- 전라북도 테마여행 10선 ‘시간여행’ 코스(전주, 군산, 부안, 고창) 콘텐츠 공모전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시간여행 4개 지자체, 지역 대학(전북대, 전주대, 군산대, 호원대 등) 연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별 멘토링 확대를 통한 관광산업체 매칭도 고려할 부분임

제2절 전라북도 토탈관광 추진과제 핵심요약

[표 5-8] 전라북도 토탈관광 향후 추진과제 핵심요약

정부정책	추진과제	필요성 및 목적	사업 개요	중앙부처	과제성격
- 생애주기별 관광지원체계 구축 - 교과연계 체험학습 코스 발굴 - 출발 청년원정대 지원 - 관광교통패스 도입 - 근로자 휴가지원 - 실버여행학교 도입	전북투어패스 활성화	전북투어패스의 전국적 관광모델의 부상과 함께 시범사업 종료 후 전북 14개 시·군으로 전면 확대 운영 및 통합시스템 개발 추진에 따라 전북투어패스의 활성화를 위한 선결 과제, 개선방안 제시를 통한 판매촉진 도모 및 이용편의성 제고	- 사업위치 : 전북 14개 시·군 일원 - 사업기간 : 2014년~18년(5개년) - 사업내용 : 연구용역, 관광인프라정비, 상품개발, 이벤트 및 홍보	문체부 코레일	계속사업
- 취약계층 관광지원 - 열린관광지 조성 확대	열린관광지 조성 확대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 관광정책 기조인 「관광복지」의 확대를 위해 열린관광지 조성을 국정과제로 지정하고 공모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100개소를 조성할 계획 - 이에 전라북도 차원의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한 실정	- 사업위치 : 전북 관광지 일원 - 사업기간 : 2018년~22년(5개년) - 사업목표 : 전북 관광지 10개소 선정 - 무장애 관광코스 개발, 화장실·편의시설 개·보수, 안내체계 정비, 무장애 맞춤형 컨설팅 및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등	문체부	계속사업
- 지역주도형 관광산업 생태계 - 지역주민사업체 창업 활성화	관광두레 사업 확대	- 관광두레는 주민주도형 사업모델로 청년일자리 확충 및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 - 정부는 2022년까지 1,125개 이상의 두레를 발굴·육성하여 지역민이 중심이 되는 자생적·지속가능한 관광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계획	- 사업위치 : 전북 14개 시·군 일원 - 사업기간 : 2018년~22년(5개년) - 사업목표 : 전북 14개 시·군(기존 4개), 주민사업체 100개소	문체부 행안부 농식품부 환경부	계속사업

[표 5-9] 전라북도 토탈관광 향후 추진과제 핵심요약 (표 계속)

정부정책	추진과제	필요성 및 목적	사업 개요	중앙부처	과제성격
- 지역주도형 관광산업 생태계 - 한국형 DMO사업 추진 지원	전북형 DMO - 전북관광 중간지원조직	- 지방분권화로 인해 중앙부처의 관광자원개발사업이 지방정부로 이양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역관광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기관 또는 조직 필요 - 전라북도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업의 지속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조직이 필요	- 정부정책 동향 - 중앙 및 초광역 또는 생활권 기반 기초단위 구분 한 국형 DMO조직설립·역할 부여 통한 지역주도형 관광사업 발굴 지원 - 중앙·초광역단위 : 공설공영형 - 기초단위 : 공설민영형	문체부	신규사업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 렌터카, 카셰어링, 시티투어 픽업존 - 대중교통 관광지도 제작	완주·전주 혁신도시 대중교통 환승센터	- 전라북도 관광 경쟁력 증진을 위해 관광객의 접근편의성 및 대중교통 이용편의성 도 모 필요 - 전라북도의 지리적·교통적 중심지인 완주군에 대중교통 환승센터를 조성함에 따라 전라북도를 대중교통 관광중심지로 브랜드 확립	- 사업위치 : 전북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 사업기간 ; 2019년~21년(3개년) - 총사업비 : 4,000백만원 - 국비 1,000, 도비 2,000, 군비 1,000 - 사업주체 : 국토부, 전라북도, 완주군	국토부 문체부	신규사업
- 새로운 지역관광자원 발굴·육성 - 관광전략 거점도시 조성 - 문화관광유산 기반시설 확충 - 숨은 관광지 발굴 및 개방	전라천년문화권 광역관광개발	- 전라권이 포함된 광역관광개발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전라도 권역의 국가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후속 계획이 필요 - 전라천년문화권(광주, 전북, 전남)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진흥계획을 통해 호남권 관광경쟁력 제고 및 활성화 기여	- 사업위치 :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남도 - 사업기간 ; 2020년~29년(10개년) - 총사업비 : 기본계획의 수립 이후 확정	문체부 문화재청 관련부처	신규사업

[표 5-10] 전라북도 토탈관광 향후 추진과제 핵심요약 (표 계속)

정부정책	추진과제	필요성 및 목적	사업 개요	중앙부처	과제성격
- 새로운 지역관광자원 발굴·육성 - 관광전략 거점도시 조성 - 문화관광유산 기반시설 확충 - 숨은 관광지 발굴 및 개방	1시군 대표관광지 2단계	2015년~19년 1차 대표관광지 육성 사업 완료에 따라 2차 대표관광지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경쟁력 있고 특화권 관광지를 집중 육성하여 지역관광 경쟁력 강화 - 인근 관광자원과의 연계·확산으로 대표관광지 위상 제고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활성화 도모	- 사업위치 : 전북 14개 대표관광지 일원 - 사업기간 ; 2020년~24년(5개년) - 총사업비 : 매년 14,000백만 원(도비) - 시·군당 1,000백만 원 5년(2020년~24년) 간 총 70,000백만 원	문체부 문화재청 관련부처	계속사업
- 새로운 지역관광자원 발굴·육성 - 세계적 문화관광축제 육성	중장기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	2023 세계잼버리 대회는 향후 전라북도가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 및 인프라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중·장기적으로 전라북도가 유치할 수 있는 대규모 국제행사를 검토하며 전북 도정의 핵심사업과 연계 방안 고려 필요	- 검토대상 - IOC지원 또는 국비지원 근거가 있는 체육행사와 최소 유치비용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행사의 우선 검토 - 신규시설 조성 없이 기 구축 시설 활용 및 전라북도 인프라 여건에 부합하는 농·생명 관련 행사 유치 검토	문체부	신규사업
- 새로운 지역관광자원 발굴·육성 - 생태관광 활성화 추진	1시군 1생태관광지 추진방향	- 전라북도의 1시군 1생태관광지 사업의 실태조사 결과 생태관광지에 대한 시·군의 이해와 의지부족, 유사한 기반시설 구축으로 본연의 취지 퇴색 - 장기적 1시군 1생태관광지 사업의 방향을 고려하여 사업별 중장기 계획 및 전라북도 차원의 관리·운영계획 수립 필요	- 사업위치 : 전북 12개 시·군 - 전주, 부안 제외 - 사업기간 ; 2015년~24년(10개년) - 총사업비 : 102,200백만 원 - 국비 50,400 도비 26,600 시군비 25,200 - 시군별 매년 800백만 원 지원	환경부	계속사업

[표 5-11] 전라북도 토탈관광 향후 추진과제 핵심요약 (표 계속)

정부정책	추진과제	필요성 및 목적	사업 개요	중앙부처	과제성격
- 새로운 지역관광자원 발굴·육성 - DMZ·섬 관광자원 개발	고군산군도 新해양 관광거점조성	- 고군산군도는 중국 중심의 세계적 관광유입의 관문역할 및 해양관광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입지적 우위 확보 - 문화, 역사, 자연 및 해양자원을 활용, 지역 경제 발전 유도를 위한 해양관광 선진모델 개발·육성 필요	- 사업위치 : 전북 군산시 고군산군도 일원 - 사업기간 ; 2019년~23년(5개년) - 총사업비 : 110,000백만 원 - 국비 55,000 지방비 55,000 - 구체적 사업비는 기본계획 수립 후 확정	문체부 행안부	신규사업
- 새로운 지역관광자원 발굴·육성 - 걷기 여행길 조성 확대	길 여행 박물관 건립	- 전라북도는 '전라도 정도(定都) 천년'을 기념하여 전북의 생태, 역사, 문화가 담긴 '전북 1,000리길 조성'중 - 도보여행객 유치 및 지역주민 소득 향상을 위해 학습, 체험, 교육의 도보길 박물관 조성 필요	- 사업위치 : 전북 1,000리길 일원 - 타당성 조사 후 후보지 결정 - 사업기간 ; 2019년~23년(5개년) - 총사업비 : 30,000백만 원 - 국비 15,000 지방비 15,000 - 구체적 사업비는 기본계획 수립 후 확정	문체부	신규사업
- 고부가 관광산업의 지속 육성 - MICE유치분야 및 시장 다변화	MICE 산업 육성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중심의 MICE산업 육성 및 분야별·시장별 다변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추세 - 전북은 MICE산업에 대한 인프라 및 지원체계가 미흡한 실정임에 따라 컨벤션센터 건립, 컨벤션뷰로 설립 및 전북형 MICE콘텐츠 발굴을 통해 지역경쟁력 확보 필요	- 사업위치 : 전북 전주시·혁신도시 일원 - 전북형 MICE콘텐츠 : 전북 일원 - 사업기간 ; 2019년~24년(6개년) - 총사업비 : 10,000백만 원 - 호텔·쇼핑센터 등 민자 추진사업으로 사업비 상향조정 예정 - 컨벤션 센터 건립 구체적 사업비는 기본계획 수립 후 확정	문체부	신규사업

[표 5-12] 전라북도 토탈관광 향후 추진과제 핵심요약 (표 계속)

정부정책	추진과제	필요성 및 목적	사업 개요	중앙부처	과제성격
- 고부가 관광산업의 지속 육성 - 웰니스 관광산업 육성	자·덕·섬 휴양관광벨트 구축	- 전북 서부권 대비 동부권의 경우,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미지임에 따라 미래 상생 모델 제시가 필요한 시점 - 동부권 6개 시·군의 자원 고도화를 통해 지역특성 및 여건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특히 국가예산과 관련된 발전방안 수립이 요구되는 시점	- 사업위치 : 전북 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일원 - 사업기간 ; 2018년~26년(9개년) - 총사업비 : 785,100백만 원 - 국비 625,100 지방비 160,000 - 구체적 사업비는 기본계획 수립 후 확정	문체부	신규사업
- 방한시장 고품격화 - 프리미엄 관광콘텐츠 발굴	새만금 캠핑레저 관광단지 조성	2023 세계잼버리 대회를 계기로 캠핑체험 공간 조성 및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글로벌 규모의 캠핑레저공간 조성 필요 - 새만금 관광레저용지를 캠핑레저 관광핵심 거점으로 조성, 캠핑산업 발전 및 레저문화 확산의 전진기지로 활용	- 사업위치 :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일원 - 사업기간 ; 2020년~23년(4개년) - 총사업비 : 50,000백만 원 - 국비 25,000 지방비 25,000 - 구체적 사업비는 기본계획 수립 후 확정	문체부	신규사업
- 혁신적 관광기업 발굴 - 혁신관광기업 발굴 육성 - 일자리·기업지원의 허브조성 - 관광산업 육성펀드 조성 확대	전라북도 관광일자리 창출 방안	-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의 핵심방향인 '일자리창출'과 관련하여 취업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비스산업의 육성 및 발전도 필요 - 문화체육관광부가 현장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 지원을 추진하고자 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전라북도의 방안 모색 필요	- 정부정책 동향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국가 3대 경제전략 반영 - 문화체육관광부(2018)는 「혁신성장을 이끄는 문화」의 업무추진 목표에 따라 현장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 지원의 추진과제를 선정	문체부	신규사업

정책연구 2018-04

**국가 관광정책과
전라북도 토탈관광 연계 활성화 방안**

발 행 인 | 김 선 기

발 행 일 | 2018년 6월 30일

발 행 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223-3 9332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